

# 마을돌봄 활성화 및 체계구축을 위한 선결요인에 관한 연구

-정림동 사례를 중심으로-

## 책임연구원

임진섭(배재대학교 실버보건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이리나(정림종합사회복지관 팀장)

권진주(정림종합사회복지관 팀장)

지희숙(지역교육다움 대표)

김동기(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영선(정림종합사회복지관장)

## 연구지원

한재규(정림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장)

김운이(정림아동발달지원센터 원장)

김바울(정림종합사회복지관 팀장)

이광수(정림종합사회복지관 팀장)

## 발 간 사

수많은 복지 사업 중 복지 현장을 반영한 연구가 수행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연구수행에 대한 수요가 발생함에도 사회복지 사업과 연구는 분리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에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러한 복지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자 지난 2020년 4월부터 대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사회복지 민·관·학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형 연구 지원사업(대전 지역 복지 아카데미)를 처음 실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연구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돌봄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최근의 돌봄 이슈는 아동을 비롯한 노인, 장애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의 최소화하고, 사각지대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이번 참여형 연구 지원사업(대전 지역복지 아카데미)에서도 주민력을 기초로 하는 마을돌봄 활성화와 2020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노인 커뮤니티케어 식품영양 서비스 개발을 통한 노인 영양서비스 체계화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갖는 인권인식과 인권교육 실태에 대해 제조명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주최한 2020년 참여형 연구 지원사업의 사회복지 현장 연구는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여름철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 작업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현장 연구팀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생생한 복지현장의 연구로 자리매김하며 대전시 복지현장에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대전 시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개발과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연구 수요에 발맞춰 앞으로도 각각의 주체가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전시의 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0년 12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유 미

# 목 차

<b>제1장 서론</b> .....	<b>3</b>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3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	5
제3절 연구 설계 및 방법 .....	6
<b>제2장 마을돌봄과 관련한 선행연구</b> .....	<b>11</b>
제1절 지역공동체와 마을돌봄 .....	11
제2절 마을기반의 돌봄공동체를 통한 돌봄 사례 .....	16
1.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마을돌봄 .....	16
2. 한빛마을센터 마을 돌봄공동체 .....	19
3. 마을도서관을 활용한 마을돌봄 .....	20
<b>제3장 연구방법</b> .....	<b>27</b>
제1절 사례연구 대상마을의 선정사유와 근거 : 서구 정림동 .....	27
1.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 관점에서 살펴본 정림동의 특징과 내용 .....	28
제2절 정림동 마을주민의 돌봄욕구 분석 .....	31
1. 정림동 지역주민의 마을인식 .....	31
2. 정림동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포괄적 돌봄욕구 .....	35
3. 정림동 마을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	37
제3절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	41
1. 초점집단면접조사 개요 및 주요내용 .....	41
2. 초점집단면접조사 내용 .....	44
<b>제4장 연구결과</b> .....	<b>47</b>
제1절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의 원동력 .....	49
1. 마을에 대한 강한 애착과 자긍심 .....	49

2. 마을의 지리적·환경적 특성 .....	50
3. 높은 공동체 정신과 주민의식 수준 .....	54
4. 마을활동/주민참여를 지원·촉진하는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	58
제2절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의 지속·활성화 요인 .....	61
1. 교육과 훈련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	61
2. 주요 주민 및 단체에 대한 의존성 감소와 신규 참여주민 발굴 .....	63
3. 주민욕구를 반영한 활동지원과 자발성 강화 .....	66
4. 소통과 동기부여 .....	67
5.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	70
제3절 마을돌봄 참여 및 활성화 요인 .....	71
1. 마을 내 돌봄 플랫폼 기능 구축 .....	71
2. 새로운 돌봄체계의 변화에 대한 수용과 인식전환 .....	77
3. 동기부여와 피드백 제공 .....	79
4. 돌봄활성화를 위한 지원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	81
<b>제5장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 마을돌봄 활성화 방안 .....</b>	<b>85</b>
1. 온·오프라인 형태의 “듀얼(Dual)돌봄 플랫폼” 구축 .....	85
2. 주민의 욕구와 신호를 반영한 마을활동 참여기회 부여 .....	88
3.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	89
4. 마을돌봄에 관한 지역 역량 파악 .....	90
5. 마을돌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 .....	91
6. 마을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 .....	92
7. 주민 참여형 마을돌봄 아이템 개발과 마을일자리 창출 .....	93
참고문헌 .....	97
[부 록 1] 연구진 회의 및 주요 추진 흐름 : 회의록(1차~11차) .....	99
[부 록 2] FGI 실시 : 과정 및 결과보고서, 녹취록(1차~4차) .....	123

## 표/그림 차례

<표 1- 1> 연구설계 및 방법 .....	7
<표 2- 1> 돌봄공동체 사업 지역 현황 .....	15
<표 2- 2> 한빛마을센터의 돌봄공동체 활동 개요 .....	19
<표 2- 3> 마을도서관을 활용한 마을돌봄 활동 개요 .....	21
<표 3- 1> 정림동 주민들의 마을참여 활동 현황 .....	30
<표 3- 2> 정림동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 .....	32
<표 3- 3> 정림동 지역주민의 이웃관계 만족도 .....	32
<표 3- 4> 정림동 지역 자랑거리 .....	33
<표 3- 5> 정림동 지역주민이 경험하는 개인의 어려움과 이슈 .....	34
<표 3- 6> 정림동 지역주민의 포괄적 돌봄욕구 .....	37
<표 3- 7> 정림동 마을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돌봄영역) .....	38
<표 3- 8> 정림동 마을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안전영역) .....	39
<표 3- 9> 정림동 마을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교육영역) .....	40
<표 3-10> 정림동 마을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문화영역) .....	40
<표 3-11> 초점집단면접조사 일정 및 참여집단 특성 .....	42
<표 3-12> 초점집단면접조사 대상 .....	42
<표 3-13> 초점집단면접조사 질문내용 .....	44
<표 4- 1> 초점집단면접 도출 개념 .....	47
[그림 3-1] 정림동 마을복지계획 추진전략 및 비전문 .....	29
[그림 5-1] 온·오프라인 형태의 “듀얼(Dual) 돌봄 플랫폼” 구축 .....	85
[그림 5-2] 강북구 마을교육돌봄 자원 지도 .....	87
[그림 5-3] 온라인 돌봄 플랫폼(성북구 사례) .....	87

# 제1장

---

## 서론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최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마을 만들기” 또는 “마을공동체”와 같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해당지역의 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마을의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김근혜·유은기 2018). 해당지역의 이슈와 문제는 결국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다(하현상 외 2017). 따라서 이들이 마을의 주요 이슈와 공동문제를 발굴·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이고 방관자적인 입장이 아닌 핵심주체로써 참여하는 것은 지역과 주민의 자생력(自生力)을 높이고 공동체 정신과 주민 의식을 함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이 가운데 아동을 비롯하여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돌봄문제는 지역주민의 삶에서 피부로 와 닿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복지욕구이다. 이러한 돌봄문제는 비단 취약계층 뿐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반주민 역시 맞벌이 가정의 증가에 따른 육아 및 아동의 돌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긴급상황으로 인해 돌봄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코로나19) 팬데믹 쇼크로 인해 우리 지역사회 안에는 돌봄과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와 주민들이 새롭게 늘어나고 상황이다.
  
- 이처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중심의 정책적 개입과 민간시장 중심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사회 주민이 인지하는 돌봄 욕구는 정부중심의 공식적인

돌봄이나 시장중심의 돌봄체계로는 여전히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김찬동, 2012). 국가중심의 돌봄서비스는 다소 획일적이고 시혜적인 방식이어서 개별적인 주민들이 갖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또한 민간 중심의 시장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는 돈으로 교환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접근성에 장애가 따른다. 또한 얼굴 없는 거래로 인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와 안도감을 충분히 갖기 어렵다(장수정, 2010).

□ 이러한 상황에서 지리적·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돌봄은 시장중심의 돌봄의 상품화가 갖는 폐단을 해소하고 국가나 공공기관 서비스에서 찾기 어려운 질적인 만족감을 제공해준다. 또한 누구나 도움의 주체가 되기도 하며 대상이 되는 경험을 통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함양할 수 있으며 주민간의 친밀한 네트워크나 지지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높은 행복감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최희경, 2009).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은 돌봄의 주체가 기존의 정부와 민간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돌봄으로 삼원화(三元化) 되어야 한다는 점을 오래전부터 강조하고 있다(유해미·김문정, 2013). 공동체 정신에 입각하고 주민들의 연대와 협력에 기반 한 마을돌봄공동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돌봄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지할 점은 주민은 물론 해당 마을에서 태동하고 오랫동안 성장해 온 각종 마을단체(자생단체)는 부족하고 미비한 마을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사회경제적 자원(social-economic resources)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정림동을 중심으로 “마을돌봄”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돌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관(官)이나 복지기관에 의해 짜여진 돌봄체계에 주민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마을주민의 적

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기획을 통해 마을돌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돌봄의 문제가 비단 가족이나 정부만이 담당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지역사회가 책임성을 갖고 함께 해야 할 일이라는 “돌봄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워주고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나아가 돌봄이 필요한 곳이면 공동체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돌봄 친화적인 분위기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한다.

###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주민중심의 마을돌봄은 가족은 물론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마을의 건강성을 증진하며, 나아가 가족 친화적 지역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마을기반 돌봄공동체는 가족 정책의 중요한 기반이며,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가족생태학적 고리이다(진미정·노신애·김아영, 2019).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첫째는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의 “원동력”을 규명하는 것이다. 마을돌봄은 마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활동과 주민참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가능케 하고 이끄는 힘의 원동력과 원천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마을돌봄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내고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하면 마을돌봄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까?” 라는 문제의식 하에, 선행단계라고 할 수 있는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 동기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비교적 주민주도의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가 활발한 특정마을을 연구사례로 선정하여 이러한 힘의 원천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둘째는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를 유지해나가고 지속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첫 번째 연구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마을활동과 주민참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속성(continuity)이다. 주민들의 관심과 수요, 필요에 따라 마을 안에서는 크고 작은 다양한 활동이 새롭게 생겨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양해진다. 마을돌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마을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요인과 긍정요인이 무엇인지를 주민들 관점과 눈높이에서 심도 있게 규명하고 이를 마을돌봄과 연결 짓는 노력이 필요하다.
- 셋째, 주민참여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마을돌봄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마을돌봄에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요인은 무엇이며,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강화하고 활성화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 제3절 연구 설계 및 방법

- 본 연구의 설계는 다음과 같다<표 1-1>.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공동체를 통한 마을돌봄의 중요성과 의의,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문헌 및 선행연구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 둘째, 본 연구에서 사례마을로 선정한 정림동 지역의 돌봄과 관련한 주민 욕구와 관련한 기존 현장 연구 자료 재분석을 통해 마을돌봄의 우선순위가 누구이며 어떤 돌봄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돌봄과 관련한 기본적인 제반 정보를 파악하였다.

- 셋째,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의 원동력 및 활성화 요인을 탐색하고 마을돌봄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연구는 탐색적 성격이 강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질적조사 방법론 중 사례연구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연구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마을돌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얻고자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group interviews)를 설계하였고 연구설계 및 질문지 구성과 진행과정부터 질적연구 전문가를 비롯한 현장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자문위원 및 인터뷰어로 참여하여 연구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 마지막으로 실천현장의 복지전문가와 함께 문헌연구 사례와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group interviews) 결과를 1차 분석하고 질적연구 전문가를 비롯한 학계 전문위원들과 종합적으로 검토 및 보완하였으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 1-1> 연구설계 및 방법

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공동체와 마을돌봄의 관계와 필요성</li> <li>•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커뮤니티케어)과 마을돌봄의 중요성과 역할</li> </ul>
정림동 마을복지계획 욕구조사(재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림동 지역주민의 마을인식</li> <li>• 정림동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포괄적 돌봄욕구</li> <li>• 정림동 마을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li> </ul>
FGI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방식(인터뷰어 선정 등), 질문지, 초대집단 구성 및 설계</li> </ul>
마을주민 F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주민 대상 초점집단면접(FGI)실시</li> <li>•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 마을돌봄 현안과 쟁점에 관련한 의견 도출 및 질적 분석</li> </ul>
자문회의 F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 유관기관의 복지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li> <li>•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통한 마을활동, 주민참여, 마을돌봄 활성화 방안 수립</li> </ul>

\* 상기의 주요 연구과정외에도 총 10명의 연구진 회의를 주요단계마다 실시하였다<별첨 1>.

## 제 2 장

### 마을돌봄과 관련한 선행연구



## 제2장 마을돌봄과 관련한 선행연구

### 제1절 지역공동체와 마을돌봄

-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제도적인 돌봄의 공식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급속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과 돌봄과 관련한 사회자원의 불충분성 등으로 인해 많은 국가가 지속가능한 돌봄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일찍이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시설중심의 노인돌봄체계의 한계와 더불어 독거 노인가구의 증가, 가족기능 약화에 따른 비공식 돌봄 체계 붕괴, 노인 빈곤 가구 및 노인 자살률 증가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의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임정기·홍세영, 2019).
-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돌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커뮤니티케어에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석재은, 2018). 커뮤니티케어(communitary care) 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이다(보건복지부, 2018).
- 사실 커뮤니티케어는 기존의 우리나라가 펼쳐오던 돌봄정책과 그 궤(軌)를 달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및 정상화(normalization)의 개념에 입각한 지역사회 돌봄은 그 동안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물론 실천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이루고자 했던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이다.

- 중요한 점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아동에 이르기까지 이들에 대한 돌봄의 장소가 기존의 시설복지 중심에서 재가와 지역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근간이 되는 이념이 바로 ‘지역사회계속거주’ (Aging in place: 이하 AIP)이다. AIP는 노인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살아온 자신의 지역이나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늙어간다는 의미로(김미희, 2017) 최근 고령화를 경험한 국가들 사이에 관심 있는 정책적 사안으로 되고 있다(임정기·홍세영, 2019). 물론 AIP 이념이 노인에게만 국한 된 것은 아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모든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이나 치료를 제공받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 이러한 지역기반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요양 및 돌봄의 문제 뿐 만 아니라 노인 삶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여가, 교육, 문화, 사회활동과 같이 상당히 포괄적인 욕구와 이슈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중앙 및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은 물론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영역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그 효과를 거두기가 사실상 어렵다.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은 지역사회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돌봄자원과 역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집하여 운용(運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전통적인 돌봄의 핵심주체였던 민·관의 협력과 연계뿐만 아니라 민·관·학 관점에서 지역대학의 역할과 참여에 대한 논의까지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임진섭 외, 2017; 임정기·홍세영, 2019). 즉, 지역대학이 지닌 전문성과 자원,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학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도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임진섭 외, 2019)

- 이처럼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지역사회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의 치밀한 연계와 협력이 커뮤니티케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역사회와 주민은 부족한 제도권의 돌봄체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훌륭한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자원의 효율적인 협력과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나 지자체가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별도의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여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공동체 정신에 기반 한 마을돌봄을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분야로 육성·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것이다.
-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아동돌봄을 중심으로 가족품앗이를 비롯하여 공동육아, 마을학교 등과 같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동체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진미정·노신애·김아영, 2018). 지역기반의 마을돌봄 공동체는 ‘내 아이를 우리 아이로 함께 키우고자 하는 공동체적 육아방식’을 철학적 바탕으로 하며(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014), 마을이라는 지리적 범위로 같은 공간적 범위 내에서 공동체 문화와 연대를 통해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출발하였다(진미정, 2018).
- 물론 돌봄공동체의 대상은 아동을 비롯하여, 노인, 장애인,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일반주민들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다양하다. 그러나 그 동안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돌봄의 대상은 주로 아동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는 육아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육아 돌봄이 개별가족 위주의 고립된 육아로 인한 양육 부담을 해소 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마을돌봄공동체를 통해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돌봄방법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

1) 특히, 대학은 해당 지역에서 중추적인 교육 및 연구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협소한 의미의 돌봄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여가, 문화, 사회활동과 같은 다양한 고령자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임진섭 외, 2017)

□ 최근 마을공동체 정신에 입각하여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반 한 아동 돌봄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20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이다. 2020년인 올해에 정부는 지역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돌봄 친화적 지역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2020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은 학교나 시설 위주로 이루어지는 공적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 돌봄을 책임지는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여성가족부, 2020).

□ 마을기반의 돌봄공동체 사업은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사업형태로 진행돼 왔으나<sup>2)</sup> 가장 최근인 「2020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에 따르면 크게 품앗이형, 마을공동체형, 주민경제조직형 등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표 2-1>. 각각의 사업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품앗이형은 지역의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기반으로 한 돌봄 활동 부모 자조 모임형태의 돌봄공동체 사업이다<sup>3)</sup>. 마을공동체형은 부모 및 지역 주민이 마을의 물리적인 커뮤니티 공간을 기반으로 돌봄 활동과 돌봄을 매개로 한 지역 사회 활동을 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조직형은 돌봄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 협동 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등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을 의미한다.

2) 돌봄공동체 모델을 추진 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주민주도형과 행정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주민주도형은 이웃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던 품앗이육아 뿐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의 공동육아, 부모협동조합어린이집과 대안학교 등을 포함한다.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는 우리나라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실망감 등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다(차성란, 2010). 행정주도형 돌봄공동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확산되었는데 행정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형, 지자체 주도형, 교육청 주도형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 주도형은 여성가족부의 가족품앗이과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교육부의 온종일돌봄사업 등이 있다. 지자체 주도형은 서울시의 2012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과 2015년 공동육아활성화지원사업, 세종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공동육아지원 등이 있으며, 교육청 주도형은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등이 있다(진미정·노신애·김아영, 2018).

3) 이외에도 경기도 역시 올해 2020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로 10명 이상의 주민모임에 기반한 아동돌봄공동체를 20개소를 선정하여 돌봄공간 시설공사비와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경기도 2020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공고)

□ 본 사업에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 맞춤형 돌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으로 여성가족부는 설명한다.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돌봄활동비 지원과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 연계, 교육 등의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sup>4)</sup>. 이러한 돌봄공동체는 지역별 틈새 돌봄시간에 따라 주중, 주말에 자유롭게 운영되면 공동 육아나눔터나 마을 카페, 마을농장, 작은 도서관, 경로당 등의 돌봄장소를 통해 돌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여성가족부, 2020).

<표 2-1> 돌봄공동체 사업 지역 현황

구분	내용
품앗이형 <sup>5)</sup>	지역의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돌봄 활동을 하는 부모 자조 모임 및 품앗이 그룹 등
마을공동체형	부모 및 지역 주민이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을 기반으로 돌봄 활동과 돌봄을 매개로 한 지역 사회 활동을 하는 공동체 등  * 북카페, 마을카페, 마을밥상, 마을농장, 쉼터, 녹색가게 등
주민 경제조직형	돌봄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등

출처: 여성가족부(2020). “여가부, 주민 돌봄 공동체 만들기 본격 추진” 보도자료.

□ 이러한 마을주민 기반의 돌봄공동체 활동은 지역사회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자녀돌봄 지원을 다양화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지역 문화를 조성하고 주민 자치적인 돌봄 나눔 공동체로의 발전을 이뤄 내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유해미·김문정, 2013).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성과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시기상조이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에서 함께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그 의미

4) 선정된 지역 서울(구로구·마포구), 강원(원주시), 대전, 세종, 전북(전주시·완주시), 광주(동구, 서구, 남구) 등 총 10개 시·군·구가 선정되었고, 품앗이형 4개, 마을공동체형 4개, 주민경제조직형 2개 등 유형별로 구성되었다(여성가족부, 2020).

5)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가족품앗이와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은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를 연계” 하는 목적을 가진다(여성가족부, 2018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안내).

를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의 시행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돌봄 공동체 모형 발굴에 주력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돌봄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마련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숲속 작은 도서관, 대안학교 성미산 학교, 성미산 차병원협동조합(차병원-자동차 정비소), 동네부엌(유기농 반찬가게), 한뫼두레, 되살림가게, 작은나무, 마포FM(소출력 지역 공동체 라디오), 마포청년회, 장애인자활센터, 마포희망나눔, 돌봄두레(돌봄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모임), (사)사람과 마을 등이 마을 만들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제2절 마을기반의 돌봄공동체를 통한 돌봄 사례

### 1.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마을돌봄

- 국내 마을공동체를 통해 돌봄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성미산 마을’이다<sup>6)</sup>. 성산동에 있는 작은 산인 성미산 자락에 터를 잡고 있다. 이러한 성미산 마을은 특정된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성산동, 망원동, 연남동, 서교동, 합정동, 동교동 일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2001년 성미산 지키기 운동을 계기로 ‘성미산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 성미산 마을 공동체 사례는 아이들 교육 목적의 마을 공동체의 성격으로 1994년에 시작된 오래된 사례로서 참여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협동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주민주도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사례의 주요 시사점은 지역 공동체가 협동조합 방식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하여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 현재 이 마을에는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이 4곳, 방과 후 어린이집이 2곳, 마포두레 생활협동조합, 마을 학교 꿈터에 뿌리를 둔 택견장, 춤의문,

6) 돌봄공동체인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내용은 유해미·김문정이 2013년 수행한 지역사회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의 연구내용에서 발췌하였다.

### 1)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기존의 보육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협동조합의 형태로 자녀양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형성된 모델이며 성미산마을의 ‘우리어린이집’의 경우 94년도에 개원한 최초의 공동육아 협동조합 중 하나이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육아의 문제를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형태로 풀어내는 집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존의 보육시설과 달리 육아를 모두 어린이집 교사에게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며 이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그리고 학부모들 사이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요구한다(사람과 마을, 2012)

### 2) 대안학교 성미산 학교

- 성미산 학교는 공동육아 이후 대안교육을 고민하던 성미산마을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2004년에 설립된 대안학교이다. 성미산 학교가 없었던 시기에 공동육아를 통해 보육한 아동들이 이후 일반적인 공교육 학교로 진학하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 대안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공동육아의 교육이념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존의 대안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경우 성미산마을을 떠나게 되어 마을형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성미산 지키기 운동 이후 주민들의 목적의식적인 ‘마을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미산마을 내부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진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성미산 지키기 운동이

후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게 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의 마을학교로 성미산 학교가 설립되었고, 성미산 학교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길러낸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성미산마을에서 살면서 대안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사람과 마을, 2012)

### 3) 마을배움터

□ 마을배움터는 2004년 겨울학기부터 시작했으며, 별도 기관이 아니고 방과 후 프로그램이다. 성서초등학교 등 공립 초등학교들과 대안학교인 성미산 학교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학기별로 운영되며, 프로그램은 대략 25개 정도가 개설된다. 프로그램은 성미산 학교를 비롯해 마을 이곳저곳에서 진행된다(사람과 마을, 2012)

### 4) 마포두레생협

□ 성미산마을에 위치한 마포두레생협은 2001년에 창립된 마을생협이다. 성미산마을에서 공동육아를 기점으로 지역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경로로서는 마포두레 생협이 성미산 학교보다 시기적으로 더 앞선다고 볼 수 있다. 즉, 먹거리 생협을 통해 육아에 대한 관심을 ‘먹거리’ 를 중심으로 지역으로 확대하여 ‘생활’ 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포두레생협을 설립하게 된 계기 역시 마을 내 관계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는 성미산 학교와 유사하다. 이렇게 볼 때, 성미산 학교와 마포두레생협 모두 공동육아 어린이집으로부터 출발한 마을 내 관계가 좀 더 다양한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한 마을의 지속이라는 목적을 갖고 추동 된 활동들이라고 볼 수 있다(사람과 마을, 2012)

## 2. 한빛마을센터 마을돌봄공동체

□ 서울시 은평구 소재의 공동육아 기관인 ‘한빛마을센터’ 는 마을주민의 개인 사옥에서 마을돌봄 활동을 펼쳐오다 201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사업에 따라 2012년 9월 개관하였다. 이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2-2>.

<표 2-2> 한빛마을센터의 돌봄 공동체 활동 개요

구분	질문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시기: 2012년 9월 개관 ※ 2012년 9월 서울시 마을공동체 돌봄 사업에 선정됨</li> <li>■ 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li> <li>■ 운영 방식: 서울시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사업 지원금과 자부담금으로 운영</li> </ul>
운영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에서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내 아이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이들도 함께 육아하는</li> <li>■ 품앗이 엄마들의 사랑방, 아이들의 실내놀이터와 체험장, 작은 도서관, 급할 때 믿고 맡기는 돌봄 장소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함</li> </ul>
주요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보미: 월~금요일, 맞벌이 부부 영유아들의 일시 돌봄과 어린이집, 유치원</li> <li>■ 방과 후 돌봄을 수행</li> <li>■ 방과 후 교실: 월~금요일 동안 초등 저학년과 유치원 방과 후 교실 운영</li> <li>■ 합창단: 엄마와 자녀가 함께하는 합창단</li> <li>■ 현장학습: 자연에서 배우고 직접 체험</li> <li>■ 체험 파티: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연대 체험</li> </ul>

□ 센터의 설립·운영자는 초기에 자신의 집에서 지역 내 돌봄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나 초등 방과 후 아동의 경우 일시 돌봄이 필요하고, 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 어머니들이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신의 집에서 지역 내 아동들을 돌봐주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즉, 일시 돌봄이 필요한 지역 내 아동에 대한 거점 기능을 수행할 기관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유해미·김문정, 2018)

□ 한빛마을센터는 지역 내 범죄율이 높아 자녀의 방과 후 안전한 돌봄과 인성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다문화 가정 부모들의 정착을 위한 교육과 유치원

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 장소에 대한 지역 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 이러한 한빛마을센터는 독립 센터형으로써 별도의 독립기관을 통해 일시 돌봄과 개별 육아폼앗이, 그리고 센터 회원 전체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동시에 운영된다. 지역 내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 중심의 일시 돌봄을 제공하고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이용 부모들의 다양한 폼앗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sup>7)</sup>

□ 센터에서 이뤄지는 주요 돌봄활동은 ①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일시 돌봄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아 방과 후 돌봄 등 영유아들의 돌봄 거점 기능, ② 월요일부터 금요일 초등 저학년과 유치원 방과 후 교실로 숙제 봐주기, 보드 게임, 동화 구연, 미술 활동, 역할 놀이 등, ③ 엄마와 함께 하는 합창단: 엄마와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기적인 모임과 발표회, ④ 현장학습을 통해 자연에서 배우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 ⑤ 가족캠프 등을 통해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며 나눔의 공동체 실현 등의 돌봄 및 가족기능 강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3. 마을도서관을 활용한 마을돌봄

□ 인천시 연수구 소재의 ‘짱뚱이 도서관’은 민간에 의해 2003년 설립되었으며, 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돌봄 공간으로 기능함으로써 지역 내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폼앗이 육아의 형성 및 유지를 위한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sup>8)</sup> <표 2-3>.

7) 돌봄공동체인 한빛마을센터의 돌봄공동체의 내용은 유해미·김문정이 2013년 수행한 지역사회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의 연구내용에서 발췌하였다.

8) 돌봄공동체인 짱뚱이 도서관의 내용은 유해미·김문정이 2013년 수행한 지역사회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의 연구내용에서 발췌하였다.

<표 2-3> 마을도서관을 활용한 마을돌봄 활동 개요

구분	질문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시기: 2003년 4월 돌봄과 배움의 공동체 ‘늘푸른교실’ 부설로 시작</li> <li>■ 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li> <li>■ 운영시간: 월~금 10~17시, 둘째 넷째 토요일 10~14시 ※ 자원활동가 수에 따라 연장하기도 함</li> <li>■ 운영 방식: 비영리기관으로 여러 사람들의 자원 활동과 후원으로 운영됨</li> <li>■ 1,000권 이상의 장서, 6석 이상의 열람석, 33㎡이상의 면적에 해당되는 작은 도서관임</li> </ul>
운영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은 아동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작은 도서관의 역할을 함</li> <li>■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향한 지역 공동체 활동을 함</li> <li>■ 다문화 가정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활동을 함 -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 문화 사업을</li> <li>■ 통해 지역공동체 되살림에 이바지함</li> </ul>
주요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책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함</li> <li>■ 아동 인권 신장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사업을 기획하고 실천함</li> <li>■ 도서관 운영을 위한 회원과 후원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함</li> <li>■ 기타 도서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을 펼침</li> </ul>

□ 짱뚱이 도서관 운영 규정에 의하면, 도서관은 아동을 비롯한 지역 주민이 이용하도록 설립되었으며,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다문화가정 등을 포괄하는 지역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아동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책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각종 교육 사업을 기획하여 실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서관의 전신은 1990년대 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역 내 공부방으로, IMF 이후 실직자나 맞벌이 가정 아동 대상의 지역 내 보육을 주된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당시 이 지역에는 복지관 등 복지시설이 이외 지역들에 비해 매우 미흡하여 지역 내 보육 기능을 수행할 기관이 없는 실정이어서 각종 후원과 봉사 활동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후원 내용 중 도서 기증이 많아 이를 지역 내 다른 아동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으로 전환하여 전 지역 주민에 개방하게 된 것이다.

□ 어린이 도서관이 설립됨에 따라 지역 내 아동들이 부모들과 함께 손쉽게 이용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이용 부모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이용 부모들을 중심으로 육아 품앗이가 자연스럽게 형성·유지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 이처럼 지역 내 도서관은 그 성격상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자연스럽게 접근하기에 용이하며,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부모 대상 또는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은 부모들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실질적인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품앗이 육아로 발전하였다. 특히, 돌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싶은 데 마땅한 공간이 없고, 문화센터 등에서는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 부모들이 각자 자신 있는 분야를 맡아 품앗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도서관 프로그램 이용 부모들로 형성되는 품앗이는 지속성을 갖기 어려우며,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도서관의 이용 빈도도 줄어들게 되어 지역 내 공동육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도서관을 거점으로 공동육아가 지속적으로 생성,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육아 경험을 지닌 이전 활동가들로부터 노하우가 전수되고 필요시 이들이 새롭게 형성된 품앗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가로서 역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됨에 따라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자격증 과정을 이수한 부모들은 도서관내 품앗이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내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 방과 후 교사로서 활동하는 등 품앗이 육아의 역량을 강화해 간다. 이러 한 시도는 도서관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공동육아 경험이 단지 자신의 자녀에 대한 육아뿐만 아니라 지역 내 돌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효과라고 볼 수 있다.

□ 한편 이들 품앗이 활동의 주된 효과로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들 수 있는데, 이외에도 고립된 육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해소가 언급된다. 육아품앗이의 형성 및 유지를 위해서는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편안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프로그램을 같이 하다보면 유대를 지속할 수 있으므로 도서관 내에서 유용한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것이 활성화의 주요 방안으로 제기된다. 자녀들에게는 놀이 위주의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기관 이용 시, 자유 활동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지역 내 또래들과의 유대를 형성하기 어려우므로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놀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효과에 부모들이 품앗이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 제3장

---

## 연구방법



## 제3장 연구방법

### 제1절 사례연구 대상마을의 선정사유와 근거: 서구 정림동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진행된다. 첫째,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의 원동력을 규명” 하고, 둘째,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를 유지해나가고 지속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찾아내는 것” 이며 셋째는 “주민참여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마을돌봄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 이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정림동을 연구대상 사례마을로 선정하여 이러한 3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는 심층적인 사례연구(FGI)를 진행하였다. 주지할 점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사례마을은 마을돌봄의 모범적인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동체성 측면에서는 다른 마을과 구별된다. 마을돌봄 활성화를 위해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 정신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런 공동체 활동을 가능케 하는 힘의 원동력과 지속요인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마을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선결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선결과제로 판단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마을공동체” 측면에서 모범적이고 다양한 마을활동과 주민참여가 활발한 정림동을 사례마을로 선정하여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 정림동을 사례마을로 선정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 관점에서 살펴본 정림동의 특징과 내용

- 2019년 정림동에서는 마을복지계획<sup>9)</sup>을 수립했다. 2019 정림동 마을복지계획은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복지계획단이 주도해 수립한 전국 최초의 마을복지계획이다. 서구정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정림동 행정복지센터, 정림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협력했다. 서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년차별 계획의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동 보장계획 수립 및 활동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 이 계획은 정림동에서 향후 3년간 추진할 마을복지 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담겨 있다. 사각지대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돌봄사업, 마을기금 조성, 마을돌봄 체계연구 등 공동체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정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참여했으며, 당사자인 주민의 목소리를 찾아내 이를 지역복지사업 속에 녹여 냈다.
- 본 계획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발간한 2020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sup>10)</sup>에서 제시한 주민력 강화 지원을 위한 전략으로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과 실행과 관련한 대표 사례로 수록되어 소개되어 있다. (재)대전복지재단에서 발간한 대전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연구에서는 지역공동체와 마을돌봄의 결합 사례<sup>11)</sup>로 주목받고 있다.
- 이처럼 2019 정림동 마을복지계획은 마을 주민과 지역복지 주체들의 역량이 결집되었기에 실현 가능했으며, 공동체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9) 마을복지계획: 이웃 돌봄 등 동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소규모 의제에 대하여 지역자원 및 육구조사, 세부추진계획, 실행방법 등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수립하는 복지계획  
 10) 2020,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2020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p87-89.  
 11) 김지영 외(2019), 대전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연구, 대전복지재단, p.267~269

[그림 3-1] 정림동 마을복지계획 추진전략 및 비전문(3개년 마을복지계획 : 2020년 ~ 2022년)



- 위와 같은 성과는 정림동 주민들의 참여에 기반하고 있다. 주민의 주도과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 경험들이 축적되어 주민의 역량과 마을력(力)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 정림동은 그동안 주민의 힘으로 마을을 변화시켜 왔다. 정림동의 대표 축제 (벚꽃축제, 수밋들축제)는 ‘정림사랑자생단체연합’ 과 ‘수밋들축제 100인의 주민준비위원회’ 를 구성해 주민의 직접 참여와 민-관 협력, 기관과 단체의 연대 활동으로 개최된다. 정림동에서 추진된 많은 사업들이 민-관, 민-민의

협력과 연대로 추진되었다. 특정한 기관 또는 주체의 힘만으로 마을의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복지관을 비롯한 민간 기관들이 주민들의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강화하며 지원체제로 작동하였기에 가능한 성과다.

<표 3-1> 정림동 주민들의 마을참여 활동 현황(최근 5년, 대표사례 중심)

연번	구분	추진기간(연도)	사업명	내용	주 참여기관
1	정림동 마을복지 계획	2020년~2022년	정림동 마을복지계획	동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소규모 의제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참여·수립한 37개년(2020~2022) 마을복지계획	마을복지계획단 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림동행정복지센터 정림종합사회복지관
2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1년~2023년(예정)	수릿들의 어울림, 함께 그리는 숲	어울림센터 조성, 상생협력상가 및 스마트 시티구축 등	정림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대전서구
3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2020년	공동체로 공생하는 정림	주민교육지원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 운영, 마을미디어 교육지원사업 등	정림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대전서구
4	수릿들축제	2006년~현재	수릿들축제	기념식, 효나눔식사, 재능나눔 문화공연 및 체험부스 운영, 프리마켓, 마을영화제 등	수릿들축제 100인의 주민준비위원회 정림종합사회복지관 정림동행정복지센터
5	벚꽃축제	2011년~현재	정림동 벚꽃축제	걷기대회, 기념식, 주민참여 장기자랑 및 먹거리 부스 운영 등	정림사랑자생단체연합회 정림동행정복지센터 정림종합사회복지관
6	수릿들 마을음악회	2016년~현재	수릿들 마을음악회	음악회, 체험부스, 마을영화제 등	공동체조직(수릿들어울벗) 지역교회(산성교회) 정림종합사회복지관 정림동행정복지센터
7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2017년	수소토리	공동체 교육, 정림동 마을 둘러보기 활동	공동체조직(수릿들어울벗) 정림종합사회복지관
8	안심마을 만들기	2017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정림동 내 무궁화공원 조성사업(환경정비) 안내표지 교체, 안전 디딤돌 및 계단난간 설치, 벽화정비 등 주민화합 행사개최 등	정림동주민협의체 정림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사회복지자원센터
9	안심마을 만들기	2016년	별 헤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정림동 내 무궁화공원 조성사업(환경정비) 조명·조형물 설치, 무인도서함 설치, 주민 행사 개최(무궁화공원 환경개선 홍보) 등	정림동주민협의체 정림동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사회복지자원센터

□ 이처럼 마을 안에서 예방적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 내 지지체계가 필요한데, 주민조직은 이러한 지지체계의 중요한 축이다. 마을돌봄을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도 당연히 확충되어야 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스스로를 돌보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필요하다. 특히 서로를 격려하고 일상생활을 함께 실천하는 이웃이 가장 큰 힘이 된다.

□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과 지역복지관 중심의 민·관협력이 활성화 되어 있고, 이웃 간의 관계와 공동체 의식,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정림동 지역이야말로 마을돌봄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추진하는 바이다.

## 제2절 정림동 마을주민의 돌봄욕구 분석

□ 본 절에서는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의 원동력과 활성화 방안 그리고 이를 통한 마을돌봄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연구사례 지역으로 설정한 정림동 지역의 특성과 돌봄욕구를 기존자료를 바탕으로 재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sup>12)</sup>.

### 1. 정림동 지역주민의 마을인식

□ 정림동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마을에 대한 인식정도는 전반적인 만족도, 이웃 관계에 대한 만족도, 마을의 자랑거리로 살펴봤다. 첫 번째로, 정림동 지역에

12) 본 자료는 2019년 정림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 2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재분석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2019년 정림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사람 꽃 정림동 마을을 그린다”에 담겨져 있다.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에서 평균 8점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우리 마을에 대해 비교적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응답률 역시 8점으로 23.9%(55명)로 나타났고, 9점이 21.3%(49명), 10점 만점이 20.8%(48명), 7점 16.1%(37명), 6점 8.7%(20명), 5점 5.7%(13명), 3점 1.7%(4명), 4점과 2점이 각각 0.9%(2명) 순이었다.

<표 3-2> 정림동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

(N=231, M=8.0, SD=1.721)

분류 (n=231)	← 살기 나쁜 곳이다 → 살기 좋은 곳이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지역사회 만족도	0	-	2	0.9	4	1.7	2	0.9	13	5.7	20	8.7	37	16.1	55	23.9	49	21.3	48	20.8

□ 두 번째로, 정림동 지역주민 간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10점 만점 기준에 평균 7.8점으로 이웃관계 역시 좋은 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응답률은 8점과 10점이 각각 23.0%(53명)으로 나타났고, 9점이 15.2%(35명), 7점 14.3%(33명), 5점 12.6%(29명), 6점 9.6%(22명), 4점 1.7%(4명), 3점 0.4%(3명) 순이었다.

<표 3-3> 정림동 지역주민의 이웃관계 만족도

(N=231, M=7.8, SD=1.760)

분류 (n=231)	← 나쁘다 → 좋다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이웃관계 만족도	0	-	0	-	3	0.4	4	1.7	29	12.6	22	9.6	33	14.3	53	23.0	35	15.2	53	23.0

□ 세 번째로, 정림동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키워드 질문으로 총 세 가지를 조사했다. 키워드 1은 산(쟁기봉, 장안봉)과 갑천, 벚꽃, 공기, 도농복합적인 자연환경에 대한 응답률이 절반에 가까운 49.0%(108명)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벚꽃축제와 수릿들축제를 비롯한 마을음악회 등의 마을축제를 자랑으로 생각하는 응답률이 17.0%(38명)로 나타났으며, 정림동 내 편의시설(갑천운동시설, 어린이도서관, 서구국민체육관,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9.0%(19명), 주거환경(쾌적, 조용, 안전, 깨끗)이 8.0%(18명), 저렴한 물가(집값, 근거리 시장) 6.0%(7명), 이웃관계(화합, 소통, 인심, 친절, 공동체 의식 등) 5.0%(12명), 교육 및 양육환경(유해업소가 없음) 3.0%(6명), 복지시설(정림종합사회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등) 2.0%(5명), 기타(마을복지계획단, 마을 일을 하는 사람들, 단군당집 등) 1.0%(3명) 순이었다.

<표 3-4> 정림동 지역 자랑거리

항목	키워드 1		키워드 2		키워드 3	
	N	%	N	%	N	%
주거환경 (쾌적, 조용, 안전, 깨끗함)	18	8.0	편의시설 등에 대한 의견 많음  (복지기관, 저렴한 상권, 병원,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금융기관 등)		마을문화와 (축제, 음악회)  동네분위기 (아늑함, 정다움, 따뜻함)  및  이웃관계에 대한 의견 많음 (화합, 소박함, 소통, 공동체 의식 등)	
자연환경 (산-쟁기봉, 장안봉, 갑천, 도농, 벚꽃, 공기)	108	49.0				
이웃관계 (화합, 소통, 인심, 친절, 공동체 의식 등)	12	5.0				
교육 및 양육환경 (유해업소가 없음)	6	3.0				
교통편리	3	1.0				
마을축제 (수릿들 축제, 벚꽃축제, 음악회)	38	17.0				
저렴한 물가 (집값, 근거리 시장)	7	6.0				
편의시설 (갑천운동시설, 어린이도서관, 국민체육관,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19	9.0				
복지시설 (복지관, 주민센터 등)	5	2.0				
기타 (마을복지계획단, 마을 일을 하는 사람들, 단군당집 등)	3	1.0				
계	219	100.0				

□ 키워드 2에서는 키워드 1과 유사한 답변양상을 보이면서 정립동 내 위치한 다양한 복지유관기관과 저렴한 상권, 병원,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금융기관 등 편의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키워드 3에서는 마을 축제, 음악회 등과 관련한 마을 내 문화와 아늑함, 정다움, 따뜻함 등으로 묘사되는 동네 분위기 그리고 화합, 소박함, 소통, 공동체 의식 등의 키워드로 이웃관계 등을 자랑거리로 표현했다.

□ 다음으로 정립동 주민이 경험하는 생활상의 문제를 조사했으며 분석결과, 1순위로 정립동 주민 34.6%(71명)가 저(무)소득, 과다지출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경험하는 생활상의 문제이자 이슈라고 가장 높은 응답을 했고, 그 다음 어려움으로도 직업적인 어려움으로 소득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15.1%(31명)로 나타났다. 이후는 신체건강과 의료의 어려움과 문화여가의 어려움이 각각 12.2%(25명), 자녀양육 및 교육 8.8%(18명), 정신건강의 어려움 2.9%(6명), 가족관계의 어려움 2.4%(5명), 장애인 및 노인 등의 부양의 어려움과 기타 답변이 각각 0.5%(1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응답도 8.3%(17명)로 조사됐다.

<표 3-5> 정립동 지역주민이 경험하는 개인의 어려움과 이슈

구분	내용	1순위		2순위	
		n	%	n	%
경제적 어려움 : 소득상실, 지출과다	직업의 어려움: 실직, 재취업, 퇴직으로 인한 어려움 등	31	15.1	12	6.7
	경제적인 어려움: 저(무)소득, 과다 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 부채, 융자금 등	71	34.6	11	6.1
신체적 어려움 : 육체, 정신	신체건강/의료의 어려움: 노인, 환자의 건강 및 의료 문제, 비용부담, 가사일의 어려움 등	25	12.2	38	21.1
	정신건강의 어려움: 우울증, 의욕상실, 스트레스, 알콜중독, 성적 어려움 등	6	2.9	13	7.2
부양 어려움	부양의 어려움: 장애인 부양(보호)문제(직업포기, 스트레스), 노인 부양 등	3	1.5	11	6.1
사회적 어려움	자녀양육의 어려움: 자녀의 보육보호, 방과 후 보호, 학교교육, 사교육, 진로진학의 문제 등	18	8.8	13	7.2

가족관계의 어려움: 배우자 및 가정 내 불화단절로 인한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	5	2.4	11	6.1
문화여가의 어려움: 문화생활의 부족, 문화 프로그램이나 시설의 부족 등	25	12.2	36	20.0
여성차별의 어려움: 여성으로 성차별, 양육/가사의 부담, 피부나 외모 차별, 문화 및 언어 차별 등	0	-	3	1.7
외국인(외국출신)으로서 한국적응의 어려움: 언어배우기, 한국국적취득, 비자갱신 등 이와 관련된 기간 및 비용 문제	1	0.5	0	-
기타	3	1.5	5	2.8
특별한 문제없다	17	8.3	27	15.0
<b>계</b>	205	100.5	180	100.0

□ 2순위에서는 신체건강 및 의료의 어려움이 21.1%(3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화여가의 어려움이 20.0%(36명), 정신건강의 어려움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7.2%(13명), 직업의 어려움이 6.7%(12명), 경제적 어려움, 부양의 어려움, 가족관계의 어려움이 각각 6.1%(11명), 기타 응답이 2.8%(5명), 여성차별의 어려움이 1.7%(3명) 순이었으며, 특별한 문제없다도 15.0%(27명)이었다. 이상에서 정립동 지역주민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체건강 및 의료의 어려움으로 기본적인 돌봄에 대한 생활상의 문제와 이슈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정립동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포괄적 돌봄욕구

□ 정립동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을 돌봄과 연결지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생활여건의 어려움 등을 파악해 포괄적인 돌봄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첫 번째로, 주민들은 우리 정립동 내에서 생활하는데 정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여건으로 주차장 부족을 40.4%(90명)로 가장 높게 꼽았으며 문화 및 복지시설 부족이 30.5%(68명)로 나타났다. 그 밖에 편의시설 부족 11.2%(25명), 가로환경 6.7%(15명), 기타 4.9%(11명), 육교 하부 및 산 주변 도로 3.6%(8명), 빈집 주변 2.7%(6명) 순이었다.

- 두 번째로, 정림동 내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은 공용주차장이 32.9%(73명)이었으며, 어린이 및 청소년 시설(놀이공간) 22.1%(49명), 도서관 등 문화복지 시설 20.7%(46명), 공원 등 휴식시설 9.9%(22명), 마을회관 또는 주민 모임방 6.8%(15명), 기타 4.1%(9명), 노인회관 3.6%(8명)로 나타났다.
- 세 번째로, 정림동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한 의견수렴에서는 마을 공용시설 확충에 대한 응답이 45.4%(9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환경 개선이 24.3%(53명), 마을경관 개선 13.3%(29명)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12.8%(28명), 기타 4.1%(9명) 순이었다.
- 네 번째로, 정림동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생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49.1%(109명)로 과반수에 가까운 응답률이 나왔고, 이어서 복지프로그램이 23.9%(53명), 창업지원 교육이 17.1%(38명), 육아 돌봄 지원이 8.6%(19명), 기타 1.4%(3명)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 특성화를 위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단군당집, 벚꽃 길 등 문화관광 테마에 대한 응답이 37.6%(83명), 지역 상권 특화가 25.3%(56명), 마을 경관 특성화가 22.2%(49명), 육아 및 고용지원 등 여성친화 테마가 11.8%(26명), 기타 3.2%(7명) 순이었다.

<표 3-6> 정림동 지역주민의 포괄적 돌봄욕구

구분	내용	n	%
정비가 가장 시급한 곳	가로환경	15	6.7
	편의시설 부족	25	11.2
	문화, 복지시설 부족	68	30.5
	주차장 부족	90	40.4
	육교 하부 및 산 주변 도로	8	3.6
	빈집 주변	6	2.7
	기타	11	4.9
계	223	100.0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	어린이 및 청소년 시설(놀이공간)	49	22.1
	공용주차장	73	32.9
	도서관 등 문화복지 시설	46	20.7
	마을회관 또는 주민 모임방	15	6.8
	노인 회관	8	3.6
	공원 등 휴식시설	22	9.9
	기타	9	4.1
계	222	100.0	
정림동의 활성화에 중요한 환경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53	24.3
	마을경관 개선	29	13.3
	마을 공용시설 확충	99	45.4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28	12.8
	기타	9	4.1
계	218	100.0	
정림동에서 필요한 상생연계 프로그램	창업지원 교육	38	17.1
	육아돌봄 지원	19	8.6
	문화프로그램	109	49.1
	복지프로그램	53	23.9
	기타	3	1.4
계	222	100.0	
우리 마을의 특성화에 가장 적합한 방향	마을 경관 특성화	49	22.2
	단군 당집, 벚꽃 길 등 문화 관광 테마	83	37.6
	지역 상권 특화	56	25.3
	육아 및 고용지원 등 여성친화 테마	26	11.8
	기타	7	3.2
계	221	100.0	

### 3. 정림동 마을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 다음에는 마을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마을돌봄을 협의적 개념의 돌봄과 안전, 교육, 문화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의견을 수렴했다.

□ 첫 번째, 협의적 돌봄 영역에 대한 결과는 가사 및 간병지원이 24.0%(37명)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취약계층 돌봄 21.0%(32명), 아동보육 및 돌봄 20.0%(30명),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돌봄 지원 11.0%(16명),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 8.0%(12명), 독거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돌봄이 각각 5.0%(7명), 다양한 마을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랑방 공간과 현재 만족해서 특별히 없다 등의 기타 의견이 3.0%(5명), 맞벌이 세대를 위한 아동돌봄 및 영유아 복지지원이 각각 2.0%(3명) 순이었다.

<표 3-7> 정림동 마을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돌봄영역)

구분	세부내용	N (n=152)	%
가사 및 간병 지원	노인 지원, 가사도우미	37	24.0
독거노인 돌봄	청소 및 식사 지원, 방문서비스, 상담서비스	7	5.0
복지사각지대 돌봄	장애인을 고려한 프로그램 및 시설 보강(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부터)	7	5.0
맞벌이세대를 위한 아동돌봄	맞벌이 가정 아동 방과 후 지원, 식사지원, 방학 중 지원	3	2.0
아동보육 및 돌봄	아동돌봄 지원, 방임아동 돌봄	30	20.0
영유아 복지지원	육아돌봄 프로그램, 육아지원, 놀이공간	3	2.0
취약계층 돌봄	취약아동 돌봄	32	21.0
상담	가사간병 및 건강관련 상담, 청소년 상담, 우울증 및 정신건강 상담, 스트레스 해소	12	8.0
자원봉사활동	이웃끼리 돌봄 확대, 어르신과 아동이 상호 돌봄, 이웃 간 연대로 돌봄 활성화	16	11.0
기타	현재 만족함, 없음, 사랑방(다양한 마을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등	5	3.0

□ 두 번째, 돌봄으로 안전영역에 대한 서비스 욕구를 살펴보면, 일상생활환경과 관련한 무단투기, 쓰레기 냄새 및 분리수거 불편, 공원쓰레기 등의 쓰레기 문제가 40.0%(70명)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주택가를 비롯한 동네 곳곳의 방법순찰 확대, CCTV와 가로등 확대, 야간 청소년 및 아동보호 등

의 치안관리에 대한 의견이 19.0%(34명), 편의시설 확대, 건널목 그늘막 확충, 쉬어가는 의자 마련, 공원 흡연문제 관리, 노후건물 관리 등의 정림동내 생활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것이 12.0%(21명), 보도블럭 재정비, 골목 등 주거환경 정비, 일방통행 교차지점 도로정비, 거리정돈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과 관련한 문제와 버스노선 신설 등의 대중교통 확대와 관련한 욕구가 10.0%(18명), 길가 불법주차 문제 해결,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 공영주차장 확대 또는 관리, 갑천변 대형트럭 관리 등의 주정차 문제 6.0%(11명), 천변내 무단쓰레기 문제, 방역,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마련과 관리 등의 우리 동네 자랑이기도 한 갑천의 환경정비에 대해서도 2.0%(3명) 의견이 있었다.

<표 3-8> 정림동 마을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안전영역)

구분	세부내용	N (n=175)	%
쓰레기 문제	무단투기 해결, 쓰레기 냄새 및 분리수거 불편 해결, 쓰레기통 확대, 공원쓰레기 정리	70	40.0
치안관리	주택가 방법순찰 확대, CCTV 확대, 방법순찰 확대, 가로등 증설, 가로등 밝기조절(밝게), 야간 청소년 및 아동보호	34	19.0
주정차문제	길가 불법주차 문제 해결,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 공영주차장 확대 또는 관리, 갑천 변 대형트럭 관리	11	6.0
주택 및 주거환경	보도블럭 재정비, 골목 등 주거환경 정비, 일방통행 교차지점 도로정비, 거리정돈	18	10.0
갑천 환경정비	무단쓰레기 문제 해결, 방역(해충),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마련, 반려동물 배설물 관리	3	2.0
대중교통 확대	가수원 방향 버스노선 신설 필요	18	10.0
생활편의시설 관리	편의시설 확대, 건널목 그늘막 확충, 쉬어가는 의자 마련, 공원 흡연문제 관리, 노후건물 관리	21	12.0

□ 세 번째, 돌봄으로 교육영역에 대한 서비스 욕구는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한 맞춤교육, 취미교육, 품앗이 교육 등을 통한 평생학습이 23.0%(34명)로 높은 응답을 보였고, 우리 마을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에 대한 의견이 20.0%(29명), 아빠교육, 동아리 등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12.0%(18명), 맞벌이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통한 아동보육과 돌봄교육,

취업 및 창업교육, 마을학교와 문화교실 등과 관련한 의견들이 각각 9.0%(13명), 가족프로그램 8.0%(12명), 청소년 공부방, 진로적성교육, 청소년 상담, 금연교육 등 청소년 교육 5.0%(7명), 기타 복지관 프로그램 확대, 공공장소 관련 교육 등이 4.0%(6명),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맞춤교육, 레크리에이션, 생활체육, 한글교실 등이 2.0%(3명)로 조사됐다.

<표 3-9> 정림동 마을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교육영역)

구분	세부내용	N (n=175)	%
평생학습	다양한 연령대 고려, 취미교육, 예체능 프로그램	34	23.0
다양한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상담(정신건강), 아동청소년 특기적성개발프로그램, 의사소통교육	29	20.0
중장년층 교육	아빠교육, 동아리활동, 장년층 취미교육	13	12.0

□ 네 번째, 문화영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 확대(여가문화시설, 복합문화시설, 체육시설 증설, 영화관 신설, 대관대여가 가능한 문화공간 마련)에 관련한 욕구들이 77.0%(122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외에도 동네 자랑인 갑천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활성화가 9.0%(15명), 마을 안에서 가족축제, 청소년 기획문화제 등 다양한 축제활성화와 청소년 전용의 여가문화공간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것, 그리고 젊은 세대들을 위한 놀거리, 영아를 위한 문화 등의 기타 의견이 각각 4.0%(6명), 중장년 남성들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2.0%(3명)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0> 정림동 마을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문화영역)

구분	세부내용	N (n=158)	%
마을축제 확대	축제 확대, 가족축제, 청소년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제	7	4.0
문화시설 확충	여가문화시설·복합문화시설·체육시설 증설, 영화관 신설, 대관대여 가능한 문화공간 마련	122	77.0

갑천을 활용한 문화	공원 내 문화활동 활성화, 갑천운동시설을 활용한 건강 프로그램 활성화, 공연장 증설 또는 관리	15	9.0
청소년 여가문화	청소년 여가문화공간, 상담센터	6	4.0
중장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중장년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	3	2.0
기타	젊은이들을 위한 놀거리(이탈방지), 영아를 위한 문화 (영아를 위한 공원 조성)	6	4.0

### 제3절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 1. 초점집단면접조사 개요 및 주요내용

- 본 연구는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의 원동력과 활성화 방안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을돌봄 활성화를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현재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연구과제와 관련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FGI는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각의 회차별로 FGI에 참여하는 주민의 특성을 구분하여 마을활동 및 마을돌봄과 관련한 다양하고 풍부한 의견개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표 3-11>.

<표 3-11> 초점집단면접조사 일정 및 참여집단 특성

구분	순서	일시	장소	집단 특성
FGI	1차	2020.09.23. 14:00~15:30	정림종합사회복지관	마을활동 참여경험이 적은 주민 대상
	2차	2020.09.25. 19:00~21:00	정림종합사회복지관	마을활동 참여경험이 많은 주민 대상
	3차	2020.10.26. 16:30~18:00	정림종합사회복지관	자생단체 소속이며, 마을활동 경험이 많은 신규 리더 대상
	4차	2020.11.02. 16:00~17:30	정림종합사회복지관	자생단체 활동 중심으로 마을활동을 해 온 원로 리더 대상

□ 첫 번째 집단은 마을활동 참여경험이 적은 주민이다. 이들은 비록 마을활동에 대한 참여경험은 다소 적으나 향후 마을활동 또는 마을돌봄에 대한 참여가능성과 잠재성이 높은 집단이다. 두 번째 집단은 마을활동에 대한 참여경험이 풍부한 주민으로써 그 동안 크고 작은 다양한 마을활동에 대한 참여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마을활동과 마을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집단으로 구성된다. 세 번째 집단은 정림동의 주요 자생단체의 구성원이나 이제 막 마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시작한 신규리더 주민집단으로 구성되며, 네 번째 집단은 정림동의 주요 자생단체를 오랫동안 이끌어온 주민리더(원로리더)로 구성된다<표 3-12>.

<표 3-12> 초점집단면접조사 대상

집단특성	성명	성별	연령대
마을활동 참여경험이 적은 주민	A	여	50대
	B	여	40대
	C	여	60대
마을활동 참여경험이 많은 주민	D	남	50대
	E	남	40대
	F	남	30대
	G	여	40대
자생단체 소속이며, 마을활동 경험이 많은 신규 리더	H	여	30대
	I	남	50대
	J	남	50대
자생단체 활동 중심으로 마을활동을 해 온 원로 리더	K	남	60대
	L	여	50대
	M	여	50대
	N	여	60대

□ 각각의 FGI는 최소 1시간 30분에서 2시간까지 소요되었다. 인터뷰 시에 주요 연구진이 모두 배석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본 연구진이 한 명씩 각자 번갈아 가며 집단별 인터뷰 과정을 이끌었다. 또한 연구진은 면접 참여자에게 사전에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인터뷰 참여와 내용의 녹음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또한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 및 손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인터뷰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몸 상태의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즉시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 인터뷰를 마친 후 연구자는 녹음된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여 FGI 참여자에 대한 구술 데이터(녹취록)를 만들었다. 자료수집 단계에서 연구자와 면접참여자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구진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나 편견에 의해 면접참여자의 체험이 왜곡되지 않도록 경계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최대한 구체적인 질문 형태로 작성함으로써 연구자의 선입견이 면접참여자의 사고와 발화를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면접참여자가 마을 주민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어체 형태로 작성하였다.

□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여 전사본을 작성하고 연구진이 전사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주제를 뽑아내는 일차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전사본에서 의미를 추출하고 이를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의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텍스트 그 자체가 아닌, 인터뷰의 맥락 안에서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 일차분석 후 선별된 핵심주제를 바탕으로 상위범주와 하위범주와 주요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진은 원 자료와 도출된 범주와 주요개념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면담내용의 정확한 의미를 포착하고자 노력하였다.

## 2. 초점집단면접조사 내용

- 연구진은 중립적이고 반성적 태도를 유지하며 인터뷰 질문들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초점집단면접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13> 초점집단면접조사 질문내용

구분	질문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의 원동력(힘의 원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림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참여가 활발한 마을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li> </ul>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의 지속·활성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 동안 마을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모범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동안 마을활동(각자 자생단체의 활동 or 정림동의 대표사업 등)을 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갈등, 애로사항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떤 어려움(갈등, 애로사항 등)이 있었는가?</li> <li>2)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했는가?</li> </ol> </li> <li>■ 정림동의 다양한 마을활동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마을활동을 계속 유지해나가고 성공적으로 이뤄내기가 힘들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마을활동을 위해) 앞으로 어떤 도움이나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가?(지원유형)</li> <li>2) 어떻게 하면 현재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마을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 (참여유인, 동기요인)</li> <li>3) 어떻게 하면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활동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주도적 참여방법)</li> </ol> </li> </ul>
마을돌봄 참여 및 활성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사태와 최근 폭우에 따른 침수피해로 인해 따뜻한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이렇게 돌봄이나 보살핌이 필요한 모두를 커버하기란 힘듭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떻게 하면 마을주민들이 마을돌봄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수 있을까?(참여유인, 동기요인)</li> <li>2) 마을돌봄을 위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우리의 구체적인 역할)</li> <li>3)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마을 주민들(주로 여기에 모인 리더)이 함께 힘을 합쳐 우리 이웃을 돌보는 활동을 할 수 있을까?(마을리더/자생단체의 참여유인, 동기요인)</li> <li>4) 여러분들이 마을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 어떤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가?</li> </ol> </li> </ul>

# 제4장

## 연구결과



## 제4장 연구결과

□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해 최종 도출된 개념은 다음과 같다<표 4-1>.

<표 4-1> 초점집단면접 도출 개념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의 원동력 (힘의 원천)	마을에 대한 강한 애착과 자긍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살기 좋은 동네(어른,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동네)</li> </ul>
	마을의 지리적·환경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특한 정림동만의 지리적, 지정학적 특성</li> <li>더딘 발전과 다소 낙후된 동네에 대한 안쓰러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 소통공간이자 마당기능을 담당하는 수릿들 공원의 존재(특정 마을공간의 구심점 역할)</li> <li>기존 마을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마을활동과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증가, 주민력 증진</li> </ul>
	높은 공동체 정신과 의식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랫동안 거주하면서 형성된 마을에 대한 강한 애향심과 친숙함</li> <li>마을문화(community culture)에 기반 한 주민들의 높은 유대관계와 결속력</li> <li>주민들의 높은 시민의식</li> </ul>
마을활동/주민참여를 지원·촉진하는 중간기관의 역할(복지관)	마을활동/주민참여를 지원·촉진하는 중간기관의 역할(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복지관의 구심적(求心點) 역할</li> <li>주민의 욕구파악과 발언에 대한 존중의 분위기</li> <li>다양한 유관기관의 존재를 통해 자연스럽게 마을활동/봉사에 대한 관심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li> <li>주민참여 의식제고 및 역량강화</li> <li>자생단체의 폐쇄성 극복</li> </ul>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의 지속·활성화 요인	교육과 훈련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li> <li>주민참여 의식제고 및 역량강화</li> <li>자생단체의 폐쇄성 극복</li> </ul>

	주요 주민 및 단체에 대한 의존성 감소와 신규 참여주민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활동에 적극적인 일부 마을주민(어울벗 등)에 대한 높은 의존성 해소</li> <li>마을활동 참여주민의 양적증대와 다양한 인력풀 구축</li> </ul>
	주민욕구를 반영한 활동지원과 자발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들의 관심과 욕구를 반영한 마을활동</li> <li>마을활동 및 주민참여 제고를 위한 복지관의 역할필요</li> <li>마을활동 및 주민참여에 대한 자발성 강화</li> </ul>
	소통과 동기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적이고 충분한 소통과 피드백 제공</li> <li>마을활동 참여와 촉진을 위한 유인 및 보상기제 마련</li> <li>마을관련 공모사업 운영비의 탄력적인 사용과 자율성 부여</li> </ul>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의 주요행사를 담은 스케줄(마을달력) 제공</li> <li>다양한 홍보처/소식통 마련/홍보를 통한 사람들 참여주민 모집</li> </ul>
마을돌봄 참여 및 활성화 요인	마을 내 돌봄 플랫폼 기능 구축 (발굴/실태-욕구파악-참여/매칭-지원/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과 정보제공(list up)</li> <li>돌봄대상자의 실제적인 욕구파악</li> <li>돌봄 참여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li> <li>주민과 돌봄 대상자의 매칭(주민과 돌봄대상자의 연결고리 필요)</li> <li>작은 시작점: 네트워크 및 관계형성</li> </ul>
	새로운 돌봄개념의 변화와 수용, 인식전환 (돌봄 역량강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돌봄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인식전환</li> <li>취약계층만을 위한 돌봄 수준이 아닌, 보편적인 마을돌봄으로 활성화</li> </ul>
	동기부여와 지속적인 피드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적인 피드백제공을 통한 동기부여</li> <li>돌봄활동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li> </ul>
	돌봄 지원을 위한 인프라·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돌봄 여건 마련, 공간, 장비 지원</li> <li>통합 돌봄을 위한 공간마련</li> </ul>

## 제1절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의 원동력

### 1. 마을에 대한 강한 애착과 자긍심

#### 1) 살기 좋은 동네

□ FGI 참여자들의 발견되는 일관되고 공통적인 의견은 “살기 좋은 동네” 라는 스스로 거주하는 마을에 대한 강한 애착과 자긍심이었다. 천변을 비롯한 동네의 천혜환경과 더불어 수릿들축제, 벚꽃축제 등과 같이 오래전부터 마을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만족감, 오랜 정주기간을 통해 갖게 된 정서적 안정감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마을활동과 주민참여를 이끌게 한 주요한 원동력 중 하나로 판단할 수 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래사신분도 계시지만, 저희 학교를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을 키우기는 정림동이 미취학아동이나 어르신들이 사시기에는 더 없이 좋아요 시장도 가깝고 천변도 있고” (B, 40대, 여성)

“굉장히 경관이 좋고 사람들의 힐링 공간으로, 휴식공간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다른 동네에서 조차도 정림동이 살기 좋은 마을이고, 부러워하는.. 그런 점들을 이야기를 해요” (J, 50대, 남성)

“정림동은 잡천이랑 주변 환경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이들 키우면서, 도안동으로 이사간 엄마들도 시장은 여기로 장을 여기로 보러 올 정도로 물가도 저렴하고, 인심 같은 것도 있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래 살고, 오래 다니다 보니 안면이 자연스럽게 터지는. 저도 신랑이 동네 유지라고 하는데, 이제 결혼해서 서울에서 왔는데 세탁소라던지, 편의점 등 자주 다니는 곳은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인심도 좋으시고” (B, 40대, 여성)

“벚꽃축제도 있고 수밧들축제가 있잖아요. 어른들이 여기 저희 수밧들 마당에서 하시는 것 그것 엄청 좋아하세요 식사 나눔하고 그런 것으로 어르신들이 뭐라 할까? 더 의지하신다고 할까?” (A, 50대, 여성)

“우리 정립동에서요, 매년 축제를.. 벚꽃축제도 그렇고 수밧들축제도 그렇고. (진행자: 유명하죠)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루기 때문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작년 벚꽃축제 때는 구청장님이 세 번이나 오실 정도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L, 50대, 여성)

“저는 순한 동네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사셔서 그런지 몰라도, 회장님 말씀 하셨는데 뒤떨어진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머무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정서적인 것은 좋은 것 같아요” (A, 50대, 여성)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보면 저희가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하시잖아요 정립동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동네는 다른 동네보다 훨씬 어르신들을 위해서 잔치 같은 것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A, 50대, 여성)

## 2. 마을의 지리적·환경적 특성

### 1) 독특한 정립만의 지리적·지정학적 특성

□ 정립동이 위치한 지리적·지정학적 특성에 대해 FGI 참여주민들은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FGI 참여한 주민들은 정립동이 위치한 독특한 지리적·지형학적 특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는 의외로 많은 주민들에게서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 주민들은 지정학적으로 향아리 또는 페트병처럼 움푹 패여 있는 다소 폐쇄적인 위치(분지형)가 오히려 마을활동과 주민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이점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대개 “시골지역” 이 지리적 위치에

따라 우리 동네와 다른 동네가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을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 정립동 주민들 역시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을 단순한 여러 행정구역의 하나로 인식하기보다는 다른 동과 구별되는 “특별한 동네”, “우리 동네”, “나의 고향” 이라는 소속감을 강하게 갖게 하였으며 이것이 마을활동과 주민참여로 이어진 것으로 연구진은 판단하였다.

“동 대표 하다가 알게 됐는데 우선 지형적으로 이렇게, 페트병이 움푹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저희 동네만 유독. 이런 마을이 거의 없거든요” (D, 50대, 남성)

“동네 자체가 모양도 작고 도마동이나 관저동처럼 넓지 않고 작기 때문에 서로 논쟁도 하고 관계도 맺고, 집값이 안 오르고 내 동네죠 내가 시골에 살 듯이, 내 고향처럼 살 듯이 하는 거죠.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잇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여가 활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I, 50대, 남성)

“저희 정립동.. 아니, 저희 태권도장에는 다른 동네 애들이 안 와요. 그리고 우리 동네 애들은 다른 동네로 안 가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결속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돼요. 정립동 애들은 나쁜 말로 하면 못 나가요. 좋은 말로 하면 푹푹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주민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가려면 여기 길하고 저기 길밖에 없어요. 그죠? 혜천대 쪽이랑 삼거리밖에 없잖아요, 나가려면. 그러다보니까 출입로가 확실해요. 다른 데서 오기도 힘들고, 물론 가수원동에서 밀로 내려올 수 있기는 하지만, 주출입로가 두 군데니까.. 그걸 봐서도 동네가 뭉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어 있고” (E, 40대, 남성)

“또 여기 있는 분들이 들락날락해서 자꾸 많이 바뀌는 것보다는 한 번 들어와서 정립동에서 살게 되면 잘 이동을 안 하는 그런 동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니까 서로 잘 알아서 협조하는 데 많이 수월한 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J, 50대, 남성)

## 2) 더딘 발전과 다소 낙후된 동네에 대한 안쓰러움

- 마을에 대한 정립동 주민의 높은 만족감과 애정이 마을활동과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다른 동네에 비해서 발전이 더디고 다소 낙후된 지역적 환경에 대한 안타까움과 측은한 마음이 마을에 대한 애뜻함과 관심을 높이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마을활동과 주민참여로 이어진 것으로 연구진은 판단하였다.

“우리 마을에서 이런데 땅 100평 살돈이면 장태산 가는 흑석동 그 시골에 가면 몇 배가 거기가 땅값이 비쌀 정도로, 값이 싼 동네예요. 서울로 말하면 청계천이죠. 하천부지에 시냇물가가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C, 60대, 남성)

“집값도 제일 안 오르고, (웃음) 지난번에 회장님께서 아유, 우리 마을은 나중에 집값 오르면 걱정된다고, 다른 텐 다 오르는데 여기만 안 올랐어요 (D, 50대, 남성)

“어르신들 활동력도 많고 하시지만, 저희 세대는 뭔가 그냥 낡은 세대 같이 언제나 뜰 준비가 되어있고, 어르신들은 계속 있지만 저희는 아이들 따라서 나갈 수 있는 거고, 여지가 있는 거라서. (동네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는 틈새가) 저희 나이대가 그런 것 같아요. 남편 직장 옮기면 저희가 나갈 수 있고, 저희가 정착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B, 40대, 여성)

## 3) 마을 소통공간이자 마당기능을 담당하는 수릿들 공원의 존재

- 마을 중간에 위치한 수릿들 공원은 정립동의 크고 작은 행사를 비롯하여 수릿들축제와 같은 대표적인 행사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마을의 핵심 공유공간이다. 마을의 소통공간이자 마당기능을 담당하는 수릿들 공원이 주민들을 하나의 특정한 공간으로 모이게 하고, 마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만남의 장과 교류의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마을활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주민참여와 마을활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 그러나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마을활동과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힘의 원천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선(先)과 후(後)가 바뀐 것으로 공간이 마을활동과 주민참여를 만들어 내는 힘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기 보다는 다양한 마을활동이 특정한 공간에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펼쳐짐으로써 수릿들 공원이 동네 마당이자 소통공간으로서의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른 동네 공원이 이렇게 많이 있는 동네 많지 않을뿐더러 전 세대가 수릿들공원 이용자가 어르신들도 계시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이 엄마들도 나와 있고 청소년들도 거길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대가 모일 수 있는 집합점이 약간 수릿들공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릿들공원도 하나의 그렇게 주민참여의 활발한 매개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고요” (H, 30대, 여성)

“시골에 마당이 있으면 집에서 밥 먹고 엄마가 데리고 고추 따러 가고 일하지 않고 자유 시간이 되면 어느 마당으로 모여요” (C, 60대, 남성)

## 4) 기존 마을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마을활동과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증가

- 원도심 중에서도 정립동은 다른 동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채롭고 이색적인 주민주도의 마을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정평이 나있다. 수릿들축제를 비롯하여 벚꽃 축제, 마을복지계획단 등의 마을활동에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마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연구진은 판단하였다.
- 이러한 마을활동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자신감이 또 다른 마을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민력(力)을 높인 것으로 연구진은 판단하였다.

“그런 주민 참여가 그런 기회(수밋들, 벚꽃 축제 등)를 통해서 굉장히 돋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무료봉사로, 가서 뭐.. 부녀회에서는 국수를 삶고 통장님들은 부침개를.. 그거 하루종일 부침개를 하면 집에 가서 머리가 전대요. 그렇게 전부들 진짜 너무 열심히 해주시니까..” (L, 50대, 여성)

“제가 볼 때는 축제를 치르는 노하우 있잖아요,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노하우를 쌓아 오기까지에는 정말 썩 정립 분들. 썩 정립 분들의 희생이라든가. 또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세요. 우리 벚꽃축제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가지고 분석을 해서 올해는 국수를, 작년에는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는 이만큼을 해야 되고.. 그런 치밀함과 노하우가 접목이 돼서 성공적인 축제를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M, 50대, 여성)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 활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쨌든 축제가 2번이나 있었고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쌓인 것이 큰 것 같아요” (J, 60대, 남성)

“오래 사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H, 30대, 여성)

“정립동이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많해보니까 서로 친한, 두루두루 친하진 않지만 친한 집단들이 있어요. 엄마들은 아이 엄마들끼리 좀 친하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끼리 친하고, 친한 집단들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을에 누군가에게 그런 게 있대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B, 40대, 여성)

“오래 산 주민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2004년부터 살아가지고 이제 가게나 이런 분들도 다 아시고 저희 애들도 다 알아보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마을이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친숙해지고, 나오는 게 부담이 없는 거죠. 어디 가든 아는 사람들이 있고 쉽게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오래 거주한 게 큰 것 같아요” (G, 40대, 여성)

“그러니까 전부 여기 오래 거주하시다 보니까 네 일이 아니라 전부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N, 60대, 여성)

### 3. 높은 공동체 정신과 주민의식 수준

#### 1)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형성된 마을에 대한 애향심과 친숙함

□ 정립동은 인근 주변의 동네(도안이나 관저동)나 다른 지역(노은, 둔산 등)에 비해 발전 속도가 느린 편이다. 여느 동네와 다르게 집값상승도 크지 않으며 새로운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교육 및 문화, 쇼핑 등의 생활편의 인프라가 좋다고 평가할 수 없는 다소 낙후된 경향이 높은 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다른 동네로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정주하게 하는 요인으로 연구진은 판단하였다.

□ 이로 인해 정립동은 계속해서 살던 사람이 계속 살아가는 마을의 형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 동네, 내 마을, 내 고향이라는 인식이 주민들에게 자리 잡게 되면서 마을활동과 주민참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연구진은 판단하였다.

#### 2) 마을문화(community culture)에 기반 한 주민들의 높은 유대관계와 결속력

□ 마을활동과 주민참여의 원동력으로 주민들은 높은 유대관계와 결속력을 그 예로 들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다른 동네로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정주하는 비율이 높는데 긴 세월을 함께 하면서 맺어진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도와 친근함이 높고 이로 인해 상호간의 단결력과 응집력이 높아진 것으로 연구진은 판단하였다.

□ 그러나 젊은 주민들끼리의 모임도 비교적 활성화 되어 있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단순히 함께 한 시간이 많고 적음이 주민들이 높은 유대성과 결속력을 갖는 이유를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다수의 주민들이 오랜 기간 함께 더불어 살면서 형성된 마을에 대한 고유의 가치관이나 신념, 전통, 활동, 스타일 등이 마을 전반에 스며들고 공유된, 일종의

마을문화(community culture)의 영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높다.

- 마을문화란 것은 특정한 마을의 내·외적인 활동에서 발견 또는 개발된 고유한 분위기 또는 기본가정이다. 이러한 마을문화는 오랜 시간 마을 구성원들이 타당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고유의 독특성이다. 이러한 마을문화가 새로운 주민들에게도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학습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엄마들도 보니까 더 단합도 잘되는 것 같아요. 여기 유치원, 이동을 잘하지 않으니까,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로 가니까 커뮤니티가 그대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단합도 잘되고, 제가 여동생이 서울에 있지만, 학교 활동 이야기 하니까 이번에 20명 꾸리니까 ‘어떻게 20명을 꾸릴 수가 있어?’ 흔치 않는. 연락도 그냥 전화로만 ‘도와주세요’ 했을 때 ‘네 도와드릴게요’ 할 수 있는...” (B, 40대, 여성)

“아빠끼리 모임, 엄마들 모임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까지 연계되는 팀들이 많더라고요. 구성원들이. 그런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훨씬 단합도 잘되고, 이번에 발열도우미 이것을 했을 때도 이쪽에 도와 달라 했을 때 이쪽으로 연결이 잘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다른 사람한테도 알아볼까요?’ 약간 다단계처럼 착착착 가는 (진행자: 마을활동이나 돌봄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연결망이 살아있음?) 네. 그런 것들이 잘되어 있다. 서울에 비해서 특히 정립동이 이런 연결고리가 살아있다. 아까도 구성원들의 화합이 잘된다고 했을 때도 그런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것이 아닌가...(B, 40대, 여성)”

“비슷한 얘기에요. 그러니까 수밋들어올뻔이 서로 관계도 정말 좋잖아요. 어쨌든 처음 만난 건 서로의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뭉쳐져서 서로가 좋아서, 좋은 사람들끼리 뭘 해보자 마을활동을 해보자 라고 모였기 때문에...” (H, 30대, 여성)

“전부 유대관계가 좋다 그럴까? 서로 관계가 좋아요. 그러다보니까 좀 활동도 같이 알음알음 하다 보면, 서로.. 이웃 이상으로 관계가 좋기 때문에 서로 잘 나오세요. 그래서 협조도 잘되고 하여튼 봉사활동 한다고 해도 늘 내 일처럼 많이 나와 주시고” (N, 60대, 여성)

“첫 번째 조건은 유대관계가 되게 돈독해요. 그런 관계 속에서 집에 밥그릇 수가 몇 개가 있

는지, 손가락 수까지 알다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났을 때, 이웃들끼리 참여하는.. 두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고요” (M, 50대, 여성)

3) 주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 주민과의 면담과정에서 도출된 또 다른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의 원동력은 높은 시민의식이다. 면담에 참여한 많은 주민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나 이해관계보다는 마을활동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으며 나름의 책임감과 사명감, 주인의식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조금 내 사생활을 손해 보더라도 나와야지 하는 생각도 있지요” (H, 30대, 여성)

“저 보다 더 많이 온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복지관 반 직원 같은 느낌? (웃음) 이달에는.. (웃음) 지사협을 맡고 있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더 나와야 된다는 책임감도 없지 않아 있고..” (I, 50대, 남성)

“예전에 축제 하다 보면 우리 마을에 저런 단체들이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깨어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복지관 하나만 생각했는데, 큰 행사 가면 자생단체에서도 오고, 개인적으로 참 좋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자생단체가 많다고 해도 사람이 참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열려있어요” (D, 50대, 남성)

“또 앞으로도 더 더불어 살 일이 많은데, 일단은 할 수 있는 내 만큼 정도는.. 마을을 위해서든, 나를 위해서든, 주민을 위해서든 필요한 거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나도 좀 내 할 일을 해야지, 매번 내가 필요한 것만 하고.. 정말 그 이기주의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사실, 살면서 누구를 봐도 나중에 가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좀 부끄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허락이 되는 한도에서 할 수 있는 걸 무엇인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J, 50대, 남성)

“제가 여기 와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머니들이 뭔가 우리 동네에서 아기들을 위한 거나 또, 자녀를 위

한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주민참여가 활발해진 동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 (K, 60대, 남성)

“제가 이제 정립동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리고 정립동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겠다. 늘 같이 내 고향이고, 내 집이고, 내 마을이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께서 보살펴서 잘 키워주셨고, 또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하시면서 저를 만들어주셨으니 저도 또한 마을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잘 몰라서 동사무소 가서 물어봤어요. 뭐를 하면 봉사를 할 수 있겠느냐, ” (J, 50대, 남성)

“마인드가,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마을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거 말고 이룰테면 뭐, 얼마 줄 테니까 나와 이러면 혹시 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 나의 삶의 한 부분이고 이 중심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기초하는 것 같습니다” (J, 50대, 남성)

#### 4. 마을활동/주민참여를 지원·촉진하는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 1) 마을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구심적(求心點) 역할

- 정립동의 주민참여 수준이 높고 다양한 마을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이 기저에는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의 구심적인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 마을 내 위치한 복지관 등이 마을활동과 주민참여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코디네이터이자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진은 판단하였다. 특히, 정립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그 동안 지역조직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비롯하여, 마을리

더 양성, 마을활동의 주체 발굴 및 육성, 마을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마을복지계획단 구성 등과 같이 주민주도의 마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중간지원기관의 노력과 활동이 결과적으로 정립동의 마을활동과 주민참여로 이어진 것으로 연구진은 판단하였다.

“제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에서 중심이 잘 돼있어요. 우리 동네가.. 중심이 잘 돼있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뭉치는 거지, 정말 복지관이 없다고 하면요, 동사무소만, 행정복지센터만 가지고는 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심이 딱 틀이 잡혀있으니까 우리 동네가 이렇게 잘 뭉칠 수 있는 것 같고, 여하튼 그런.. 그렇게 제가 여기 살아오면서 정립동하고 인연이 돼서 했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복지관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또 공헌을 할 수 있고..” (I, 50대, 남성)

“복지관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다양한 마을활동)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해봤어요” (H, 30대, 여성)

“인제 아무래도 복지관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복지관 구성원으로 인해서 참여도를 더 부각시키고 줘.. 격려해서 함께 합시다 라는.. 어떤 그 부분에서 주축이 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 (M, 50대, 여성)

“아무리 또 오래 사신 분들 많고 환경적인 게 있어도 누군가는 주도를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 주도를 해야 하는 건데 그 역할을 (복지관이) 또 잘 해주고 계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되지 않았을까?” (E, 40대, 남성)

“여기 복지관을 주축으로 해서 젊은 분들이 이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분들은 공식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에요. 어울벗이라는 분들이 정말 여기 와가지고 각종 프로그램들을 맡아서, 그런 거를 복지관에서 너무 잘 해주시고” (L, 50대, 여성)

## 2) 주민의 욕구파악과 발언에 대한 존중의 분위기

- 일부 참여자는 마을활동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경청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주민들의 관심과 선호가 다양한 마을활동에 반영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이어지는 것으로 연구진은 판단하였다.

“저는 단어로 생각하면 발언권? 발언권.. 주민에게 발언권이 있다, 그 발언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주관해서 이걸 하자가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복지관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발언권이 생기고, 그로 인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정립동은 다른 동에 비해 주민의 참여도 높고 활발하게 다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F, 30대, 남성)

## 3) 다양한 유관기관의 존재를 통해 자연스럽게 마을활동/봉사에 대한 관심형성

- 정립동은 작은 면적에 양육시설, 요양시설, 복지관, 어린이도서관 등의 다양한 사회복지시설과 비영리기관이 다수 존재한다. 일부 주민은 이러한 유관기관의 존재와 이곳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면서 마을활동과 주민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으로 연구진은 판단하였다.

“아무래도 이 지역구 내에 열악한, 예전에 비해, 비영리 단체, 기관들. 아무래도 아동기관이라든지, 노인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기관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쏠릴 수 있어서 주민들이, 그래도 멀리 있는 분들보다는 가까이에서 그렇게 좀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M, 50대, 여성)

## 제2절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의 지속·활성화 요인

### 1. 교육과 훈련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 1) 마을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인식강화

-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으로 주민들은 무엇보다 “마을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 를 손꼽고 있었다. 과거에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정신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갖는 중요성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이 약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어떤.. 생각이나 문화가 바뀌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네에서 함께) 자라고 동네에서 뭔가 함께 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비중이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마을만이 아닌 모든 지역이 그런 생각 속에 있지 않나.. 국가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교육해야 되는데 ...” (J, 60대, 남성)

“옛날에는 콩 한 쪽도 나눠먹고, 우리는 또 나름대로 우리 세대는 좀 교육을 받으면서 컸어요. 사회적인 교육을. 길에 휴지를 주워야 되고.. 근데 지금은요, 막말로 학교 주변에도 쓰레기가 막 널려 있어요. 학교 교육 자체가 그래서 자기들 학교 주변들도 그거 쓰레기 줍는 것 시키면 큰일 난대요” (L, 50대, 여성)

“이것도 생각의 차이인데, 그것(마을활동)을 적극적으로 확 와 닿는 분들도 있지만, ‘이걸 굳이 왜 내가 거기까지 가서’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남의 이야기 같은.(동네 행사가 많이 있어도 참여하지 않는) (B, 40대, 여성)

## 2) 주민참여 의식제고 및 역량강화

□ 마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이상적인 일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많은 주민들은 스스로가 마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요한 이유로 “교육”을 예로 들고 있었다. 일반 주민과 별 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마을활동과 주민참여에 적극적인 이유는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경험 유무가 매우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었다.

“교육인 것 같아요... 임원진들이랑 일반회원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식이 차이가 났던 게 다른 게 없거든요. 저희들이 더 많이 나오고 대외적인 활동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교육 듣고, 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지 우리가 뛰어나게 잘라서 바뀐 게 아니잖아요. 시작은 똑같았었는데 얼마나 많은 교육에 참여했고, 얼마나 많이 가서 봤고, 얼마나 많이 경험 했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가치나 생각들이 많이 좀 벌어졌거든요” (H, 30대, 여성)

“주도적으로 마을활동을 이끌어 가려면 어쨌든 자발적으로 이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육이나.. 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E, 40대, 남성)

“임원들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교육받기 때문에 발전이 돼요. 근데 일반회원들은 공유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점점 그분들은 그냥 있고, 임원들만 올라가는 상황이 생겨 버리는 거죠” (E, 40대, 남성)

“교육이 이상적이긴 한데요. 그 교육을 받으려고 마음을 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웃음) 그러니까 강의를 의무적으로 듣기.. 은연중에 같이 교육받고 그러는 게 관계, 전화해서 관계로 나가는 거지 특별히 처음부터 아, 나는 교육을 받아서 마을활동을 할 거야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교육받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건데, 그 교육을 받게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G, 40대, 여성)

## 3) 자생단체의 폐쇄성 극복

□ 정림동의 마을활동은 오랫동안 마을에서 터를 잡고 성장해온 다양한 자생단체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크다. FGI에 참여한 일부 주민은 신규회원의 다양한 아이디어나 생각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원활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조직의 폐쇄성을 우선적으로 극복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뭔가 만들면 금방 저기 군대처럼 딱 폐쇄적이 돼요. 처음에 활동했던 사람들 이외에는 다시 또 문이 막혀요. 그런 것들이 많아. 무슨 계모임처럼, 특히 일부의 회비를 내고 시작했다, 그러면 완전히 계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진입이 어려운 상태가 되죠” (J, 60대, 남성)

“아무래도 고착화된 회원님들의 형태상 신규가 가서, 이걸 갈등 플러스 애로사항이었는데요, 신규가 가서 제안을 못 해요. 어르신들이 이 반찬 드시면 좋겠는데요, 어르신들도 고기 드실 수 있고 좀 이렇게 해드리면 좋겠는데요, 하면 오래된 회원님들이 에이, 편한 게 편한 거, 이렇게 해버리는.. 그냥 설렁 넘어가버리는 형식적인 봉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L, 50대, 여성)

## 2. 주요 주민 및 단체에 대한 의존성 감소와 신규 참여주민 발굴

### 1) 마을활동에 적극적인 일부 마을주민에 대한 높은 의존성 해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림동의 마을활동은 여러 자생단체를 비롯하여 책임감과 적극성을 가진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 이뤄지는 경향이 크다. 문제는 소수의 이들에게 잦은 도움요청과 역량을 넘어선 과도한 활동요구가 집중되면서 큰 부담감을 안겨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로는 그 마을이나 기관이나 어디서든 과도하게.. 저희들은, 저희 주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수밋들어올뻔은 다 주부거든요. 그러면 가정도 돌봐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는데 **가끔 저희의 그거보다 역량보다 좀 더 무리한 요구, 부탁이죠, 요구라기보다 부탁이죠.** 부탁을 하셨을 때 그런 관계 때문에 단박에 거절하지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해봤지만 그럼 저희는 어쨌든 가정 돌봄이나 시간을 많이 저거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땐 가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H, 30대, 여성)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 역량이 커지고, 또 역량이 커지다보니 **요구사항들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진행자: 지치고 힘들다?)..네” (E, 40대, 남성)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는 사람만 하더라,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지관의 담당자가 아닌데도 와서, 소속 봉사활동 단체가 아닌데도 와서 (도와줘야만) 해줘야만 복지만두레가 유지해나갈 수 있는 형태, 이렇게 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M, 50대, 여성)

“모든 사람이 마음이 맞으면 뭐든지 다 열심히 하게 되고, 같이 좋은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즐거운 거잖아요. 굳이 그게 일로 다가오는 것보다,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분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다행히 어떠한 일거리가 생겼어, 그럼 그걸 같이 하면서 즐거운 건데 지금 **그게 이상으로 넘어가니까 과부하 걸리고**” (E, 40대, 남성)

## 2) 마을활동 참여주민의 양적증대와 다양한 인력풀 구축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립동의 마을활동의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주체는 자생단체와 이곳에 소속된 주민들이다. 그러나 여러 자생단체에 주민들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실제로 활동에 참여 주민은 일부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FGI에 참여한 주민들은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인력풀을 구성하여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끌려 다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게.. 너무 한정적인 사람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어요. 더 많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죠.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너무 한정적인 사람만 오니까 반복이 되는.. 이 모임 가도 저 사람이고, 저 모임 가도 저 사람이고.**” (I, 50대, 남성)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모임 저 모임 단체에 중복 가입하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런 걸 배제하다보니 인원이 안 모여지는 것.. 그래서 남성새마을회도 없어졌어요. 그 인원만 따로 하려고 하니까 모여지지가 않으니까 없어지고, 그리고 자유총연맹도 많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바뀌면서 인적구성을 새로 구성을 하는데 이게 뭐 쉽지 않은 거죠” (J, 50대, 남성)

“**아무래도 이 단체, 저 단체, 3개, 4개 단체에 있는 사람들,** 중복단체에 가입하다보니까 나가서도 회비 냈어, 여기서도 회비 냈어, 나 그냥 이름만 올려줘 라는 회원님들도 계셨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걸 하는 동안, 저는 신규로만 그거 하나로만, 1인1단체 이런 식으로 마음 속에 두고 있었는데, 딱 가서 회원명단을 보니까 저만 하나지 다 세네 개씩 감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M, 50대, 여성)

“저도 이제 가입을 했다가 빠지라고 해서 빠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 군데 같이 가입하고 있고 오라고 하니까 갔는데 **너무 많이 중복돼서 하고 있으니까 빠져라**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들어요.” (J, 50대, 남성)

“인원이.. 좀 어느 정도 확보돼서 봉사할 수 있는 인원도 거기에 비례해서 **좀 늘어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J, 50대, 남성)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는 인력이 줄어든다는 점이고요” (L, 50대, 여성)

“우리만이 아니고 다..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참여자를 많이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참여자가 다 생업에 바빠요” (J, 60대, 남성)

### 3. 주민욕구를 반영한 활동지원과 자발성 강화

#### 1) 주민들의 관심과 욕구를 반영한 마을활동

- 일부 소수 주민의 의견이었지만, 주민들의 관심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마을활동이 마련되어야만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제가 딱히 행사를, 아이들 행사 있더라도 이게 뭔가 귀찮거나, 저희 아이와 활동이 뭔가 동떨어지거나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잘 안 해요..” (B, 40대, 여성)

#### 2)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 제고를 위한 복지관의 역할필요

-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담당하는 복지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렇게 복지관이 있으니 관리가 자꾸 해주면 관심이 있게.. 한번 왔더니 어색한데 이런 사람들 자꾸 그런 느낌을 갖게.. 힘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장님이” (I, 50대, 남성)

#### 3)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에 대한 자발성 강화

- 면접결과 마을활동 지원조직이 주민들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참여동기를 충분히 고취시켜, 주민의 힘으로 마을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복지관이 좀 힘이 미약했을 때는 조금씩만 해도 순수한 봉사활동인데 복지관에서 틀을 잡아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대신 우리가 할 때, 나는 이것을 확실히 맡아서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자발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관 오면 관장님이 딱 하고, 밑에 있는 실무하시는 분, 강사님들 있으니 너무 체계적이에요. 복지관 내에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여

지라기보다도 위에서 뭔가 내려주면,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늘 얘기해요” (D, 50대, 남성)

“복지관에서 하는 만큼 저희들은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보면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가 아닌 그냥 하나의 틀에..(진행자: 하나의 짜여진 틀에, 복지관에서 만들어낸 어떤 틀 안에 수동적으로 마을활동에 참여한다?) 네, 그걸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솔직히. 복지관 활동이 좋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D, 50대, 남성)

### 4. 소통과 동기부여

#### 1) 마을활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충분한 소통과 피드백 제공(동기부여)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단체와 주민에게 집중되는 과도한 마을활동에 대한 부담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실제로 일부 소수의 주민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마을의 크고 작은 요청에 따라 다양한 마을활동에 참여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활동의 목적이나 취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없이 기계적으로 참여하는 자신들의 모습에 다소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신들의 노력과 활동이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며, 어떤 의미와 성과를 갖는지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을활동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다. 처음에는 기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마을활동에 참여했다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의 역할이 단순한 인력제공으로만 머문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주민들은 소외감과 더불어 마을활동에서 핵심참여자가 아닌 단순한 주변인으로 전락되는 느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 이게 그 서로가 모든 사람이 이게 공감이 되고, 어 좋아 좋아 내가 한 번 해볼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나는 (이 활동을 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보고 하라 그러지?” (E, 40대, 남성)

“누군가 주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주도하시는 분들은 매일 만나시고 하시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없어도) 그게 되지만 그냥 이제 어떠한 부분을 맡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깊이 몰라요, **잘, 깊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해야 돼? 해야지 뭐, 마을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이게 같은 마음을 품는다면.. 좋은 마음이지 않아요. 좋은 마음을 같이 품는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소통의 문제들이 조금 약했지 않나..**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H, 30대, 여성)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냥 **현수막 달려 오세요, 네 하고 오는 게 되고..** 또 이거 만약에 이렇게 뭐 인터뷰할 거예요 하면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하고 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는 건지 우리가” (E, 40대, 남성)

“이유를 모르는 봉사. 뭘 시켜서 하긴 했는데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의미를 모르고 하면 이걸 도대체 이걸 해서 우리 마을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약간 비전 제시를 해주면 아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게.. (동기부여가 되고) 더 마음을 갖고 할 텐데, 그냥 시켜서 하면, 애들도 시켜서 하는 공부는 의미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이유를, **자세한 설명 없이 그냥 이거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마음이 덜 간다고 해야 하나..** 하긴 하지만 마음이 덜 간다고 해야 하나..” (E, 40대, 남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동기부여가 확실해야 되는 건데 **동기부여는 덜 돼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H, 30대, 여성)

## 2) 마을활동 참여와 촉진을 위한 유인 및 보상기제 마련

□ 마을활동은 주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참여와 협력에 기반을 두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인 및 보상기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특히, **보상이 필요하단 의견은 FGI에 참여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제기**되었다. 이는 다소 민감한 사안으로 보상의 수준과 범위를 떠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활동에 어떤 대가를 바란다는 사실 자체가 자칫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근데 마을활동으로 어쨌든 봉사활동 나오긴 나왔는데 우리도..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우리는 밥만 사주면 하는데..(웃음) 우스갯소리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 크게 부담 된다고 보다 어느 정도 마을활동을 하면 그렇게 하시는, 전문적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어떤 마을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활동비? 활동비가 되게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런 **활동비가 있으면 엄마들이 조금 더 마음에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H, 30대, 여성)

“조심스러워서.. 돈 얘기라는 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또.. 재네들은 지네들이 좋아서 하는 거 **왜 돈을 요구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말하기가 부담스러워요**” (G, 40대, 여성)

## 3) 마을관련 공모사업의 탄력적인 운영과 자율성 부여

□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주민주도의 마을문제 해결과 주민관계망 형성을 확산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을만들기 또는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공모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FGI 참여주민들 역시 이러한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마을공모사업의 예산사용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자율성이 부족하여 마을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지금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만 거의 자원봉사보다는 그.. 나라에서 지원받는 그런.. 공모사업  
을 받아서 활동을 하죠” (H, 30대, 여성)

“네, 그런 거에서는 사실 인건비는 아예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공모사업에서 인건비는 전  
무하고, 식사비도 제한적이고요, 활동비 뭐 우리가 어디를 물건을 사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  
아요. 이런 것도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제한적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사비가, 공모사업을 해  
서 마을을 위해서 활동을 하지만 쓸 수 있는 데는 되게 한정적인 거죠. 우리가 그냥 자원봉  
사, 좋아서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를 돈을 챙겨달라는 게 아니라..” (E, 40대, 남성)

## 5.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 1) 다양한 홍보처/소식통 마련/홍보를 통한 사람들 참여주민 모집

- 면담결과 보다 많은 주민의 마을활동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양하  
고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었다.

“홍보도 많이 없어요. 가끔 학교에서 정립신문 같은 것 오면 어린이 기자단 이런 것 있는데  
그것도 어울벗이나 복지관 관계자들 이렇게 해서 자주 왕래가 있어서 소식을 접하시는 분들  
은 알음알음 그 분의 지인, 지인의 딸, 아들들이 기자단을 하거나 그런 거지 ‘이런 게 있었  
어?’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B,  
40대, 여성)

“(마을활동에 대해) 주변에 공고를 해서 또 오면 좋은데 안 오니까 결국은 알음알음 권유를 하  
는 방법으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한계에 좀 부딪히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별다른 어떤 유인  
책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생각을 해왔지만 뚜렷하게 좀 방법을 아직 못 찾았고요, 결국은  
홍보를 하는 것 외에는 답을 못 찾았습니다” (J, 50대, 남성)

## 제3절 마을돌봄 참여 및 활성화 요인

### 1. 마을 내 돌봄 플랫폼 기능 구축

#### 1)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과 정보제공

- 인터뷰 결과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정보제공이 우선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  
하였다.

- 첫째, FGI 참여주민들은 정부나 지체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공식적인 돌봄제  
도의 수혜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적절한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못하는 일반주민들 역시 상당수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 둘째,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도움을 제공받는 중복수혜자가 마을 안에 상당  
히 많이 존재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일부 동일한  
대상에게 도움의 손길과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부족하고 한정된 자원의 낭  
비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  
원의 손길이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었다.

- 셋째, 또 다른 공통된 의견으로는 참여자들이 마을돌봄에 대한 참여나 활동을  
희망하더라도 정작 우리 동네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4학급에 들어가고 싶은데, 엄마는 미장원 경영하고 가게하고, 식당서  
일하고 아이가 방치되니까 거기에 돌봄이 필요한데(진행자: 실제로는 도움이 필요하나 기준이  
되지 않아 도움을 못받는단?), 네.. 학교 돌봄은 재산 소득이라던지 여러 가지에 따라 인원이

한정되는데, 정원을 채우는데 정원이 다 차는지, 모자라는 지, 80명 예산이 나오는데, 돌봄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80명 다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200명 줄 서 있을 수 있고, 80명밖에 안 되어서 아이들을 돌 테가 없어서 학원에 보내려면 2-3군데 엄마 올 때 까지 두려면 학원비가 많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C, 60대, 여성)

“저희 애기아빠가 석유배달을 했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찾아다니면서 보다보니까, 이걸 기초수급도 안되고 차상위도 안되는데 땅이 조금 있다는데 돌이 살거나 혼자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형태니 반찬도 안 들어와, 기초수급에서 제외돼,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있고 가족들도 관심도 별로 없는 상태인데” (M, 50대, 여성)

“통장님들이 지금 복지통장님 해서 발굴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전에 보다 제가 행정센터를 자주 들락거리잖아요. 보면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은 너무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적절하게(누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L, 50대, 여성)

“수급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봄에도 보니까 긴급재난지원금, 차상위 그런 분들은 세 번째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에 좀 적재적소에 그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L, 50대, 여성)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베이스가 정해져 있어요. 신규 발굴된 어떤 형태상 조건부가 깔릴 때 명확한, 명료한 기준이 없이 그냥 쉽게..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 해왔던 대상들 그게 지금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선정자들이 유입이 잘 안 된다는 거였어요...복지관 쪽에서 데이터를 보면 중복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 (M, 50대, 여성)

“지금 당장에 저는 개인적으로 힘을 보태야 될 대상이 어느 정도 있는 가 저희는 모르잖아요...가정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렵다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분들 어르신들 통해서 김치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몰라서.. 몰라서 인제 저희가 못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해주시고” (D, 50대, 남성)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돌봄이 필요한) 그런 아이가 얼마나 있는지, 아이들 통해서만 듣고.” (G, 40대, 여성)

“저희 마을에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이 독거노인이 몇 분이 계시고, 아니면 밥 굶는 아이가 우리 마을에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몰라요.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보살핌이 필요한 주민이 누구인지를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기관에서만 아시고” (D, 50대, 남성)

## 2) 돌봄대상자의 실제적인 욕구파악

□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도움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돌봄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돌봄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어떤 유형의 도움이던지 간에 받은 도움에 대해 맹목적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또한 이들의 특성 상,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특정하여 선뜻 얘기하는 것에 대해 다소 주저하고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취약계층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실제 돌봄 대상자들이 원하는 욕구와 맞지 않는 돌봄활동이 이뤄지기도 하는 것으로 연구진은 판단하였다.

□ 인터뷰 결과, FGI 참여주민들은 돌봄활동에서 제공한 자신들의 도움이 돌봄 대상자들이 원하는 실제욕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가 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도움의 욕구가 무엇지에 대한 면밀한 실태파악과 정보제공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우리가 가면요, 반찬 들고 가잖아요? (여기저기서 받은 김치가 너무 많아서) 김장 김치 좀 갖고 가, 그래요. 어르신들이” (M, 50대, 여성)

“육구 얘기하셔서 생각이 난 거예요. **반찬보다 다른 게 더 좋다고(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반찬보다 내가 직접 나가서 쇼핑도 못하고 자식새끼들한테 뭐 사다달라면 괜히 그렇고,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누군가에게 부탁하자니 어렵고. 근데 정말 이렇게 딱 가서 뵈고 부족한 게 있어서 챙겨드렸더니 그런 부분에서..” (H, 30대, 여성)

“꼭 김치만 갖다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새마을에서는 1년에 한 번 빨래봉사를 해요. 이불빨래. 새마을에서 이불빨래 차가 오거든요. 근데 독거,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불빨래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L, 50대, 여성)

### 3) 돌봄 참여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인적체계망 구축

-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론 중에 하나는 마을돌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정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향후 마을돌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 역시 높다는 점이다.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 그러나 연구진의 예상과 다르게, 이러한 의도가 있더라도 **돌봄에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마을활동을 참여하지 않는 주민이나 또는 이미 마을 안에서 돌봄활동을 펼치고 있거나 다른 형태의 마을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몰라서 못 돕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몰라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그리고 또 좋은 일을 하시는데 또 그것도 잘 몰라서 동참을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E, 40대, 남성)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몰라서 못했거나...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B, 40대, 여성)

“중간에서 알려주는 기관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실제로 도움을 더 잘 줄 수 있죠.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G, 40대, 여성)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분들 어르신들 통해서 김치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몰라서.. 몰라서 이제 저희가 못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해주시고” (D, 50대, 남성)

“갑자기, 아이가 어린데 큰 아이도 있고 아이도 어린데 아이가 갑자기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에 이 아이까지 데리고 엄마가 택시를 타고 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사람을 또 어디서, 외부에서 내 아이를 맡기기는 어렵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면 **긴급연락망이 나, 마을 안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 그리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을 안에서 달려가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그럴 때 아이를 잠깐 맡아준다던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했었고” (H, 30대, 여성)

### 4) 주민과 돌봄 대상자의 매칭(주민과 돌봄대상자의 연결고리 필요)

- 마을돌봄에 대한 참여 의향이 높더라도 스스로가 선뜻 나서는 것에 대해 주저해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동네에 살더라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가 망설여지기도 하며 돌봄이 지극히 사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불리 다가서기가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었다.
- 주민들은 누군가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자신들을 매칭 또는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간매개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해소될 경우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의향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근데 **사적으로 뭐 다가가야 되니까 그게 쉽진 않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바로는 노부부들이 사는데 정말 불편해요 그 분들이. 근데 끼어 들 수 없는 게 자녀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줄 수도 없다는 거죠” (I, 50대, 남성)

“**스스로 (돌봄활동을) 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면 약간 주책 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면 뭔가 사업 같고, 뭔가.. 직접적인 주관.. 복지관 주관이 아니면 개입하기도 좀 애매하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네요” (F, 30대, 남성)

“그냥 무턱대고 갈 수 없는 게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저희를 불러달라고” (G, 40대, 여성)

### 5) 작은 시작점: 작은 네트워크 및 관계형성

□ 인터뷰 결과 돌봄의 시작은 작은 관계형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작은 관계(small relationship)”란 “주민과 돌봄이 필요한 주민” 그리고 “주민과 주민” 끼리의 작은 관계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작은 시작을 통해 돌봄이 시작되고 점차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웃 만들기와 같이 작은 관계형성을 통해 내 이웃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돌봄문화가 형성될 수 있으며 간단한 안부확인이나 인사를 통한 관계를 통해 점차 계획적이고 확장된 돌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연구진은 판단하였다.

□ 또한 FGI 참여 주민들은 기존의 존재하는 단체를 통해 돌봄도 “마을돌봄”을 실천하는 주요 방법이 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에 의해 또는 누군가 만들어준 모임이 아닌 “서로 마음이 맞는 주민끼리의 관계”를 통한 작은 모임이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돌봄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마을돌봄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친구나 누가, ‘너 그 돈으로 누구 부를 것 없이 택시 불러. 5000원이면 가고, 올 때 5000원이면 와. 택시 불러서 간단하게 하고 와’. (진행자: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주위 사람이 있다면?) 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K, 60대, 남성)

“가령 저희, 제 친구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전날부터 전화를 드려도 안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이제 아침에 (전화를 걸어) 요양보호사한테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일찍 가주세요, 갔더니 고관절이 빠지셔서 전화를 받으려 못 가시고 그러고 밤새도록 계셨다는 거예요” (L, 50대, 여성)

“아무래도 지금 지역사회협의체라는 단체도 있지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분들을 연계해서 서비스를 또 다른 사각에 있는 분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갖춰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단체장들끼리 모여서 만든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가 돼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저는 따로 한 번 해봤습니다” (M, 50대, 여성)

“우리는 자연부라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긴급재난지원금 그거를 가서 이제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도우미를 헤드린 적이 있어요” (L, 50대, 여성)

“정림동이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서로 친한, 두루두루 친하진 않지만 친한 집단들이 있어요. 엄마들은 아이 엄마들끼리 좀 친하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끼리 친하고, 친한 집단들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을에 누군가에게 그런 게 있대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해봤고요. 음.. 그것들도 서비스 제공을 해주는 복지관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해봤어요” (H, 30대, 여성)

## 2. 새로운 돌봄개념의 변화에 대한 수용과 인식전환

### 1) 돌봄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인식전환

□ 전통적인 돌봄에서 보다 확장된 돌봄으로서 돌봄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 인터뷰 결과, 참여주민들이 주장하는 돌봄개념의 변화와 인식전환의 첫 번째는 “돌봄의 영역”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돌봄이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대한 수발이나 부양, 보살핌에 대한 의미가 강했다면 이제는 돌봄 대상자들의 사회활동이나 여가·문화는 물론 지역사회의 건전하고 깨끗한 환경, 안전, 쾌적한 공간 등과 같은 보다 확장된 영역으로 돌

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돌봄의 개념을 협소하게 가져가면 그만큼 주민참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돌봄의 의미를 좀 더 확장시켜서 가져갈 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쉽게 다가설 수 있다고 연구진은 판단하였다

□ **두 번째는 “돌봄 대상”의 변화**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돌봄대상자가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 등의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넓은 시각에서 일반주민을 아우르는 보편적 돌봄으로 돌봄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돌봄의 대상자는 일반주민들도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이처럼 확장된 돌봄측면에서 볼 때 **마을돌봄이란 “주민들이 주민들의 삶을 서로 돌보는 공동체 활동”**으로 연구진은 판단하였다.

[돌봄 영역의 변화] “일부분이지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지만 (전통적인 돌봄보다는 무엇인가) 활동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사람들(자원봉사자나 생활관리사 등)이 의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되기를 바라고, 소소한 일거리, 사소한 일거리 그런 일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A, 50대, 여성)

[돌봄 영역의 변화] “지금은 환경. 환경 살리기 그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봉사, 돌봄이라는 자체도 이제는 그쪽으로..” (L, 50대, 여성)

[돌봄 영역의 변화] “어르신이라도 활동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다녀보면 오전에 보면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취미 활동이 있어요. 그걸 엄청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옷도 사 입을 수 있고 화장도 하시고 이러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어르신들 늘 수 있는 문화 그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진행자: 동네에서 소소하게 내가 일상에서 재미있게 놀거리, 일거리, 갈 곳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드신다?) 그렇죠..” (A, 50대, 여성)

[돌봄 영역의 변화] “**우범지역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어떻게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어요**” (J, 50대, 남성)

[돌봄 영역의 변화] “순찰을 하다보면 너무 많이 음주를 해서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잠을 잔다던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다 어디 빠져서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를 보기도 하고, 다니다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게 나가서 보행자한테 불편한.. 그런 것들은 늘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긴 했거든요**” (J, 50대, 남성)

[돌봄 대상의 변화] “저희 아이들을 모집할 때 차상위도 아니고, 돈이 적거나 뭐가 조건이 아니에요. **마음에 음악이 필요한 아이들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형편이 좋아도, 나빠도, 한부모여도, 다자녀여도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돌봄이라고 하고 그리고 뭔가를 알게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불쌍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맞다고 생각해요” (F, 30대, 남성)

[돌봄 대상의 변화] “(돌봄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뭔가 지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돕는 자고, 이 사람은 도움을 받는 자라고 지정을 해버리니까 어려움(진행자: 스티그마?)이 생기는 거죠**” (F, 30대, 남성)

[돌봄 대상의 변화] “요즘 부부상담도 MBTI가 굉장히 필요해요. **이 정립동 지역구 내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남자 분들이 되게 예민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부부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하도 영역권이 있다 보니까 부부들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부부갈등도 많아요. 그런 부분 안에 그 MBTI에 대한 중재 역할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M, 50대, 여성)

### 3. 동기부여와 피드백 제공

#### 1) 지속적인 피드백 제공과 동기부여

□ 지속적인 피드백제공을 통한 동기부여도 마을돌봄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방

안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돌봄활동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 노력이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갔으며, 어떤 반응과 성과가 있었는지 대한 환류정보(feedback)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돌봄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동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 돌봄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돌봄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유인기제이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신적 보람과 만족 외에 물질적 보상 등에 바람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내가 몸과 물질을 기부하더라도 자기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C, 60대, 남성)

“이번에도 된장 나눔을 하거든요. 어떤 분에게 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L, 50대, 여성)

“그런 피드백은 복지관이 역할을 해주어야죠. 그 가정이 이번에는 고기반찬이 좋으셨대요, 맛있으셨대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어 다음에는 더 맛있게 만들어야겠다는 피드백이 되는 거죠” (H, 30대, 여성)

“뭐 하자고 하면 선뜻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봉사시간을 준다고 해도 딱히.. 그래서 정말 뭐 통장님, 부녀회장님들 뭐 이렇게 하시지만, 보상권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한 번 해봤거든요. 활동하는 거에 대한 보상..” (M, 50대, 여성)

“각 단체마다 몇 명씩을 추천을 해라 이렇게 하던지 해서 우선권<sup>13)</sup>을 주면 좀 참여도가 있지 않을까 더..” (N, 60대, 여성)

“돌봄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공간을 제공해주고

오면 엄마선생님이 숙제를 도울 수 있다든가 그런 걸 하는데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또 적절한 보상이 따르다면 훨씬 그런 게 활성화 되지 않을까요?” (L, 50대, 여성)

“부녀회에서 동 김장 같은 거 다 헤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왜 힘들냐면요, 우리 김장도 안 하는 시절이에요. 아니, 내 김장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와서 봉사를 하라고 시키냐고요. 지금 시절이 이제 봉사 개념(자발성이 강조되는 전통적인 봉사개념)이 예전하고는 많이 바뀌었어요” (L, 50대, 여성)

“내가 다른 어르신들 모시겠다고 나와 있는 자체가 우리 부모님께 불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내 아동도 제대로 못 돌보면서 다른 아이를 돌본다고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의 인격만 생각하나 싶고. 보상차원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도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M, 50대, 여성)

#### 4. 돌봄활성화를 위한 지원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 1) 돌봄 여건 마련, 공간, 장비 지원

- 인터뷰 결과 마을돌봄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공간을 비롯하여 다양한 장비 등의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욕을 시켜드리려면 목욕 공간이 필요하고, 세탁을 헤드리려면 세탁 공간이 필요하고, 반찬을 헤드리려면 주방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 이런 부분 안에서 그걸 오픈해줄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해요” (M, 50대, 여성)

“공간이 있어도 사람이 없다고 하면 사람 사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내 집을 내가 오픈해서 할 수 있는 형태는 안 되거든요” (M, 50대, 여성)

“애들 공부방이라던가” (L, 50대, 여성)

13) 마을돌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일종의 보상형태로 동 또는 구단위의 일자리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의미.

## 2) 통합돌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일부 참여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공간에서 필요한 도움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공간” 마련이 우선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공간측면의 통합보다도 지역사회 돌봄자원의 “통합과 연계”를 통해 지역에서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돌봄자원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조정, 연계하여 돌봄대상자에게 one-stop care가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한 것으로 연구진은 판단하였다.

“영역마다 따로따로 연구 개발 실천하는 것보다는, 어떤 공동 각 기관마다해서 통합을 해서 그것이 유기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과잉활동과 과잉시설이 되지 않게 참여하는 사람은 거기 갇던 칠교게임만 맨날 하면 식상하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나 주관 처들이 있으면, 충분히 주민이 2만 7천명이 살고 있는데 2만 7천명 중에 2천-3천명이 매일 어딘가 (이러한 공간에서) 돌봄의 기능의 수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C, 60대, 남성)

# 제 5 장

##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 마을돌봄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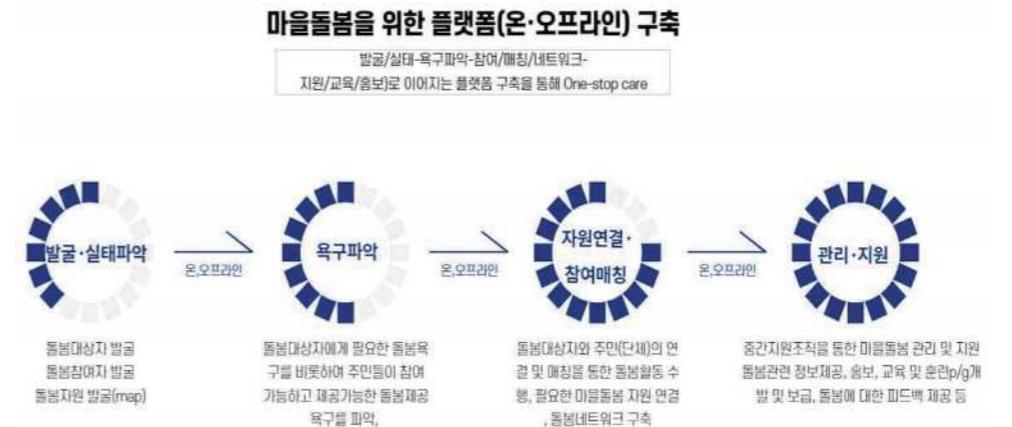


## 제5장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 마을돌봄 활성화 방안

### 1. 온·오프라인 형태의 “듀얼(Dual)돌봄 플랫폼” 구축

-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을돌봄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굴 및 실태파악」, 「육구 파악」, 「참여/매칭/네트워크 구축」, 「관리 및 지원」의 형태로 이뤄지는 온·오프라인 방식의 “듀얼(dual) 돌봄 플랫폼”을 통해 마을돌봄이 체계적인 틀(frame) 안에서 상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

[그림 5-1] 온·오프라인 형태의 “듀얼(Dual) 돌봄 플랫폼” 구축



- 마을 안에 돌봄대상자, 돌봄제공자, 제공 가능한 자원 등을 주기적(예: 일 or 격일단위)으로 업데이트 하고 이 플랫폼 상에서 돌봄신청, 매칭·연결,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 관리 및 지원 등의 절차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플랫폼이 선제적으로 구축된다면 정

림동 마을의 주민참여 및 마을돌봄 활성화는 매우 빠른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step1: 발굴 및 실태파악

□ FGI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주민들은 공식적인 돌봄 제도의 수혜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적절한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계층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또한 특정한 주민에게 돌봄이 집중되는 중복수혜의 현상, 마을 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의 손길이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감을 갖고 있었다. 이는 모두 돌봄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과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로 인한 문제점이다.

□ 플랫폼 구축에서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내고 이를 리스트업(list up)하는 것이다. 정부의 공공부조서비스 대상조건에서 벗어나는 복지사각계층은 함께 거주하는 이웃들의 관심과 관찰을 통해서 발굴될 수 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주민뿐만 아니라 돌봄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향을 갖고 있는 주민, 기존의 돌봄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가용한 돌봄자원으로 가능한 집단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태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주기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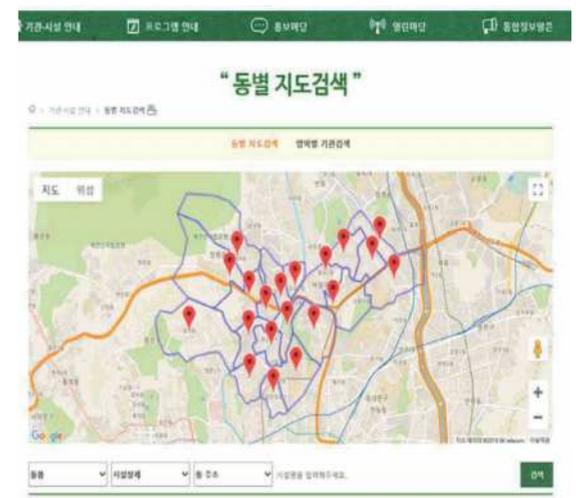
□ 1단계 플랫폼에서는 마을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돌봄자원(기관, 자생단체, 모임)을 파악할 수 있는 돌봄자원지도(map)나 목록을 만드는 작업도 들어가야 한다. 서울시 강북구의 경우 해당지역의 교육청과 연계하여 “마을교육돌봄자원”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목록화(list up)하고 교육돌봄이 필

요한 대상자나 지역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은 마을의 돌봄자원의 위치와 활동내용, 대상, 이용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쉽게 파악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일반주민들은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들의 적성과 역량은 물론 선호와 흥미를 고려한 돌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성북구는 이러한 돌봄자원을 목록화 또는 지도화한 것에 그치지 않고 웹(web)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다양한 돌봄옵션을 기능을 만들어 필요함 마을돌봄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온라인 돌봄 플랫폼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림 5-2] 강북구 마을교육돌봄 자원 지도



[그림 5-3] 온라인 돌봄 플랫폼(성북구 사례)



2) step2: 욕구파악

□ 2019 정림동 마을주민의 돌봄욕구와 FGI 분석결과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도움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돌봄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 중심의 돌봄활동이 이루어지고 돌봄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실제로 필

요로 하는 도움의 욕구가 무엇지에 대한 면밀한 실태파악과 정보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 3) step3: 자원연결 및 참여, 매칭

- 파악된 돌봄대상자와 주민참여자를 매칭·연결하고 관련된 마을 내 돌봄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4) step4: 관리 및 지원

- 돌봄활동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피드백제공(실시간 또는 우수사례 공유), 돌봄 컨설팅 및 상담(Q&A), 정보제공을 비롯하여 홍보, 돌봄대상자 교육 및 훈련p/g 개발 및 보급 등의 관리·지원이 이루어지는 단계로써 이는 중간지원조직(복지관)을 통해 실시될 수 있다.

## 2. 주민의 욕구와 선호를 반영한 마을활동 참여기회 부여

- 2019 정립동 마을주민의 돌봄욕구와 FGI 분석결과,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의 원동력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마을문화(community culture)에 따른 주민들의 높은 유대관계와 결속력이었다. 이처럼 높은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정립동의 독특한 마을문화는 자연발생적인 성격보다는 오랜 기간 시행되어 온 다양한 마을활동에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선(先)활동-후(後)문화” 이자 마을주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인 마을문화와 공동체 정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다양한 마을활동에 보다 많은 마을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접착점을 만들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주지해야 할 점은 마을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는 자신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안현찬·구아영, 2016). 즉 주민들의 관심과 선호,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마을활동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마을돌봄이라는 보다 난이도 높은 마을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 또한 FGI에서 마을돌봄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논의는 풍성하게 제시된 반면, 마을 주민들 간 서로 돌보고 환대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대한 확장적 사유는 다소 미흡하다. 따라서 마을돌봄에 관한 정립동 주민들의 세밀한 요구 조사가 구체적으로 필요함을 제시한다. 2019 정립동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과정에서도 마을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조사한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립동 마을돌봄을 주 포커스로 하여 주민들이 생각하는 마을의 의제들을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마을돌봄 사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사회적 소외계층의 마을돌봄에 관한 요구 조사와 마을돌봄에 관한 일반 주민 요구 조사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앞서 제시한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과 돌봄대상자의 실제적인 욕구파악이 이에 속한다. 특히 일반 주민 요구 조사의 경우 연령별로 구분해 다양한 연령층의 세분화된 요구를 확인하는 과정이 추후 과제로 확인된다.

## 3.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 [일반주민]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적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을공동체의 가치와 중요성, 주민자치, 마을활동과 주민참여의 의의와 중요성, 마을문제 발굴과 해결방안 모색 등과 같이 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력(力)을 증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마을활동가 양성] 마을활동을 이끌어가는 주민리더 양성,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수립, 상담/컨설팅 등의 맞춤형 교육지원 등이 필요하다.
- [돌봄전문가 양성] 전문적인 돌봄 지식과 기술을 습득, 돌봄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동육아(돌봄)나눔터, 사회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지원 및 교육 등이 필요하다.
-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자생단체의 폐쇄성을 해소하고, 주요 주민 및 단체에 대한 의존성 감소와 신규 참여주민 발굴,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에 대한 자발성 강화, 동기부여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FGI에서 마을돌봄의 정의를 수동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에 대부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연구진과 자문회 회의에서도 새로운 마을돌봄의 개념의 변화와 수용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이 제기되었다. 마을돌봄 개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이가 공론화되고 합의하는 장이 우선되면 주민참여를 통한 정립동 마을돌봄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 4. 마을돌봄에 관한 지역 역량 파악

- 본 연구에서는 마을돌봄을 ‘정립동 주민들이 주민들의 삶을 서로 돌보는 공동체’로 확장적으로 규정한다. FGI 분석결과에서는 정립동에 산재하는 다양한 인적, 조직, 물적 자산 혹은 역량을 파악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연계하는 매개 역할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때문에 필요한 인적, 물적, 정보, 사업에 관한 자원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마을돌봄 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기초 자료 조사가 필요함이 제기된다.

- 이를 위해선 첫째로, 마을 주민 조직의 역량 조사가 필요하다. 정립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모임, 풀뿌리 주민 조직, 단체, 기관들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마을돌봄과 관련하여 어떤 마을 활동에 어떤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 생성이 필요하다.
- 둘째로, 마을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역량 조사가 필요하다. 마을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마을돌봄에 뜻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찾고 연결하여 이들이 어떤 경험과 재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조사가 필요하다.
- 이러한 조사과정을 마을 안에서 실시하려면 마을돌봄에 관한 주민 요구 조사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주민행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며 정립동의 경우, 2019 정립동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총회를 마을축제와 병행해 성공적으로 진행해 본 선(先)경험이 있다.

#### 5. 마을돌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

- 마을활동가, 마을돌봄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을활동 뿐만 아니라 마을돌봄의 핵심적인 역할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마을돌봄을 조정하는 허브(hub)기구로서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마을돌봄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 앞서 언급한 웹기반의 플랫폼과 오프라인 플랫폼(dual platform)의 관리 및 운영 주체는 사실 상 “중간지원조직”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초기 마을돌봄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능하는 데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중간지원조직은 마을돌봄 활동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제공(실시간, 우수사례 공유 등), 돌봄 컨설팅 및

상담(Q&A), 정보제공을 비롯하여 홍보, 돌봄 대상자 교육 및 훈련 p/g 개발 및 보급 등의 관리·지원업무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거점복지관 등 지역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 적절하다.

- 온·오프인 돌봄 플랫폼이 정착하고 안정화된 이후단계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단체에게 관리권한을 이양하는 것도 염두 해 둘 필요가 있다.

### 6. 마을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

□ 앞서 돌봄지원을 위한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한 것처럼 실제 마을돌봄이 구현되려면 작은 일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작은 시작점 : 네트워크 및 관계형성’ 을 위한 ‘문턱 낮은 참여거리’ 즉 주민참여의 계기 마련의 필요성이 FGI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를 위해선 통합 돌봄을 위한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며 마을돌봄과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마을돌봄에 관한 마을 포럼 혹은 마을 회의와 같은 정기적인 논의 구조 속에서 마을돌봄에 관한 이슈를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을만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역량이 결합될 수 있다.

□ ‘마을의 공유 공간 지도 만들기’ 와 같은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 연결되어 일상적인 관계가 돈독해지고 서로의 삶을 돌보는 ‘자발적 네트워크’ 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진행 중인 정책 사업(도시재생, 서구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자치회 등)과 관련한 주민교육과 인적, 물적 자원 연계, 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정립동 마을복지계획(2020~2022)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모니터링 되고 점검될 수 있을 것이며 이후 장기계획도 수립될 수 있다.

□ 이처럼 주민친화적인 마을정기협의과정을 구조화 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 이슈와 의제를 찾을 수 있게 발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장(場)이 중요하다. 누구나 올 수 있는 정기적인 마을회의를 통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마을돌봄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가능해 질 수 있어야 한다. 주민참여학습 동아리를 통해 좋은 책 소개, 동네 책모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모이고 이야기 나누며 활동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고, 학습을 통한 자기돌봄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자기 돌봄 자체가 곧 주민역량강화라고도 볼 수 있다. 자기재능으로 관계 안에서 돌보며 발전할 수 있다. 즉 주민 간 협의구조의 장(場)을 만들어 자기돌봄이 가능하도록 학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품앗이 학습 등 생활전반에서 돌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함을 연구진은 판단하였다.

### 7. 주민 참여형 마을돌봄 아이템 개발과 마을일자리 창출

□ 해당마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마을돌봄 아이템을 개발하고 이를 담당할 인력을 마을주민에게 일자리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마을돌봄 활성화의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존의 공공돌봄 제도나 민간기관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틈새돌봄 서비스” 를 주민이 개발하고 이를 일자리 화하는 것이다.

□ 정부는 돌봄 서비스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돌봄경제(Care Economy)’ 를 활성화, 사회서비스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작년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가 대표적인 돌봄경제 모델이다. 실제로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 하에서 지자체별 “선도사업” 을 선정하고 이를 수행할 새로운 돌봄 인력을 창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sup>14)</sup>.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발견된다. 서울시 중구는 주민

14) 총 5개 영역(보건의료, 재가복지, 주거환경, 커뮤니티, 시설인프라) 27개의 시범 선도사업에서 1,122명의 돌봄인력을 창출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19,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8개 지자체 주요사업 내용).

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를 일자리 형태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로 돌봄 The 프로젝트” 라는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FGI 분석결과, 많은 주민들은 돌봄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돌봄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유인기제이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생각하는 보상은 정신적 보람과 만족 외에 물질적 보상 등에 바람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중구의 사례와 같이 구나 동 단위에서 마을에서 필요한 돌봄 아이템을 주역주민이 스스로 발굴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 또한 2019 정림동 마을복지계획수립을 위한 마을자원조사에서 확인된 마을 돌봄 필요서비스를 주민 참여형 마을돌봄 아이템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이로써 주민참여와 마을자원을 활용해 돌봄문제를 해결하고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돌봄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모범적인 사회적경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연구진은 판단하였다.

## 참고문헌 부 록



## 참고문헌

- 경기도(2020). 경기도 2020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공고
- 김미희(2017) “대학연계형 연속보호체계형 노인주거환경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분석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8(2): 75-83, 2017
- 김지영 외(2019). 대전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대전복지재단
- 보건복지부(2018). 지역사회 중심 복지구현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 석재은(2018) “커뮤니티 케어와 장기요양 정책과제”, 월간 복지동향, (238), 28-33
- 유해미, 김문정 (2013). 지역사회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임정기, 홍세영 (2019)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적 모델 연구 : 대학연계형 은퇴자 공동체 프로그램”, 노인복지연구 74(2), 2019.6, 219-253
- 임진섭 외(2019), 대학을 활용한 커뮤니티 케어 연구계획서.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신청서.
- 여가부(2020). 보도자료: 여가부, 주민 돌봄 공동체 만들기 본격 추진.
- 장수정(2010). 지역 돌봄공동체에 대한 연구: 그 가능성과 정책적 대안을 위한 탐색. 2010년 한국연구재단 신진교수지원 결과보고서.
- 정립종합사회복지관(2019). 2019 정립동 마을복지계획수립 ‘사람 꽃, 정립동 마을을 그린다.’
- 진미정, 노신애, 김아영(2018), 지역기반 돌봄공동체 모델 비교와 가족정책적 시사점,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8.11, 211-212(2 pages)
-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2020).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부록 1] 연구진 회의 및 주요 추진 흐름

구분	순서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비고
연구진 회의 및 주요 추진 흐름	1차	2020.04.16. 18:30~19:50	정림종합 사회복지관	김동기, 임진섭, 지희숙, 강영선, 최승진, 이리나, 권진주, 김바울	2020 참여형 연구 지원사업 공모 관련 협의 및 정림동 마을복지계획 실행 논의 등	연구주제 선정협의 & 책임연구 등 연구팀 구성
	-	2020.04.22.	정림종합 사회복지관	임진섭, 이리나, 권진주	지역복지 아카데미 신청서 제출	대전복지재단 제출
	2차	2020.05.12. 14:00~15:00	정림종합 사회복지관	임진섭, 강영선, 이리나, 권진주	공모사업 관련 착수보고회 준비	
	3차	2020.05.14. 15:00~15:30	정림종합 사회복지관	임진섭, 이리나, 권진주	공모사업 관련 착수보고회 참여	
	4차	2020.05.19. 10:00~12:00	정림종합 사회복지관	임진섭, 양봉석, 강영선, 이리나, 권진주	충남대 커뮤니케이터 센터 미팅	연구 수행 관련 협의 등
	5차	2020.06.23. 16:30~18:00	정림종합 사회복지관	임진섭, 한재규, 강영선, 권진주, 이리나, 김바울	세부연구주제 설정 및 포커스 재논의, 연구방법 수정	
	-	2020.06.30.	정림종합 사회복지관	임진섭, 이리나, 권진주	연구진행상황보고	대전복지재단 제출
	6차	2020.07.27. 14:00~16:00	정림종합 사회복지관	임진섭, 강영선, 이리나, 권진주, 김바울	FGI 설계	
	7차	2020.08.04. 10:0~13:00	마을교육 연구소	임진섭, 지희숙, 김미순, 이리나, 권진주	FGI 구성 및 설계, 질문지(안) 구성 및 자문, 역할조율	
	-	2020.10.30.	정림종합 사회복지관	임진섭, 이리나, 권진주	연구진행상황보고	대전복지재단 제출
	8차	2020.11.13. 11:00~13:00	배재대학교	임진섭, 강영선, 이리나, 권진주	목차 구성 및 작성(안) 마련, 역할 및 일정조율	
9차	2020.11.17. 18:00~19:30	정림종합 사회복지관	김바울, 이광수, 황지영, 정수락, 윤세영, 신예은, 김미경, 한나라, 박남순, 서정옥, 이리나, 권진주	집필 점검 (FGI 도출개념 협의)	종사자 대상 점검 및 FGI 실시	
10차	2020.11.25. 16:00~18:00	정림종합 사회복지관	김동기, 임진섭, 지희숙, 강영선, 이리나, 권진주, 김바울, 이광수	점검 및 자문		
11차	2020.12.2. 11:00~13:00	정림종합 사회복지관	임진섭, 조정하, 권진주, 이리나	집필 점검 (FGI 녹취록 작업, 편집 등)		

□ 회의록(1차~11차)

## 회 의 록(1차)

일 시	2020. 4. 16(목)	시 간	18:30 ~ 19:50	장 소	정림종합사회 복지관
참 석 자	(총8명) 김동기 교수, 임진섭 교수, 지희숙 박사, 정림종합사회복지관 강영선 관장, 최승진 과장, 이리나 팀장, 권진주 팀장, 김바울 팀장			불 참	정림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안건	2020 지역사회복지육구조사와 관련한 참여형 연구 지원사업 공모 관련 협의 및 정림동 마을복지계획 실행 논의 등				
논의내용	<p>○ 참여형 연구 지원사업 “대전 지역복지 아카데미 공고” 추진 관련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시 복지현안 또는 복지정책 관련 자유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을 안내하고 기존에 확인 한 공모사업의 취지와 배경 등을 공유함.</li> <li>- 참여 한 전문연구진들은 지금 복지관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이즈의 연구로 진행하고 대전시 전체를 위한 정책제안 등의 연구주제보다는 복지관과 지역의 상황에 맞게 추진될 수 있는 연구주제로 결정하는 것으로 우선 협의함.</li> <li>- 또한,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 할 수 있는 주제 연구가 의미 있겠다는 의견과 함께 정림동만의 고유성과는 작년에 완성한 정림동 마을복지계획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제안함. 때문에 정림동 마을복지계획 실행관련 모니터링과 성과 또는 과정평가 연구가 매우 유의미할 것이며 프로그램으로 그치지 않고 연구화 될 수 있도록 함이 매우 중요함이 강조됨.</li> <li>- 또 다른 의견으로 마을 만들기의 핵심은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이라고 볼 수 있기에 정림동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정신과 주민의식은 무엇일지에 대한 양적 질적 혼합연구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도출됨. 관련해서 2017년에 복지관에서 권역 4개동 주민리더를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이와 결부해서 연구가 이어질 수 있음도 확인함.</li> <li>- 작년도 정림동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조사했던 조사데이터를 활용해서 2차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되었으며, 대상을 협의로 조정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어르신 등을 중점으로 질적 조사를 수행하는 방안도 논의됨.</li> <li>- “아카데미” 라는 공고 취지에 맞게 마을 내 다양한 기관/시설/구성원 간 학습모임을 구성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과정도 의미 있음이 제시됨.</li> <li>- 다양한 이야기가 논의 되었지만, 무엇보다 지난 마을복지계획에서 수립되었던 마을의 돌봄 체계 연구가 가장 시기적으로도 필요함이 공통적으로 협의됨.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역 내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마을 안에서 다양한 단체들과 기관들 주민들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내는 방안을 마련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조사를 위해 접근하는 통로도 마을 내 카페, 미용실, 식당 등의 마을 공간에서 이뤄질 때 얻어지는 정보력이 살아있는 정보라고 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의 끝에 “마을돌봄” 을 연구키워드로 하여 정림동을 조사범위로 한 마을돌봄 체계연구를 실시하기로 함.</li> <li>- 기본적인 현황조사 및 욕구조사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을 찾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며 작업이 필요함. 정림동 주민들이 마을 곳곳에 더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정림동 내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정의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li> <li>- 최종적으로 “정림동 마을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이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할 연구주제로 선정협의를 마침.</li> <li>- 연구방법은 기본적인 양적조사와 심층적인 질적조사가 병행되며, 질적조사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함.</li> <li>- 연구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배재대학교 실버보건학과 임진섭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역할하고, 김동기·지희숙 박사는 자문위원, 정림복지관 실무진들은 실무인력으로 함께하는 것으로 함.</li> </ul> <p>○ 추후 일정 협의 및 역할분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안 초안작성 : 임진섭교수(4/21)</li> <li>-최종안 완성 및 제출 : 이리나(4/22)</li> </ul>
--

## 회의록(2차)

일시	2020. 5. 12(화)	시간	17:00 ~ 18:30	장소	정림종합사회복지관
참석자	(총4명) 임진섭 교수(배재대 실버보건학과), 정림종합사회복지관 강영선 관장, 권진주·이리나			불참	-
회의안건	2020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와 관련한 참여형 연구 지원사업 착수보고회 준비 회의				
논의내용	<p>○ 참여형 연구 지원사업 착수보고회 준비 : 연구방향 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주체: 마을리더들(통장을 비롯한 자생단체 등)</li> <li>- 마을돌봄체계를 마련할 때 핵심주체 → 마을리더들이 얼마나 참여 할 수 있는가</li> <li>- 단순 서비스 수요확인 또는 욕구조사가 아닌 돌봄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는 것</li> <li>- 돌봄수요자의 욕구 확인도 의미 있지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어떤 틈새서비스가 필요한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 틈새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 등. 다만 대상자 선정이 매우 어렵고, 선정해서 조사하기도 쉽지 않은 항목임. (ex. 정림동 마을협동조합모임에서 고민 했던 맞벌이가정을 위한 아동돌봄 : 방과 후 돌봄(식사, 간식, 숙제 등)이 필요한 틈새 돌봄인데 이 서비스가 동네에서 얼마나 필요할지 가늠하기 어려움. 질병이 있는 어르신이 갑작스레 병원을 가야하는데 동행할 가족이 없을 때 이웃이 함께 동행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는데,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거동이 힘든 재가어르신들이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게 동행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등) 선후 관계로 보면 수요를 우선 확인하고 공급을 만들어야 하나 제한된 연구기간 및 예산으로 쉽지 않음. 추후 보완 연구로 남겨둘 필요 있음.</li> <li>- 마을리더(단체)들을 공급자로 정의하고, 마을돌봄에 대한 의식수준, 참여 의향, 역량확인(자원 등)을 위한 방향으로 설계. 활성화 방안은 결국 교육이야기가 주가 될 것이고 뻘한 대안이 나오겠지만 주민으로부터 도출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결과임. 또한, 개인의 역량, 조직 및 단체의 역량, 정림동 만의 마을력이 무엇일지를 뽑아내는 것도 염두에 둘 것.</li> <li>- 돌봄과 관련한 구체적인 서비스 및 방안마련이 아니라,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li> <li>- 의미 있는 000과 연계하고 결합하여 시스템화 되는 것.</li> <li>- 정림동행정복지센터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 단체 회원명단 확인 및 초청 등.</li> </ul> <p>○ 예상되는 방향(가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들은 정림동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을 것. 배경은 벚꽃축제, 수릿들축제, 정림동 마을복지계획의 경험.</li> <li>- 마을의 어려움을 잘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 자부심이 높은 편일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물으면 대답 어려울 것. 범위를 좁혀서 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필요한 역할과 서비스를 일부 정의 하고 물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며, 거점기관인 복지관에서의 역할도 얻어낼 수 있음.</li> </ul> <p>○ 참고자료 : 근거로 활용</p> <p>: 정림동 마을복지계획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내 주민력 강화 지원 사례로, 대전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연구 중 지역공동체와 마을돌봄의 결합 모형의 사례로 수록되어 있음.</p> <p>○ 추후 일정 조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수보고회 이후, 피드백 반영해서 연구방향 조정 및 확립</li> </ul>
---

## 회의록(3차)

일시	2020. 5. 14(목)	시간	15:00 ~ 15:30	장소	대전 복지재단
참석자	(총3명) 임진섭 교수(배재대 실버보건학과), 정림종합사회복지관 권진주·이리나 팀장			불참	-
회의안건	연구 지원사업 추진 착수보고회 피드백 공유				
논의내용	<p>○ 착수보고회 자문 및 토론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림동을 지정하는 이유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계획서에 담기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는 독자가 볼 때 연구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림동을 특정한 사유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li> <li>- 수정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에서 정림동 지정관련 내용 보완이 필요함.</li> </ul> <p>: 정림동의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으며 그 지역 주민들 마을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편임. 정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사업 하면서 주민역량 강화교육 및 사업을 많이 진행함에 따라 공동체 의식이 높은 편임. 실제 연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정림동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음을 보고서에 담아낼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돌봄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영역에서도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상별 접근을 할 때도 유사사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li> <li>- 대전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한 마을 기반 공동체 운영 강화하는 것이 현재의 방향성이며, 서구에서는 주민자치기반 공동체 기반 확산, 대전복지재단에서는 대전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가 진행되었음.</li> </ul> <p>논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림동에서는 작년에 대전지역 최초로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에도 수록되었음.</li> <li>- 연구의 결과는 정림동과 유사한 형태의 마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전체 마을 돌봄서비스 사업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임.</li> <li>- 마을돌봄은 가족복지적 차원까지 포괄할 수 있을 것임.</li> <li>- 행안부에서도 모범적인 마을공동체의 성공요인을 찾아 일반화 가능성을 발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정림동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연구보다는 다른 지역에서도 함께 따라할 수 있는 절차적 과정을 발견하는 연구가 진행되면 좋을 것임.</li> <li>- 작년에 마을 계획을 세울 때 이미 돌봄수요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므로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초점을 둔 연구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리더나 자생단체에 포커스를 둔 FGI연구에 초점을 두는 방향 고려.</li> <li>- 대상별, 리더별, 자생단체별 FGI진행 시 더 공을 들여서(대상별 7-8명 정도 지정 등) 진행하여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임.</li> </ul> <p>∴ 착수보고회 피드백 내용을 정리하여 자문위원 등 연구진들과 최종 협의 필요(설문조사 생략, 초점집단인터뷰 강화, FGI 초대 대상과 관련한 협의 등)</p>				

## 회의록(4차)

일시	2020. 5. 19(화)	시간	10:00 ~ 12:00	장소	정림종합 사회복지관
참석자	(총5명) 양봉석 부센터장(충남대학교 커뮤니케어센터), 임진섭 교수(배재대 실버보건학과), 정림종합사회복지관 강영선 관장, 권진주·이리나 팀장			불참	-
회의안건	공동연구 관련 논의				
논의내용	<p>○ 공동연구 관련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대학교 링크사업단 산하의 지역특성화 센터의 커뮤니케어와 관련한 연구 및 컨설팅 기관에서 대전시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참여인력 역량강화 교육과정 개발 중에 있음.</li> <li>- 작년 정림동에서 실시한 2019 정림동 마을복지계획과 2020 정림동 마을리더를 중심으로 한 마을돌봄 체계연구가 함께 결합하거나 공동연구가 가능한지 등을 협의하기 위함.</li> </ul> <p>○ 충남대학교 커뮤니케어센터의 기존 작업 경과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들레협동조합 중심으로 민간주도의 커뮤니케어 시스템화(모델링)작업을 2년 간 진행해 봄.</li> <li>- 2019년에 대전복지재단과 선도사업을 진행코자 하였는데 잘 되지 않았고, 연구팀에서 대전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실시하는 과정에 일부 연계작업을 함.</li> <li>- 2020에는 시범사업과 연구사업 목표를 두고 있음. (연구사업 : 교육과정 개발)</li> <li>- 교육과정 개발은 충남대학교 커뮤니케어센터가 하고, 향후 운영은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된 상황.</li> <li>- 교육대상 : 시범사업 참여인력을 위한 교육. 3년간 단계적으로 준비 하고자 계획 중임.</li> <li>- 자치구별로 추진단이 발족 되어야 함을 재단에 제안한 상황. 자치구 내에 추진단을 운영 할 커뮤니티 전담부서-과가 만들어 져야 함. 현재는 대덕구에만 있는 상황.</li> <li>- 체계전환, 인력보강 등이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의 통합돌봄 기본 사업이 가이드라인임.</li> <li>- 원리/개념/대전형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정리하여 대전 독자모델, 대전형 모델을 만들고자 함.</li> <li>- 범위는 동 단위이며, 3대 서비스 체계(건강의료, 주거, 요양돌봄) 구축 및 연계(통합돌봄 체계)로 이뤄질 예정.</li> </ul> <p>① 건강의료 - 보건 / 예방과 증진이 기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발생 시 2차 3차 의료기관에 연결되어서 시급하게 해결</li> <li>: 문제 해결 후, 방문의료를 통해 관리(의사, 간호사, 작업치료, 재활치료 등 포함)</li> <li>: 보건소 산하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플랫폼이 되어 서비스 제공기관과 네트워크하고 의뢰 관리</li> </ul>				

	<p>: 건강관리지원센터 설립(자치구-생활권-동 순)</p> <p>② 주거 - 주거 개보수, 주거관리, 보조기구 설치 등 / 자가 생활 어려울 시 그룹홈 또는 시설로 연계</p> <p>: 국토부 - 주거복지센터 설치 계획이 확장되고 있음. 주거 복지를 위한 자가 생활 가능여부 DB 구축</p> <p>: 광역-자치구(생활권) 순</p> <p>③ 요양 돌봄과 통합돌봄 체계 구축</p> <p>: 서비스제공기관 네트워크, 사정 및 연계 필요 / 종합재가센터 필요한 상황</p> <p>: 종합사회복지관을 종합재가센터화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음 / 플랫폼 역할. 3종복지관(복지관, 장애인)과도 연계.</p> <p>: 맞춤형복지팀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개편 - 인력을 7명으로 증원</p> <p>: 문제, 욕구 반영 높여야 함.</p> <p>: 동 지사협,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 협업해서 마을복지계획 등 커뮤니티케어 관련한 동 자치계획 마련. 민관협력, 지역자원 활용. 동단위 계획이 구단위 계획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p> <p>- 체계화(가동) : 교육과정, 명세표(목적-목표 등), 교재개발까지는 아님 (후속작업 제언).</p> <p>- 추진배경은 정부 제안의 기본계획과 통합돌봄으로 갈 것.</p> <p>- 모델과 사례를 제시하고 동 맞춤형 설계 지원(컨설팅)을 담아낼 예정. 컨설턴트 구성은 민관이 협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케어메니저 역량강화에 포커스를 둘 예정. ex. 공공주도 민관협력형 케어메니지먼트(남양주시-무한돌봄, 희망지원단)</p> <p>- 거버넌스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 계획임. 필수와 선택과목으로 나눠서 권장계획.</p> <p>- 목표 : 사회서비스 관련 민-관 공통의 교육과정 신설</p> <p>- 기대효과 : 교육받고 맞춤형으로 자치형 동-모델 만들 수 있도록</p> <p>- 5대 구 선도사업/시범사업 준비 중이나 중구, 동구는 현재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 됨.</p> <p>- 3대구에서 대덕구는 법동과 민들레 협동조합, 유성구는 온천2동, 서구는 정림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p> <p>- 향후 재편 되는 흐름 속에서 플랫폼적인 사고, 기능전환 준비가 필요함.</p> <p>○ <b>충남대학교 커뮤니티케어센터에서 제안하는 역할 확인</b></p> <p>1. 시범사업 참여 제안. 공모는 9월로 예상됨. 시범사업 참여지역으로 활동 요청.</p> <p>2. 추진단 구성(서구-복지정책과). 사전논의 후 구축되어야 함. 동, 복지 관, 보건소 협업이 필요.</p> <p>3. 시범사업 과정 연구로 되어야 위 과정이 가능하며, 우선적으로 교육과정 개발 연계.</p> <p>: 복지관이 중심이 되어 커뮤니티케어 역할 중 해당서비스 시스템(모델링) 구축 사례로 정</p>
--	---

	<p>림동을 활용하고 싶으며, 이를 위한 교육으로는 어떤 것들이 개발되어야 하는지는 염두에 두고자 함. 연구결과를 대전시에 제안하여 확장할 계획.</p> <p>○ <b>정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소개 및 제안</b></p> <p>- 우리의 연구는 대전복지재단의 참여형 연구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보조 받아 진행할 계획.</p> <p>- 지역의 주민들이 자원이 되어 공급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가 연구의 출발점. 우선순위는 돌봄이슈이며, 노인과 장애인 중심으로 좁혀 살필 수도 있음.</p> <p>- 우리 마을의 주민 리더들이 갖고 있는 인식수준과 역량들을 파악하고 판을 짜 주는 것(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연구의 핵심.</p> <p>- 마을돌봄을 위해서는 공식체계 외 비공식체계 조직 매우 중요. ex. 공동체조직=자원봉사 조직=노노케어 등</p> <p>- 비공식 자원을 물색 하고 조직화 되지 않은 각 개인을 조직화하는 방법 들을 고안할 예정. ex. 자원봉사활동으로 묶을 수도 있고, 일자리 형태로 연결 할 수도 있음.</p> <p>- 공통의 대상은 커뮤니티케어 관계자라는 부분임 (우리는 지역리더로 봄)</p> <p>- 교육대상자들이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총론으로 구성되고, 요양 돌봄 등의 이슈가 개론 또는 각론으로 개발되면 좋을 듯.</p> <p>- 커뮤니티케어에서 설명하는 요양 돌봄의 개념-정의를, 실천현장(동)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개념-정의와의 갭 차이가 존재할 것이 우려됨. 이 경우 관련 교육과정과 교육대상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음. 때문에 지역에서는 요양 돌봄을 총론으로, 각론으로는 요양 돌봄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 추가 되는 방향이 적절할 수도 있겠음을 제안함.</p>
--	--

## 회의록(5차)

일시	2020. 6. 23(화)	시간	16:30 ~ 18:00	장소	정림종합사회복지관
참석자	(총6명) 임진섭 교수(배재대 실버보건학과), 한재규 팀장(정림동행정복지센터), 정림종합사회복지관 강영선 관장, 권진주·이리나·김바울 팀장		불참	-	
회의안건	2020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와 관련한 참여형 연구 지원사업 추진 관련 협의				
논의내용	<p>○ 세부연구주제 설정 및 포커스 재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림동만의 문화를 면밀하게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함.</li> <li>- 돌봄체계 구축 전에 알아내야 할 것들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계이고 과제라는 의견이 있었음. 현재도 마을돌봄체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음. 자생단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고 해야 함에도 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음. 형식적으로 제시 되는 체계구축연구에 그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협의함. 때문에 요인연구가 중요할 수 있음.</li> <li>- 결국 연구 결과 및 제언은 교육과 역량강화로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림동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교육과 필요한 역량교육의 수준,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이후 정림동에서 펼쳐지는 추진 사업 등의 근거가 될 수 있음.</li> <li>- 정림동은 타 동과는 다르게 자생단체 연합이 있음. 그 구심점은 벚꽃축제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정림동만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음.</li> <li>- 또한, 정림복지관의 지역조직화 사업(수밋들축제 주민준비위원회, 정림동 마을복지계획단 등) 추진과 관련해 정림동에서 역할 하는 기관의 이야기도 기술되어야함. 타 동에서 벤치마킹 할 때, 단순히 주민력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주민력을 발견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 기관이나 단체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봄.</li> <li>- 정림동만의 원동력, 성공요인을 찾아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최종 협의함.</li> </ul> <p>∴ 최종 선정 주제</p> <p><b>마을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선결요인 분석, 정림동 사례를 중심으로</b></p> <p>○ 연구방법 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조사 생략</li> <li>: 착수보고회에서도 설문조사 생략과 관련한 권고를 받았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설문조사 진행의 어려움 뿐 아니라 기존 17년에 본 기관에서 수행했던 데이터(지역리더를 중심으로 한 지역복지욕구조사)를 활용이 가능해 생략기로 협의함.</li> <li>- 초점집단인터뷰 강화</li> <li>: 6명*2회*2그룹으로 구성하여 각 그룹에 초대할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li> </ul>				

<p>초대하는 대상자에게는 질문지를 우선 전달하여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함.</p> <p>: 또한, 필요하다면 인터뷰 전 사전 개별인터뷰가 병행될 수도 있음.</p> <p>: 질문지 설계가 매우 중요하며, 본 과정과 관련한 자문회의를 사전에 가질 것.</p> <p>- 초점집단인터뷰 진행 관련 협의</p> <p>: 7-8월 중에 질문지 설계와 대상자 초대, 자문회의 등이 선행되고 8-9월에는 FGI가 될 수 있도록 준비.</p> <p>: 인터뷰어는 정림동과 각 조직 및 단체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강영선 관장이 실시하고, 설계 및 분석은 임진섭 교수와 지희숙 박사가 역할 할 수 있도록 함.</p> <p>: 코딩 및 실무지원은 정림종합사회복지관 팀장(권진주, 이리나)들이 역할 할 것.</p> <p>- FGI 초대 대상과 관련한 협의</p> <p>: 기존 자생단체(바르게살기위원회, 방위협의회, 복지만두레, 새마을부녀회, 자녀안심협의회, 자원봉사회, 자율방범대(남성/여성), 적십자봉사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협의회)와 기타 정림동의 다양한 주민조직(수밋들어울벗, 협동조합모임, 정림동주민협의회, 상가번영회, 수밋들축제주민준비위원회, 마을복지계획단)에서 초대할 것.</p> <p>- 기타 자료정리 : 사례연구 &amp; 문헌연구</p> <p>: 마을주민 중심의 돌봄사례 조사(해외 및 국내)가 선행되어야 함.</p> <p>: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이혜림)에게 문의해서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도 좋음. 범동 협동조합사례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p> <p>- 우선과제 : 질문지 구성 (7/3까지/ 복지관에서 선 고민 후, 임진섭 교수 전달)</p> <p>ex. 정림동은 주민참여 활성화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그 요인은 무엇일까?, 정림동만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 원동력은 왜 생겨났는가?, 어떤 것들 때문에 그 원동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어떡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원동력을 가질 수 있을까?, 마을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실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마을 활동을 시작하게 된 개인의 동기는 무엇인가?, 마을 활동을 지속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우리 마을 안에서 자생적으로 서로 돌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가?</p> <p>○ 참여형 연구 지원사업(대전 지역복지 아카데미) 연구진행상황 보고</p> <p>- 참여형 연구 지원사업과 관련한 연구진행상황 보고 범위를 논의하고(설문조사 생략, 자문회의 정상수행, FGI 일정조율 등) 중간점검 일정을 확인함(8월 3-4주 차).</p> <p>○ 추후 일정 조율</p> <p>- 7월 중순 이후, 질문지 설계 및 FGI 초대대상 협의 등 자문회의 실시 예정</p>
--

## 회의록(6차)

일시	2020. 7. 27(월)	시간	16:00 ~ 17:30	장소	정림종합사회복지관
참석자	(총4명) 임진섭 교수(배재대 실버보건학과), 정림종합사회복지관 강영선 관장, 이리나·김바울 팀장			불참	-
회의안건	2020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추진 관련 협의				
논의내용	<p>○ 연구의 포커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돌봄체계연구는 서브 포커스</li> <li>- 주 포커스는 정림동 주민들은 왜 마을활동에 자발적인가! 원동력을 찾아내는 것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음. 개인적 요인보다는 지역적 요인.</li> <li>- 핵심 : 정림동의 원동력, 그리고 이를 어떻게 돌봄으로 가져갈까</li> </ul> <p>○ FGI 추진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GI 대상자에 대한 사전정보처리 필요</li> <li>- FGI에 초대되는 대상자에게 연구와 관련한 사전설명을 충분히 해야 함</li> <li>- FGI 핵심질문은 5-6개로 하고, 파생질문 2-3개가 연결될 수 있음</li> <li>- 질문지 언어를 쉽게 해야 함</li> <li>-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성을 고려해 3명씩 4그룹으로 변경해서 진행하는 방안으로 수정</li> </ul> <p>○ 추후 일정 조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초 경 자문위원(지희숙 박사)과의 미팅을 통해 자문 받을 것</li> <li>- 8월 중순부터 1차 FGI 진행</li> <li>- 1차 FGI 진행 후, 전체 연구진 미팅</li> </ul>				

## 회의록(7차)

일시	2020. 8. 4(화)	시간	10:00 ~ 13:00	장소	마을교육연구소
참석자	(총 6명) 임진섭 교수(배재대 실버보건학과), 지희숙 대표(지역교육다움), 김미순 소장(마을교육연구소), 정림종합사회복지관 강영선 관장, 권진주·이리나 팀장			불참	-
회의안건	FGI(Focus Group Interview) 구성 및 설계				
논의내용	<p>○ FGI 구성 및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 : 3-4명*4개 팀 구성, 2시간 내외</li> <li>- 대상 : 마을리더 및 주민(자생단체 회원, 주민조직 등)</li> <li>`1 그룹) 학부모회, 상인회, 카페사장, 학원 등 마을활동이 미미한 주민 : 면접자-지희숙 박사</li> <li>`2 그룹) 자생단체 활동을 많이 해 온 마을리더 : 면접자-임진섭 교수</li> <li>`3 그룹) 자생단체 활동은 미미하나, 마을 활동경험이 다수인 마을리더 : 면접자-강영선 관장</li> <li>`4 그룹) 마을 활동경험이 많은 주민 : 면접자-이리나 팀장</li> <li>- 주요내용 : 마을 결집력, 주민참여의 힘, 힘의 원천, 성공요인을 찾고 마을돌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도출</li> <li>- 시기 : 8월 중 1그룹 실시 (8/18이후), 9월 중으로 마무리</li> <li>- 장소 : 복지관, 마을교육연구소 등</li> </ul> <p>○ 질문지구성 관련 의견나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활동 참여, 결집력의 힘 (주민참여활성화)</li> <li>- 정림동만의 독특한 특색과 힘을 찾아내는 것이 FGI로만 확인하기는 어려움</li> <li>- 기존 활동력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협의함</li> <li>- 돌봄체계 구축, 활성화 방안에서 기본적으로 마을돌봄의 대상,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여 기존자료 활용기로 함.</li> <li>- 정림동 특색을 확인하는 작업 또한 기존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함.</li> <li>- FGI에서는 방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협의함.</li> <li>- FGI 참여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인터뷰에 응할 것이고, 인터뷰 이후 연구진이 잘 도출해내는 후속작업이 필요함. 때문에 명확한 질문 설계가 필요.</li> <li>-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마을돌봄영역에 집중하고 주민의 이야기 속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인 돌봄과 관련한 개요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며 돌봄영역을 주민의 참여영역으로 살필 것.</li> <li>- FGI는 마을 활성화 방안을 질문으로 구조화 할 것(5개 이내)</li> <li>-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각 FGI 참여인원, 단체의 특징에 맞게 질문지 재구성 또한 사전 작업 되어야 함.</li> <li>- 질문에 즉각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참여자에게 연구배경 설명 충분 하게 되어야 함.</li> <li>- 마을참여 활성화와 관련한 주민의 이야기를 인터뷰하려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마을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 또는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등으로 질문하여야 함. 인터뷰 결과를 통해 정립된 주민들이 마을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는 원동력을 연구진이 찾아내고 분석하는 후속작업이 필요함.</li> <li>- 마을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주민인터뷰를 통해 묻고 알아내는 도출해 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함.</li> <li>- 또한, 마을 일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와 각 단체 및 조직 또는 개인 간 연계방안과 애로사항도 끌어내고 나아가 각자가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답변으로 연결하는 단계로 협의함.</li> <li>- 마을돌봄과 관련해서는 기존 연구 자료를 토대로 조작적 정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 설명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복지관에서) 인터뷰 시에는 초대된 주민이 전체 주민을 대표하여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여야 함.</li> </ul> <p><b>○ 질문지 구성(안)</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립동은 주민참여 활성화(대표사업)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 받는데, 원동력(하게 된 동기,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상답변 : 복지관 역할-참여꺼리 부여, 공간 등)</li> <li>2. 활동을 하면서 갈등과 애로사항도 있었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갈등해결)</li> <li>3. 정립동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마을 활동은 주민들의 참여로 이뤄지고 있는데, 어떤 도움이 있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마을 활동에 참여 할 수 있을까?(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사전작업) 지난 마을돌봄 결과 공유</li> <li>4. 마을돌봄이 가장 필요한 주민들은 누구일까? 우리 단체는 마을돌봄을 위해 어떻게 연계 협력을 할 수 있을까? 마을돌봄을 위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우리의 구체적인 역할) (주요키워드: 마을돌봄, 활성화 방안)</li> </ol> <p><b>○ 후속작업 및 기타 내용(예상 방안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활동을 할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추후 분석 후, 도출</li> <li>- 마을돌봄의 영역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조작적 정의 필요 : 안전, 공유 공간(주민들이 오갈 수 있는 공간)</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뷰 참여자가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 듯. 협력과 연계 등. 복지관의 경우 지역자원을 연결하고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함. ex. 마을기금을 모으는 역할, 우물터 같은 역할(코디네이터)</li> </ul> <p><b>[예상 방안]</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기적 마을회의의 구조 마련(ex. 공릉동) : 주민친화적 마을 정기협의의 구조화</li> <li>- 주민스스로 마을 이슈, 의제 찾고 발굴, 행동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는 역할(공간, 분위기 조성)</li> <li>- 누구나 올 수 있는 마을회의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의견 제시, 발굴,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기능. 그 안에서 돌봄, 자원연계 등 모든 이야기가 가능할 듯.</li> <li>2. 주민참여학습 동아리</li> <li>- 좋은 책 소개, 동네 책모임 등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이 모이고 이야기 나누고 활동할 수 있는 장 마련이 필요</li> <li>3. 학습을 통한 자기 돌봄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자기 돌봄 자체가 주민역량강화임. 그 다음이 자기재능을 갖고 관계 안에서 돌봄(품앗이 강좌 ex.수원 누구나학교)으로 단계적 발전이 가능 할 수 있을 것. (ex. 인생대학 : 인생 설계, 재설계, 회고 등(연령별)) ∴ 협의구조 &gt; 자기 돌봄 &gt; 품앗이 학습 등 생활전반에서 돌봄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li> <li>- 큰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 과정을 구성해야 함</li> <li>- 주민의 힘을 키우고 조직화 하는 것이 필요함</li> <li>-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복지관의 역할 등에 대한 고민과 연결될 수 있음</li> <li>- 마을 내 돌봄, 생활의 기술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필요함</li> <li>- 공간 발굴(공간 맵)도 필요함,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li> </ol> <p><b>○ 추후 일정 조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형 연구 지원사업(대전 지역복지 아카데미) 연구진행상황 점검 예정</li> <li>- FGI 1차 진행 후, 전체 연구진 중간평가회 등 실시 예정</li> </ul>
--	--

## 회의록(8차)

일시	2020. 11. 13(금)	시간	11:00 ~ 14:00	장소	배재대학교
참석자	(총4명) 임진섭 교수, 정림종합사회복지관 강영선 관장, 이리나 팀장, 권진주 팀장			불참	-
회의안건	2020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와 관련한 대전지역 아카데미 연구 집필 논의 등				
논의내용	○ 목차 구성 및 작성(안) 마련				
	<p style="text-align: center;"><b>마을돌봄 활성화 및 체계구축을 위한 선결요인에 관한 연구</b> -정림동 사례를 중심으로-</p> <p>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2)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① 정림동의 주민참여 및 활성화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② 마을돌봄 활성화 및 체계 구축을 위한 선결요인, 방안은 무엇인가                          ※ 수행체계도는 표로 정리.</p> <p>2) 마을돌봄과 관련한 선행연구                      (1) 마을돌봄과 지역공동체                      (2) 국내외 마을돌봄 사례 및 실태</p> <p>3) 연구방법                      (1) 연구과정 및 추진절차                      (2) 사례조사: 정림동 선정과 사유                      (3) 정림동 마을주민의 돌봄욕구 및 수요분석[기존연구 분석]                          ① 정림동 지역주민의 마을인식(만족도, 이웃관계 만족도, 자랑거리)                          ② 정림동 지역주민의 돌봄욕구 실태분석                              가. 장애인 나, 아동·청소년 다. 노인 라. 여성                      (4) 포커스그룹인터뷰(FGI)                          ① 포커스그룹인터뷰 목적 및 개요                              - 인터뷰 대상자(4개 그룹별)</p>				

<p>- 조사내용 포함</p> <p>4) 연구결과                          ① 초점집단면접조사 도출개념: 주민참여 원동력 및 활성화를 위한 요인                          ② 초점집단면접조사 도출개념: 마을돌봄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요인                          ③ 소결</p> <p>5) 정림동 주민참여 및 마을돌봄 활성화를 위한 방안                      6) 결론 및 논의</p> <p>&lt;부록&gt;                      - 정림동의 마을활동과 돌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선결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포커스그룹 집필                      - 서론에서 지역공동체와 마을돌봄 사례를 제시하고 국내외 마을돌봄 사례(돌봄공동체)도 간략히 제시                      - 정림동을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착수보고회 피드백 사항). 수밋들 축제, 주민준비위원회, 정림동 마을복지계획단 등과 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주민참여 및 활동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 및 제시하여 정림동의 주민참여가 활발하다는 근거로 제시할 계획. 다른 지역에 비해 모범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림동의 사례에서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으로 흐름 진행.                      - 2020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속의 정림동 사례가 실린 것도 근거자료로 활용.                      - 기존 연구인 2019년 정림동 마을복지계획 보고서 내 조사결과도 활용해서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정림동 지역주민의 “돌봄” 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재분석.                      - FGI 녹취록은 상위범주, 하위범주로 그룹핑 하여 요인 도출할 것.</p> <p>○ 역할 및 일정조율                      - 서론의 연구필요성 및 배경, 마을돌봄 관련 선행연구, 연구방법은 책임연구원(임진섭 교수)이 수행                      - 서론의 사례조사(정림동 선정과 사유)와 기존연구 분석(정림동 마을주민의 돌봄욕구 및 수요 분석)은 복지관에서 담당기로 함.                      - FGI 녹취록은 연구진 각자가 작업하고 복지관에서 1차 취합 후 책임연구원에게 전달해서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협의함.                      - 최종 정리 된 FGI 자료는 전체 연구진들과 자문회의를 통해 점검 및 평가를 받기로 함.</p> <p>[일정(안)]                      11/20(금) 13:00 : FGI 요인 도출 정리 협의</p>
--

11/25(수) 16:00	: FGI 요인 도출 정리 본 최종 점검 및 평가
11/27(금)	: 1차 초안 작성
12/4(금)	: 2차 초안 작성 및 발표 PPT 구성
12/8(화)	: 발표 PPT 완성 및 전달
12/15(화)	: 보고서 최종본 완료
12/16(수)	: 최종발표회

## 회의록(9차)

일시	2020. 11. 17(화)	시간	18:00 ~ 19:30	장소	정림종합사회복지관
참석자	(총12명) 정림종합사회복지관 권진주, 김바울, 이광수, 이리나, 황지영, 정수락, 윤세영, 신예은, 김미경, 한나라, 박남순, 서정욱			불참	-
회의안건	2020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와 관련한 추진 경과보고 및 FGI 도출개념 점검				
논의내용	<p>○ 추진 경과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림동의 마을활동과 돌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선결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포커스로 집필</li> <li>- 서론에서 지역공동체와 마을돌봄 사례를 제시하고 국내외 마을돌봄사례(돌봄공동체)도 간략히 제시</li> <li>- 정림동을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 수릿들축제, 주민준비위원회, 정림동 마을복지계획단 등과 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주민참여 및 활동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 및 제시하여 정림동의 주민 참여가 활발하다는 근거로 제시할 계획</li> <li>- 다른 지역에 비해 모범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림동의 사례에서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으로 흐름 진행</li> <li>- 2020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속의 정림동 사례가 실린 것도 근거자료로 활용</li> <li>- 기존 연구인 2019년 정림동 마을복지계획 보고서 내 조사결과도 활용해서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정림동 지역주민의 “돌봄” 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재분석</li> </ul> <p>○ FGI 도출개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4번에 걸쳐 진행된 FGI 도출개념은 주민참여 원동력, 주민참여 활성화, 마을돌봄 활성화 개념으로 정리할 예정</li> <li>- 정리된 자료를 우선 확인 및 공유하고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함</li> <li>- 연구명을 처음 듣고 상상했던 주민들의 답변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답변들도 있어서 도움이 되었음</li> <li>- 집단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더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등이 보임. 이를 정리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li> <li>- 최종 정리 된 FGI 자료는 전체 연구진들과 자문회의를 통해 점검 및 평가를 받아 보완할 예정</li> </ul>				

## 회의록(10차)

일시	2020. 11. 25(수)	시간	16:00 ~ 18:00	장소	정림종합사회복지관
참석자	(총8명) 김동기 교수, 임진섭 교수, 지희숙 박사, 한재규 계장, 김운이 원장, 강영선 관장, 권진주·김바울·이광수·이리나 팀장			불참	-
회의안건	2020 지역사회육구조사 평가 자문 실시				
논의내용	<p>- 정림동이 마을활동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었는데, 주민참여 원동력, 활성화 요인은 무엇일까, 마을돌봄 활성화 요인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음.</p> <p><b>[FGI 도출 개념 공유]</b></p> <p>1.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의 원동력 : 마을에 대한 강한 애착과 자긍심, 마을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 기본적으로 높은 공동체 정신과 의식수준, 마을활동/주민참여를 지원, 촉진 하는 중간기관의 역할</p> <p>2. 마을활동 및 주민참여의 지속, 활성화 요인 : 교육과 훈련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주요 주민 및 단체에 대한 의존성 감소와 신규 참여 주민 발굴, 주민육구를 반영한 활동지원과 자발성 강화, 복지관의 역할, 자발성 강화, 복지관의 역기능, 소통과 동기부여,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 보상, 유인기제의 필요성, 공모 사업 운영비 탄력적 이용으로 자율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p> <p>3. 마을돌봄 참여 및 활성화 요인 : 마을 내 돌봄 플랫폼 기능 구축(발굴/실태-육구파악-참여/매칭-지원/교육/홍보), 새로운 돌봄개념의 변화와 수용, 인식전환(돌봄 역량강화 교육), 동기부여와 지속적인 피드백 제공, 돌봄 지원을 위한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돌봄자원 연계, 조정을 위한 통합</p> <p>○ 2020 지역사회육구조사 관련 연구 평가 자문 실시</p> <p>- 마을에 대한 강한 애착과 자긍심은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음</p> <p>- 마을돌봄주민 참여활성화를 위해선 우리 마을만의 독특한 돌봄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공청회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음. 마을돌봄 수가를 책정하는 것도 방법임.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게 되면 공적인 수가를 매길 수 있지만, 우리 마을단위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가를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재원이 문제이긴 함. 재가장기 수가 지원과정에 우리들이 제안할 수 있을 것. 일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우리들이 반영할 수 있는 수기도 생길 것 같음</p> <p>- 때문에 우리 마을돌봄서비스 개발이 필요하고 참여 주민들이 그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내는 것.</p> <p>- 예를 들어 동네 사회복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기본 상담이 가능한 사람을 활용해 돌봄상담, 전화 상담 등 활동역할과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그 수가의 예산은 추후 연결</p>				

	<p>할 수 있음. 수가를 산정하고 만드는 것은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안에 새로운 서비스 개발, 제안, 그것을 진행함에 있어 수가 지원 요청이 가능할 것.</p> <p>- 이용료를 내 활동할 수도 있음. 이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과 연결도 가능. 지역의 특화된 육구와 연결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음. 수가 보다 지역의 돌봄 서비스 개발, 체계화 시키는 모형을 만들 수 있음.</p> <p>- 민간주도형 지역특화형 돌봄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동기부여와 지속적인 피드백 제공, 돌봄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환경 구축으로 정리 될 수 있음.</p> <p>- 돌봄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서론에 다뤄져야 함. 동단위 사회적 약자 돌봄의 개념을 넘어서서 공동체로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되면 좋을 듯.</p> <p>- 돌봄의 요구조사를 대상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마을돌봄의 대상을 구분하고, 주민이 주민을 돌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p>- 정림동의 돌봄 역량조사가 필요함. 이는 곧 지역의 자산이고 마을돌봄과 관련된 지역의 자산임. 자생단체, 공간, 활동가 모두가 해당되며, 각각의 역할분담 주체가 될 수 있음. 역량별로 어떤 활동에 투입할 수 있을지 볼 수 있을 듯.</p> <p>- 마을돌봄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함. 생태계처럼 지역활동가 육성과 기존 자생단체 재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소모임, 동아리, 학습모임 등 찾아서 공동체처럼 마을 주체로 키워 가려면 돌봄역량 키우기라는 카테고리가 생길 수 있음. 역량을 키우는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가 필요함.</p> <p>- 돌봄에 관련한 일자리가 필요함. 활동에 대한 누적,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처럼 마을돌봄과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개인의 자원활동가가 마을 교사, 강사가 될 수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갈 수 있음.</p> <p>- 마을돌봄의 문화적 영역으로 다뤄져야 함. 일상적으로 주민을 돌 볼 수 있는 행위가 되어야 하고 마을 기금 조성과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마을 문화조성도 있음.</p> <p>- 정림동이 활성화 되어 있는 힘의 원천이 안쪽으로 숨은 듯 보임. 풀뿌리 자생단체의 활동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경험이 누적되어 있는 것 같음. 다만 녹취록에 직접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으면 제시가 어려움.</p> <p>- 이웃망, 관계망 작은 네트워크가 앞으로 배치되면 더 좋을 듯함. 높은 공동체 정신과 의식 수준이 앞부분에 나오게 재배치 필요.</p> <p>- 주민육구조사, 참여 지속 활성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선 연령별로 육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임. 동 주민 대상별, 세대별 육구조사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함. 뒤에 가면 마을돌봄과 관련된 역량조성과 연결될 수도 있음.</p> <p>- 정림동 도시재생과 관련해 다함께돌봄센터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연결되면 좋을 듯 함.</p> <p>- 사회적 인정과 보상의 체계에 대한 부분이 잘 다뤄져야 함. 그 경우 마을에서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음. 각 주체별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연결이 필요하며 돌봄일 자리를 찾</p>
--	--

아내고 만드는 것이 중요함이 다뤄져야 함.

- 새로운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확인됨. 기존 자생단체는 신규인력 들어오기가 공간이 여의치 않음. 마을 주민 모아서 활동하다 보니, 새로운 판을 구성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음. 새로운 사람이 주도권 범위에 들어오기에는 진입장벽이 있다는 것이 확인됨. 관심 있는 새로운 장을 까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선 다양한 마을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유입될 수 있음.
- 학습 소모임, 동호회 이웃 간 교류하는 활동을 동 단위에서 지원하는 씨앗기금이 마련되면 좋음. 구에서 진행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모이자, 해보자도 활용할 수 있음. 중장년이 넘어가면 공모사업 참여 등은 어려움. 멘토링을 연결해 주기도 하는 등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지 알면 소소하게 참여할 것 같음.
- 마을 주민들과 마주해 보면 새로운 시작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마을활동을 처음 시작하기까지는 진입장벽이 높을 수 있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가가고 매 단계마다 고민이 필요함. 이로써는 촉진자 발굴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활동하는 주민들에게 물질적인 도움도 중요할 듯, 정신적 보상도 있겠지만 물질 도움을 주면 더 잘할 수 있는 여건도 있음. 발굴도 중요하지만 변화가 필요한 것들은 바뀌어야 함.
- 욕구파악에 더 신경 써야 함. 주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알아보는 것이 필요함.
- 플랫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됨. 새롭게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 참여할 사람 준비될 수 있을 듯. 보상과 인정을 할 것이면 교육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동, 복지관에서 관련 욕구와 관련된 사업을 구성해 매칭까지 가능할 듯. 요새는 플랫폼이 대세, 구성한다면 원스톱서비스, 매칭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임.
- FGI 내용을 보니 교육의 욕구가 확실한 것으로 보임. 자발적인 학습동아리와 선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기관, 역할이 필요하겠다고 생각됨. 단순하게 몇 명이 모이면 없어질 수 있음. 공동체로 묶어 줘야 오래 수명이 지속될 수 있음.
- 돌봄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 '돌봄'이라는 문구가 수동적인 느낌이 들었음. 마을돌봄을 한다면 돌봄의 대상이 아직까지는 단순하고 일방적인 느낌임.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됨. 평생교육과 연결한 플랫폼으로 가능 할 수 있을 듯. 이를 위해선 통합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플랫폼이 동 단위에 구축되면 가장 좋음. 특히 성인 학습체계 상담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내실이 없는 곳이면 아무리 연구를 하려하더라도 어려울 듯. 돌봄의 역량 조사가 필요함. 많은 단체 기관 동호회가 있음. 그들의 역량 조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근거 작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전통적 돌봄대상자와 일반 돌봄 대상자 각각을 역량강화하고 조직화해서 키우는 것 필요함. 이를 위해선 역량 있는 사람들 묶어내는 것이 필요.
- 문화조성을 위해 일상적인 문화, 활성화 된 교육, 특강 등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찾아내기가 중요함.
- 여러 돌봄이 있었는데, 대상별로 천천히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초점을 맞춰 타겟을 정해

먼저 해보고 확대하는 것도 방법임. 시행착오 등을 우선 경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만의 노하우 찾기 등이 가능함.

- 마을단위 역량강화, 동단위가 중요함.
- 주민들이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활동에 대한 이해는 적다는 것이 느껴짐. 때문에 활동할 때 사전교육 평가회가 정말 중요한 것임을 다시 느낌.
- 사업, 활동에 대한 주변인으로 느끼면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확장될 수가 없음. 큰 단위의 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그런 것으로 보임. 천천히 이해를 돕는 활동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회의록(11차)

일시	2020. 12. 2(수)	시간	11:00 ~ 13:00	장소	정림종합사회복지관
참석자	(총 4명) 임진섭 교수(배재대 실버보건학과), 조정하, 정림종합사회복지관 권진주·이리나 팀장			불참	-
회의안건	지역복지육구조사(지역복지아카데미) FGI 녹취록 작업 관련 건				
논의내용	<p>○ FGI 녹취록 작업 완료, 이후 작업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룹별 녹취록 작업본은 부록으로 수록 예정</li> <li>- 연구평가자문 녹취록 작업본도 부록으로 수록 예정</li> <li>- 3가지 핵심 주제로 녹취록 정리 중</li> <li>: 주민참여 원동력, 주민참여 활성화 관련(애로사항 포함), 마을돌봄 활성화</li> <li>- FGI 초대대상자 및 FGI 설계 관련 개요 정리 필요</li> <li>: 집단별 비슷한 응답끼리 묶어내는 후속작업 필요 (전부 다 하지는 않고, 핵심만 담아낼 것)</li> </ul> <p>○ 추후 일정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4(금) 보고서 초안 완성</li> <li>- 12/8(화) 발표 PPT 완성</li> <li>- 12/14(월) 보고서 최종본 완성</li> <li>- 12/16(수) 연구발표</li> </ul>				

### [부록 2] FGI 실시

구분	순서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
FGI 실시	1차	2020.09.23. 14:00~15:30	정림종합사회복지관	FGI 초대대상 3명, 진행 및 기록자 포함 연구진 6명	마을활동 참여경험이 적은 주민 대상 FGI 실시
	2차	2020.09.25. 19:00~21:00	정림종합사회복지관	FGI 초대대상 5명, 진행 및 기록자 포함 연구진 3명	마을활동 참여경험이 많은 주민 대상 FGI 실시
	3차	2020.10.26. 16:30~18:00	정림종합사회복지관	FGI 초대대상 3명, 진행 및 기록자 포함 연구진 4명	자생단체 소속이며, 마을활동 경험이 많은 신규 리더 대상 FGI 실시
	4차	2020.11.02. 16:00~17:30	정림종합사회복지관	FGI 초대대상 3명, 진행 및 기록자 포함 연구진 3명	자생단체 활동 중심으로 마을활동을 해 온 원로 리더 대상 FGI 실시

### □ FGI 실시 과정 및 결과보고서

I. 사업개요		
1. 일시	총 4회 /2020. 9. 23(목) 14:00, 9. 25(금) 19:00, 10. 26(월) 16:00, 11. 2(월) 16:00	
2. 장소	정림종합사회복지관 內	
3. 참여인원	총 34명 (마을활동 참여경험이 적은 주민 집단 3명, 마을활동 참여경험이 많은 주민집단 5명, 자생단체 소속이며 마을활동 경험이 많은 신규 리더 집단 3명, 자생단체 활동 중심으로 마을활동을 해 온 원로 리더 집단 3명)	
4. 수행인력	총 7명(배재대학교 임진섭 교수, 지역교육다움 대표 지희숙, 마을교육연구소장 김미순, 조정하 (녹취록 작업), 정림종합사회복지관 강영선 관장, 권진주·이리나 팀장)	
5. 지원	대전복지재단 참여형 연구 지원사업 '대전 지역복지 아카데미'	
6. 첨부	관련사진, 코딩자료(4그룹)	
II. 일정		
기간	프로그램 내용	비고
9/23(목) 14:00	마을활동 참여경험이 적은 주민 집단 초점집단인터뷰 실시 및 기록	담당: 이리나·권진주 진행: 지희숙 박사 기록: 김미순(마을교육연구소장)
9/25(금) 19:00	마을활동 참여경험이 많은 주민 집단 초점집단인터뷰 실시 및 기록	담당: 이리나·권진주 진행: 이리나 팀장 기록: 권진주 팀장
10/26(월) 16:00	자생단체 소속이며, 마을활동 경험이 많은 신규 리더 집단 초점집단인터뷰 실시 및 기록	담당: 이리나·권진주 진행: 강영선 관장 기록: 권진주 팀장
11/2(월) 16:00	자생단체 활동 중심으로 마을활동을 해 온 원로 리더 집단 초점집단인터뷰 실시 및 기록	담당: 이리나·권진주 진행: 임진섭 교수 기록: 권진주 팀장

Ⅲ. 수행평가	
1.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지역사회육구조사를 위한 연구 주제 및 구상을 2019년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함께 한 자문단과 함께 기획함.</li> <li>- 초점집단인터뷰 초대그룹별 6명 내외로 하고, 정림동행정복지센터 등의 추천을 통해 동네에 대해서 잘 알고, 조사취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며 마을활동 참여 경험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초대하기로 함.</li> <li>- 인터뷰 또한 집단의 성격에 맞춰서 주 연구진 외에도 자문위원 및 정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 보다 적합한 진행자가 자연스럽게 리드할 수 있도록 준비함.</li> </ul>
2.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계획과 달리 잦은 일정 변경과 참여 인원 제한으로 최소인원 초대 및 진행으로 조율함.</li> <li>- 인터뷰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우선 진행한 후 인터뷰를 실시함.</li> <li>- 각 집단 특성에 맞춰서 인터뷰 진행자를 달리하였으며, 공통질문지의 질문 순서와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추가 또는 생략하기도 함.</li> <li>- 식사 대신 약간의 다과와 답례품을 준비하여 사례함.</li> <li>- 담당자가 우선 기록 후, 녹취 작업을 의뢰하여 전사록을 작업함.</li> </ul>
3.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4그룹, 14명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가 진행됨.</li> <li>- 각 집단별로 특징은 있었으나, 비슷한 응답들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함.</li> <li>- 2019년에 실시한 정림동 마을복지계획의 질적, 양적조사와도 유사한 답변들이 도출되기도 함.</li> <li>- 과정 중에 주민들의 인식수준과 이해도에 따라 진행자가 추가 설명을 부연하면서 인터뷰 취지에 맞게 진행함.</li> <li>- 응답은 주민참여의 원동력, 주민참여 활성화 요인 및 애로사항, 마을돌봄 활성화 요인 등을 찾아낼 수 있는 요인들로 분석할 예정.</li> <li>- 이후 자문단을 비롯한 연구진들과 함께 연구 자문 평가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마을돌봄 활성화 및 체계구축을 위한 선결요인을 정리하며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내는 방향으로 구성할 예정임.</li> </ul> <p>∴ 본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마을돌봄 활성화 및 체계구축을 위한 선결요인과 활성화 방안을 추려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림동 주민들이 공급자로서 마을돌봄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에 따른 역할과 기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p>

□ FGI 사진자료 (2020. 9. 23. ~ 11. 2.)



□ FGI 녹취 전사록 (2020. 9. 23. ~ 11. 2.)

초점집단인터뷰 녹취 전사록(1차)
<p>○ 일 시 : 2020. 9. 23(수). 14:00 ~ 15:30</p> <p>○ 장 소 : 정림종합사회복지관 2층 수릿들어린도서관</p> <p>○ 대 상 : 마을활동 참여 경험이 적은 주민 집단</p> <p>○ 참석자 : FGI 초대대상 3명, 연구진 6명(지희숙, 임진섭, 김미순(기록), 강영선, 이리나, 권진주)</p>
<p><b>1. 인터뷰 안내 및 참석자 소개 : 이리나 팀장</b></p> <p><b>2. 임진섭 교수(연구책임) 안내 말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도 있고, 우리 지역 안에 이런 제도권 혜택이나 부분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많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역 사회 안에 있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과 어떤 것을 해결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역 안에 있는 돌봄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 필요한 것을 찾아내기 위해 이 자리 마련함. 평소에 돌봄에 대해 잘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이번 기회를 과연 우리가 내가 지역주민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취약계층을 위해 내가 만약 돌봄을 할 수 있다면, 사업을 한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행·재정적으로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li> </ul> <p><b>3. 인터뷰 진행 : 지희숙 교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전안내</b> : 1시간 30분 정도 진행예정임.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편안하게 생각을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연구 이유는 대부분의 정책이 마을주민들이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경험 이야기를 정리해서 정책에 필요한 부분을 의견을 제시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 현장의 이야기가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연구 결과가 실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 발 떼어놓을 수 있습니다.</li> <li>- <b>인터뷰 요청이유</b> :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계시고 지역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아이들 중심)들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계시고, 중장년층·노년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고 계시고, 30년 거주 지역봉사를 통해 독거노인 활동하시면서 지역전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현장, 활동했던 것 현장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마을돌봄 연구라고 하지만 돌봄 대상이 가장 우선 되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지역주민 전체가 포함됩니다. 주민 전체가 행복하기 위해 우리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책에서, 행정에서, 복지관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는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됩니다.</li> <li>- 지희숙 : 돌아가면서 소개로 하시고 있는 활동, 정림동 사시면서 느낀 점, 가볍게 소개해주세요.</li> <li>- A(여성, 50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000입니다. 저는 어려운 이웃 방문하는 일을 해보니 어른들이 가장 소외 당하고 있는 것이,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최근 만나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갔는데, 그랬더니 다 (사람이)그리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외로움을 첫 번째로 호소하시고, 그 전에 저 뿐만 아니라 방문하시던 분들이 다 끊겨서 더 그렇다고 말씀하셔서(정림동 살아보니 어떠신지) 순한 동네인 것 같아요.</li> <li>- B(여성, 40대) : 저는 00초 학부모회장이구요. 큰 아이 때도 한번하고, 둘째 아이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우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ppt로 설명하실 때 잠깐 잠깐 이런 활동들이 이런 걸 위한 것 이었구나 매칭 되고 동네에 대해서 마을에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정림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으시면, 저는 서울에서 30년 살다 직장 다니다 대전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왔는데, 정림동은 저한테 굉장히 심심한 동네예요. 제가 살던 동네가 대학가 주변이라 24시간 풀가동이잖아요. 지금은 좋아졌지만 처음 시집왔을 때 처음에는 정말 밤 8시만 되면 갈 데가 없었거든요. 신랑이랑 마트를 돌아다녔거든요 너무 심심해서, 너무 깜깜하고 사람이 안 돌아다니는, 제가 지금도 여기를 정림도라고 부르거든요. 안쪽에 있고, 지리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여기서 이동도 안하는 것 같고, 거의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래윗집이 수저 개수 알 수 있도록 친분이 두터우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아직 지금은 제가 시집왔을 때 보다 좋아졌지만 저한테는 처음에는 심심한 동네였어요. (적응하는</li> </ul>

<p>데 시간이 걸리셨어요?) 직장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학원이 둔산동인데 거기 한번 씩 가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스타벅스에서 커피마시고 여기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 처음에 초창기 학원에 일 주일에 한번 수업 나가는 그 재미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남성, 60대) : 저는 이제 1년 반되었습니다. 정림동 주민 된 지, 그렇지만 개인사이지만 40여 년 전에 이 마을에 살았었어요. 그때 만해도 지금 정림동이 오래되었다, 낙후되었다하지만 제가 있을 때 생각하면 우성아파트 단지도 생기고, 도로가에 건물들이 들어서서 은행, 병원, 마트, 상업시설이 어떻게 보면 좋아요 저는. 87-88년 그때 지내다 청주 갔다가 다시 대전으로 온지는 되었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보기에 따라 본인의 지역의 어떤 스토리에 따라 관점이 다르고요. 여기서 정말 태어나서 살았던 원주민하고 요즘 거의 매일 만나는데,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생각하면 정림동 옛날에 이번에 물난리 났는데 이건 난리도 아니고, 옛날에 제방 독이 없을 때 50년, 6.25 이럴 때는 말 그대로 정말로 가난한 동네, 왜냐면 유등천이 범람하면 밭에 농사도 못 짓고 좁고, 오히려 저 안에 지금은 시골이지만 기성 학하리 이런 동네가 부유한 동네고. 소위 말해서 이런데 땅 100평 살면이런 장태산 가는 흑석동 그 시골에 가면 몇 배가 거기가 땅값이 비쌀 정도로, 값이 싼 동네예요. 서울로 말하면 청계천이죠. 하천부지에 시냇물가가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그런 것 생각하면 적어도 우리가, 어제도 도시재생센터에서 마을방송국 개국하려고 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 15명 정도 모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여기가 많이 개발되었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항상 낙후 되고, 가난하고, 조용하고, 개발 안 되고, 노령화되어있고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만 보면, 그리고 주민 평균 경제 가계소득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이런 통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저도 저녁에 밤 10시에도 입이 궁하면 여기 정림스토어(정림동 슈퍼) 땅콩 사러 가보면 그 시간에 물건사고, 여기 앞에 가면 소주방도 가고, 꼬치집도 있고 사업도 되고 저는 그렇게 봐요. 보편적인 한국의 도시의 모습 아주 원신흥동, 도안동 마냥 신시가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취약지역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소개하면 함께 연구 모임에 참여해 달라고 제안을 받고 '네' 했는데 아직까지 연구의 성격을, 연구에 대한 이해가 안 되었어요. 연구진 교수님 소속이 어떤지 궁금합니다.</li> <li>- 지희숙 : (소속 안내함.) 세분 정림동에서 살아온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살아보면 골목도 아름답고 너무 조용해서 심심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있어서,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의기투합을 하면 잘 뭉쳐지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정림종합사회복지관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책임자 임교수님 계시지만, 지역 연구단위가 지역단위 주민중심으로 내려오고,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로,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활동하는 것이 중요한데, 활동이라는 것이 마을돌봄이라는 것이, 예전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기초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기의 활력을 얻는 즐겁게 마을 활동을 하는 것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건강한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보니 정림동이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마을돌봄을 생각해봐야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정책의 사각지대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각 현장의 계신 분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li> <li>- C(남성, 60대) : 제가 이해한 걸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실천이나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구 단계로 정림동의 돌봄이 필요하다 안하다는 어느 부분이 돌봄이 요구되고 있고, 해결할 수 있을까?</li> <li>- 지희숙 : 지역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지만 구 단위, 기초단위에서 수립합니다.</li> <li>- C(남성, 60대) : 연구 기간은?</li> <li>- 임진섭 : 저희가 원래예정대로면 10월 달까지 보고서가 나와야 하지만 코로나로 연기되었습니다.</li> <li>- 지희숙 : 인터뷰가 처음시작입니다. 이번 질문은 각 활동하고 계신데, 0선생님은 학부모회, 0선생님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전에도 마을에서 활동해보거나 마을주민들을 지켜보시면서 드는 생각이 있을 텐데, 내가 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어떤 활동을 지금까지 했고, 그것을 해보니까 어떤 것이 어려웠는지 이야기 해주시면, 0선생님도 도시재생으로 관여를 하고 계신데 그 이야기도 좋지만, 000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야기 해주셔도 좋습니다.</li> <li>- A(여성, 50대) : 제가 어른들 방문하고 해봤지만 절실하게 느낀 것은 나도 과연 어르신들처럼 살 수 있을까? 방문해보면서 소외당하고, 어렵고, 외롭고 해도 마음은 풍족하고 뭐 하나를 지원해도 감사해 하세요. 그분들이. 지금도 오기 전에 3분 만나고 왔거든요. 다 어르신들이 포용을 해주세요. 그 정도로 어르신들이 굉장히 따뜻한 면이 있는데, (형편이)어렵고해도 마음만은 풍족한, 더러 반찬이아기도 하시는 데 어떤 분은 가져다 드리면 다른 분 가져다 드리라, 다른 분 주시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걸 보면 다 그렇게 어렵게 사신다고 해도 마음은 부유한 사람이고, 저희가 방문해 보면 굉장히 마음이 훈훈한</li> </ul>
--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어른들이, 어둡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밀반찬 봉사로 만나시나요?) 그것도 있고 기초수급 이런 분들 방문해보면 오히려 젊은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요. '이런 걸 왜 갖다 줘~' 쌀 같은 것 가져다 드려도 다른 물질을 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어른보다는 젊은 계층들이 더 다양한 걸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어른들도 그런 분들 계세요. 요양보호사들이 가정에 방문하는데 왜 그 돈을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요양보호사)한테 왜 주냐, 차라리 우리에게 줘면 좋겠다. 그런 어르신들 말 들으면 또 맞기도 해요. 왜냐면 온다 하니깐 받아들이는 거지, 어떤 분은 아무 일도 안 시킨다는 분도 있어요. 외로움보다 물질이 목적인 분도 있다는 거죠. 필요로 하시는. 정부에서 주는 그 돈을 여유 있게 주었으면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 C(남성, 60대) : 그 부분을 죄송합니다만 그런 측면보다 쉽게 말해서 현찰을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표출하신다는 것 같고.

- 지희숙 :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만났을 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 중심으로 지원되면 좋겠고, 또 그 돈만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생산적 활동도 하고 싶다는 욕구도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주로 만나는 분들의 연령대는? (60이 넘으신 분들)

- A(여성, 50대) : 일부분이지만 어르신들이 활동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되기를 비라고, 소소한 일거리, 사소한 일거리 그런 일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 지희숙 :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것이 외로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력을 보이시고, 자기 존재감 느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네요.

- 지희숙 : 00초등학교 학부모회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 B(여성, 40대) : 저희는 특별히 활동내용은 별로 없습니다만 교육 연수 라든지(한 달에 한번 만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김영란 법도 있고 해서,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고요(조심). 어머니들 학교 활동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저는 그거 동네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한데, 저흰 소문이 잘 돌아요. (주민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네요. 조금 위축되는 것도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해서, 그래서 활동의 제약은 있는 것 같고, 연수나, 운동회나, 학습발표회 등에 내놓고 하지는 않지만 그럴 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으나, 역시 코로나로 저희가 활동 잘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지금 학교에서 발열체크 도우미를 하고 있어요. 급식도우미하고 20명 정도의 어머니들과 팀을 꾸려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원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부탁을 하셨는데. 20명이 들어갔는데 호응이 '아 이런 것도 있었어요?' '몰라서 못 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걸 학부모가 해요? 외부에서 안하고?' 외부 인력 안 쓰고 왜 학부모가 하나, 학교도 학부모가 하는 것이 가장 학생들에게 다가가기에 편하고 거부감이 없고 이질감이 없으니까 한다고 설명하죠. 학부모들이 먼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긴급 돌봄 4학급이 돌아가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셔서, 마음은 있으시나 직장이나 그런 관련으로 학교에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신다면 맞벌이로 시간이 없는 거, 관심이 없다가보다는 몰라서 못했거나, 맞벌이로 시간적 여유 때문에 못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 지희숙 : 정보격차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학부모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 몰랐다 하셨는데, 학부모회장 하시면서 20명 정도가 학부모회에 구성되어있나요?

- B(여성, 40대) : 주로 학부모회는 반 각반 회장 부회장 엄마들이, 정식으로 총회를 거쳐서 위촉을 받았다면 회장, 부회장, 총무에 각 학년 대표 10명 내외로 구성을 10명 내외로 구성해요. 지금은 그런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어서.

- 지희숙 : 그 이전에 학부모활동하면서 학부모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안내를 해주시겠어요. 아이 키우면서 학부모로서 불편함, 외부에서 보는 못 느끼는 부분들요.

- B(여성, 40대) :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래사신분도 계시지만, 저희 학교를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을 키우기는, 정림동이 미취학아동이나 어르신들이 사시 기에는 더 없이 좋아요. 시장도 가깝고 천변도 있고, 그런데 학교 같은 것을 따지면 여기는 그런 것이 취약하니까 둔산동으로 학원을 가거나 하다못해 복수동, 관저동으로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정림동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한계가 있어서.

- 지희숙 : 정림동에서 사교육에 대한 욕구들이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네요. 맞벌이 학부모님 이야기 하셨는데 코로나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 학부모회나 학교에서 대책이나 논의는 있으셨는지?

- B(여성, 40대) : 저도 (공식적으로)학부모회장이 된지 일주일 되었어요. 공식적으로 위촉된 게 일주일 되었어요.

원래 학년 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학기 어쩔 수 없이 이런 행동을 하려면 제가 뭔가 연락을 하려면 '제가 학부모 전교회장 엄마입니다.' 제 소개를 해야 하니까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제약이 되어서 이번에 그냥 선거해서 저희가 제가 일주일전에 되었어요. 긴급 돌봄 같은 경우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요. 지원받거나 선생님들 배치하는 것도, 최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기보다는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지원하려고 정림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 최대한 아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있어요.

- 지희숙 : 학교 안에서 해결할 것도 있고 아이들 같은 문제는 마을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는데, 마을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면 좋을지, 어르신이나 약간 젊은 노인 신노인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활력이 생길지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선생님 000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 C(남성, 60대) : 저희 법인은 주 사업이 방과 후 학교 위탁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동조합 안에 주로 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운영이 되는데, 교과과목, 체육, 예능, 과학 이런 영역으로 한 학교에 20여 가지 씩 운영되는데 그것을 조합에서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프로그램과 전문 강사를, 강사 풀을 보유하고 배정을 해서 파견하는 것이 주 활동입니다. 조합 안에 두 번째로 활동하는 것이 도시농업활성화 및 도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쪽 해서 관련 있어서 저희 조합이 필요하다며 해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저희의 전문성을 요구되고 있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림동에서 주로 소통하는 분들?) 활동 영역이 그렇다 보니 실제 정림동의 현 주민, 일반주민들과 다양하게 관계나 접근이 아직 미미하죠.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그렇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부 파트이고, 00초등학교의 회장님 아시겠지만 영어반, 수학교실 같은 과학탐구, 미술, 축구, 댄스 많이 있지만 학교에 한두 과목 해서 그렇기 때문에 소수 방과 후 신청자 학생을 강사마다 수업하는 거라서, 주민들하고 직접은 어떤 소통은 없고 간접적으로 학부모들과 관계는 있습니다. (실제 정림동에 등지를 들고 있지만 활동은 대전 전제로 하시네요) 도시농업 영역 관련해서 작년에 국토부로부터 사무실 옥상 '수밋돌옥상 텃밭'이라는 이름으로 국토부로부터 천만 원 조성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했어요. 금년에 대전서구청으로부터 주민공동체사업으로 500만원 지원받았는데, 그 항목이 뭐냐면, 연구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옥상텃밭을 조성하고 정림동의 거주하는 주민아무나, 누구나 텃밭을 주인이 되자, 공동마을텃밭으로 해서 그렇게 전단지 배포했는데. 정말 한건도 없어요.

- 지희숙 : 역량이나 경험치가 있음에도 지역에서 풀어내는데 연결하거나 소통하는데 막혀있는 상황이네요.

- C(남성, 60대) : 저도 그런 것이 시민의식이라고 할까? 옥상에다 텃밭을 하는데 내가 가서 풀 뽑고 흙 만지고 상추 뜯어서 먹는 것 비롯하는 마음이라면,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은 지하철 무료로 타는 세대가 되었는데, 나쁘게 말하면 의식이 잘못 된 거지요. 그런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통해서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나, 협의체가 유기적이고 각 영역이 있지만 각 공동체가 되고, 아까 어르신들, 학부모회장님은 00초의 재학생 중에서 특별한 그런 돌봄 영역으로 설정하자면 돌봄의 기능을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런 초소가 있다. 거기에 돌봄의 수혜자가 될 대상이 사실은 수요조사연구가 되겠는데 영유아서부터 어르신까지 있고, 제가 너무 포괄적인 말이지만 제가 들으면서 막연할 수 있다 싶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정림동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영아부터 노인까지 얼마나 있는가? 그 대상 중에는 초등학교의 4개의 교실이 이미 80명 정도의 돌봄에 참여하는 아동이 있다는 것인데, 00초 재학생 중에 학교에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예산에 따라서 4학급이 있다. 그런데 4학급 들어가고 싶은데, 엄마는 미장원 경영하고 가게하고, 식당서 일하고 아이가 방치되니까 거기에 돌봄이 필요한데, 학교에서는 또 차상위 되어서 재산으로, 학교 돌봄은 재산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 인원이 한정되는데, 정원을 채우는데 정원이 다 차는지, 모자라는 지, 80명 예산이 나오는데, 돌봄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80명 다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200명 줄 서 있을 수 있고, 80명밖에 안 되서 아이들을 돌 데가 없어서 학원에 보내려면 2-3군데 엄마 올 때 까지 두려면 학원비가 많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지희숙 : 0선생님은 000사회적협동조합 역량이 있고 물적 인적 자원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 역량이 정림동에서 지역의 아이들, 어르신들이 우리가 케어 할 수 있는 역할이 뭘지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지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C(남성, 60대) : 시간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내년부터 롯데슈퍼 자리에 어울림센터가 개설이 되면 배재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노인 돌봄 센터가 이리 오거든요.(임진섭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4층 건물에 한 층에 정림동에 있는 노인 돌봄 센터가 개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간이지만 정림복지관도 있고 여기 장애인 돌봄도 하고, 민간이지만 한솔 주야간 주간보호센터 요양원해서, 정림동에도 10개 정도 민간이 설립 한 거지만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한 사람 당 300만원에서 150만원을 지원하는 기

관들이 빈자리가 남아있어요. 인가를 맡았는데 주야간 보호센터 20명 수용할 수 있는,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울 사람이 없어요. 시설이 과하게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를 통해서 마을돌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그것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 지희숙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는데 행정이 지원하면 좋겠다. 아니면 지역전체가 어떤 것을 지원하면 좋겠다, 아이디어 주시면

- A(여성, 50대) : 제가 3일전에 어떤 어머니 뵈었는데 ‘뭐가 가장 힘드셨나요?’ 그전에는 코로나도 원인이지만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번 돈을 약간 내면 식사할 수 있었나봐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도 밥을 안주시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밥 먹는 게 가장 싫어’ 그러시더라고요. 빌라에서 사시는데 ‘이웃들하고 소통 안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안 나와, 그래서 나는 밥 먹는 게 가장 싫어’ 그러시더라고요. 어른들 식사 할 수 있는, 밥 주는 기관처럼 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들이 나올 수 있게, 예전에는 더러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도 못한다고. 어르신들은 코로나에 대한 인지가 약했어요. 심각하게 생각안하세요. 그전에는 내가 밥도 먹고 갑천도 더러 걷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전혀 못하니까. 맨 끝에 하시는 말씀이 ‘밥 먹기가 가장 싫어’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어르신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 중에 활동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다녀보면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취미 활동이 있어요. 그걸 엄청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웃도 사 입고 화장도 하시고 이러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어르신들 볼 수 있는 문화 그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동네에서 소소하게 내가 일상에서 재미있게 놀거리, 일거리, 갈 곳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드시네요)

- B(여성, 40대) : 제가 지식이 있었으면 여러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더러 어머니들한테 여쭙 봤을텐데, 제 활동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본 적이 없고 말씀을 드리려니 어려운데. 아이에 대한 관련해서 돌봄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딱히 행사를, 아이들 행사 있더라도 이게 뭔가 귀찮거나, 저희 아이와 활동이 뭔가 동떨어지거나 관심이 없잖아요. (내 욕구가 반영이 안 되는 거네요 마을활동이) 엄마들의 기대치는 높고, 홍보가 많이 없어요. 가끔 학교에서 정림신문 같은 것 오면 어린이 기자단 이런 것 있는데 그것도 어울벗이나 복지관 관계자들 이렇게 해서 자주 왕래가 있어서 소식을 접하시는 분들은 알음알음 그분의 지인, 지인의 딸, 아들이 기자단을 하거나 그런 거지 ‘이런 게 있었어?’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홍보를 동네 안에서 촘촘하게 매개하는 사람이 필요하겠네요?) 가끔 어울벗 엄마들 중에서 어울벗 관계자 분들이 계시면 구두로 하거나, 현수막 가끔 입구에 붙여 있거나, 활동내역 같은 거나, 그런 것 아니면 학교에서 연결해서 담벼락 그림그리기 할 때는 학교로 뭐가 왔던 것 같아요. (학교도 공문 나가잖아요. 효과가 있나요?)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까 맞벌이다 보니 주말 시간에 시간을 내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지금은 가족단위로 움직이는 분들이 많으니까. 정말 관심이 있거나 애가 정말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제가 하고 싶어도 애가 안한다고 하면, ‘거기 왜가 귀찮아’ 그러면 저도 푸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런 게 잘 맞아 떨어져야 (이런저런 활동이 있지만 모든 주민이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네요. 주말도 약하고, 욕구 반영이 안 되고) 가끔 아이들 눈높이가 잘 안 맞는 것, 목걸이 만든 다든지 하다못해 그런 걸로 만족을 하거나, 저것을 체험이라고 하기에는 ‘저거 꼭 해야 되는 체험이야?’ 이렇게 까지는 엄마들이 안하는 일들이(엄마들의 기대치는?) 우리아이가 뭔가 하나 얻어 갈 수 있는 (수도권이나, 서울의 유행 체험,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지?) 그런 쪽에 관심 있겠쥬. 아무래도. 사는 곳은 정림동이나 눈높이는 거기 가있으니까.

- C(남성, 60대) : 우선 질문한 사항, 저희 협동조합에서는 만약에 돌봄, 돌봄 안에는 돌봄 공간에 온 돌봄 대상자들의 활동, 그런 활동이 필요할 텐데, 모아놓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니까. 결국 교육활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는 제공할 것은 많습니다. 방과 후 학교의 강사가 20-30개 영역별로 전문 강사 풀도 있고, 직업 일자리 창출로 하고 있지만 사회공헌차원에서 어느 부분 제가 대표로 할 수 있고요. 아까 노인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식사 제공하는 장소, 매일 점심,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밥도 차려먹기도 나쁘고, 그런 곳에 나오시는 것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아까 여기 처음에 하실 때 돌봄이, 공간이 필요하냐고 하면 복지관 이장도가 되었던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어르신들이 모일 경우에 레크레이션, 웃음치료, 음악치료, 치료라는 말에 치료 빼고 음악활동,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그 과정에서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동료들과 같이 살사댄스도 하고, 살짝 살짝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강사들과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수 백개의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요양보호센터에 본부를 두고 전국에 강사와 프로그램 일간 프로그램 300일간 매일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콘텐츠 가지고 있습니다. 돌봄 기능

이 연구과정을 끝내고 실행 할 단계에 사업을 할 단계가 되면 어르신 돌봄하고, 유아돌 돌봄도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마을공동 영유아의 돌봄 센터가 마을공동체로 생긴다면, 거기에 예산이 충분히 되어서 월급 줄 테니까 오라고 안하고, 어느 정도 공연자들이 자원봉사나 이런 것처럼 필요할 때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 지원할 만한 역량 있습니다. 영유아-어르신까지

- 지희숙 : 질문이 2가지 정도 남아있습니다.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홍보나 맞벌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활력 있게 살려면 돌봄을 확장해서 보는 거지요. 어떤 것들을 지원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예전에 활동하시면서 느낌,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이나 정책에서 해주면 좋겠다는 것들 편안하게 이야기해주세요.

- A(여성, 50대) :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보면 저희가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하시잖아요 정림동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동네는 다른 동네보다 훨씬 어른들을 위해서 잔치 같은 것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에게 굳혀진 것 같아요. 기다린다고 할까? 코로나 이전에 방문하면 행사가 있으면 달력에 해놓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날 하는 거지?’ 물어보면. 우리 정림동이 갖고 있는 것이 어르신들이 밖에 나오고 즐거움을 찾고, 아까 식사 이야기 했지만 목적이 식사가 아니라, 그 잡수시는 것으로 인해서 밖으로 나와서 시장도 가고 갑천도 가고하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라 어렵지만 저희 동네 구성원들 보이면 그런 것이 요소요소 있으면 좋겠어요.

- 지희숙 : 일상 달력 있는데 동네행사를 담아내는 달력을 개인적으로 체크하고 계신데 놀랐습니다. 이런 달력도 필요하겠네요 정보 교환하는 차원에서. 엄마들 입장에서는 엄들을 어떤 것 도와주면 재미있고, 코로나도 있지만 그 전에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데, 육아하시면서, 어떤 것을 동네에서 도와주면 재미있게 살아가겠죠?

- B(여성, 40대) : 이것도 생각의 차이인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확 와 닿는 분들도 있지만, ‘이걸 굳이 왜 내가 거기까지 가서’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남의 이야기 같은, (동네 행사가 많이 있어도 참여하지 않는) 벚꽃축제 같은 것도 더러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람 많고, 시끄러워지고, 주차난에 어느 순간 중고등학생들의 만남의 장소, 미팅장소로 축제가 약간 그렇게 변질되었잖아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날만큼은 너무 시끄럽고, 번잡스럽고, 계속 순찰차 돌고, 낯선 이들이 방문하고, 불꽃축제는 잠깐, 저희는 집에서 보거든요. 집에서 보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왕이면 주체가 젊은 분들이면 훨씬 좋겠고, 저희세대가 조금 끼지 못하는 동네 같아요. (소외감이 있군요) 어르신들 활동력도 많고 하시지만, 저희 세대는 뭔가 그냥 낡은 세대 같이 언제나 틀 준비가 되어있고, 어르신들은 계속 있지만 저희는 아이들 따라서 나갈 수 있는 거고, 여지가 있는 거라서. (동네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는 틈새가) 저희 나이에다가 그런 것 같아요. 남편 직장 옮기면 저희가 나갈 수 있고, 저희가 정착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 지희숙 : 중고등학생 미팅의 장소다 이야기 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축제가 일탈의 장소인데, 평상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보는건데 그런 놀 거리 필요하겠다 싶네요.

- C(남성, 60대) : 기성세대, 부모입장에서는 그런 데가 불안정할 수 있는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칠월칠석날은 총각 처녀가 뽀뽀해도 윤희해주고, 용돈주고 막걸리 사먹으라고, 이런 축제라는 것이 자녀들을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은 좀 불안정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느끼기에는 그 축제가 내 축제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리가 느껴지는) 오늘 주제가 돌봄이라는 명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란된 말씀으로 회장님과 회장님이 만나는 학교의 학급별 반장님들의 엄마들은 돌봄의 접근성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가가는 것이. 돌봄이라는 것은 아까 말 한대로 경제적 빈곤이나, 정신적 건강, 마음건강해서 굉장히 우울하거나, 죽고 싶거나, 일본의 유행한다는 나가기 싫은 나홀로 병, 여러 가지 어린 자녀나 노인이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분을 우리 마을이, 사회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 지희숙 : 돌봄이 가장 약자에 집중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욕구가 있고, 나이 드신 대로 삶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틈새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잡아 내려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 중심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은 어디서 들은 것, 평소에 생각 느낌을 동원해서 정림동 전체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전체. 우리 정림동이 화합도 잘되고 동네에 힘이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심심하고 번잡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서구 23개동 중에서 화합이 잘되고 건강하다고 하는데, 살면서 내가 살아보니 정림동의 장점은? 몇 가지 말씀해주시면

- A(여성, 50대) :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순한 동네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사셔서 그런지 몰라도,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뒤떨어진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머무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정서

적인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중·장년 층 입장이네요)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미비한 것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만나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 필요한 것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행사에 만족감을 나타내시는지?) 빗꽃축제도 있고 수릿들축제가 있잖아요. 어른들이 여기 저희 수릿들 마당에서 하시는 것 그것 엄청 좋아하세요. 식사 나눔하고 그런 것으로 어르신들이 뭐라 할까? 더 의지하신다고 할까? 그러면서 어르신들도 오래 계시던 분들이라 여기서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 지희숙 : 축제에 내가 나와서 공원에서 동네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도 받고 느끼시네요. 엄마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는 것은?

- B(여성, 40대) : 갈 사람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갈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요. 브랜드 같은 것들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정림동은 갑천이랑 주변 환경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이들 키우면서, 도안동으로 이사 간 엄마들도 시장은 여기로 장을 여기로 보러 올 정도로 물가도 저렴하고, 인심 같은 것도 있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래살고, 오래 다니다 보니 안면이 자연스럽게 터지는. 저도 신랑이 동네 유지라고 하는데. 이제 결혼해서 서울에서 왔는데 세탁소라던지, 편의점 등 자주 다니는 곳은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인심도 좋으시고. 제가 서울에서 30년 살다 왔지만 대전 전체적인 분위기가 착한 것 같아요. 아침에도 발열체크하고 하면서 '안녕!' 인사하면 다 '안녕하세요' 애들이 인사 받아주고, 손 세정제 짜주면 '고맙습니다' 할 정도로, 저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영약하지 못하고 독하지 못해요. 순한 것 같아요. 정림동도 그렇고 대전이 그렇고 순한 동네인 것 같아요. (건강한 마을이네요) 학군 이라던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희 신랑도 좋아하거든요 편안해하고, 엄마들도 보니까 더 단합도 잘되는 것 같아요. 여기 유치원, 이동을 잘하지 않으니까,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로 가니까 커뮤니티가 그대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단합도 잘되고, 제가 여동생이 서울에 있지만, 학교 활동 이야기 하니까 이번에 20명 꾸리니까 '어떻게 20명을 꾸릴 수가 있어?' 흔치 않다고. 연락도 그냥 전화로만 '도와주세요' 해도 '네 도와드릴게요' 할 수 있는 (그만큼 동네 안의 커뮤니티가 살아있네요) 그렇게 보니까 유치원에서 저는 제가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그렇게 안했지만 유치원에서 학부모님들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끼리 모임, 엄마들 모임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까지 연계되는 팀들이 많더라고요. 구성원들이. 그런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훨씬 단합도 잘되고, 이번에 발열도우미 이것을 했을 때도 이쪽에 도와 달라 했을 때 이쪽으로 연결이 잘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다른 사람한테도 알아볼까요?' 약간 다단계처럼 착착착 가는(돌봄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연결망이 살아있음) 네. 그런 것들이 잘되어 있다. 서울에 비해서 특히 정림동이 이런 연결고리가 살아있다. 아까도 구성원들의 화합이 잘된다고 했을 때도 그런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것이 아닌가. (모임을 하는 것이 있으신지?) 저는 여기는 학교 말고는 직장이 있어서 없어요.

- C(남성, 60대) : 저는 서두에 말했지만 정림동에 온지 1년 반 되고, 아침 먹으면 나와서 저녁에 가고 주민들하고 많은 접촉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는 사실 별로 없어요. 다만 그냥 돌봄이 필요하고 돌봄이 이루어질 때 역할이 있다면 적극 참여 할 수 있다는 것. 선생님 말씀하시는 중에 평소에도 생각했던 것 하니까. 오늘 와 닿은 것이 어르신들이 쌀이 없어서 굶을 지경은 아니지만 혼자 찾아서 밀반찬 먹기 싫고 밥 먹는 것이 식사 할 때 있으면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오고가면서 둘러도 보고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구하는 걸로. 주민으로서 요구한다면. 수릿들공원 동사무소 이쪽 공원이 옛날말로 마당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면 어떨까? 제 어린 시절에 시골에 마당이 있으면 집에서 밥 먹고 엄마가 데리고 고추 따러 일하지 않고 자유 시간이 되면 어느 마당으로 모여요. 여자들 고무줄놀이하고 사방치기 하고, 남자들 말뚝박기 하고 그러다 싸우기도 하고, 앉아서 놀기도 하고, 거기가 마당놀이, 마당이 놀이판이 되잖아요. 자유롭게, 개인집 마당이지만, 그러면 마을마당에 모이면 서울의 파고다 공원, 대전역 보면 어르신들 보면 집에서 나와서 노숙자처럼, 노숙자가 아닌데 집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나오시잖아요. 윗놀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저기 장기, 바둑 두는 사람. 아바위꾼 짤짤이 돈내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저녁에 가고. 이러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아까 소외된 심심한, 무료한 어르신들이 슬슬 (눈치 보지 않고) 거기서 장기, 바둑 훈수 두다가 뺨도 맞고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가끔 저 같은 사람이 버스킹도 하고, 모이신분 있으면 우리 복지관에서 오신 분들한테 뭔가 이벤트도 하고, 그쪽에서 마침 그런 마당놀이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면, 마을에서 어떤 기부금을 건넌, 국가의 지원을 받던 그런 것 해서 푸드 트럭을 매주 화요일 날 12시에는 푸드 트럭이 와서 잔치국수, 내일은 샌드위치해서 한 200-300명씩을 무료 급식을 할 수 있는 날이 있다면, 급식 하러 30-40분 미리 와서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가고 그런 마당이 조성되면, 지금 마침 정림동에 푸드 트럭 협동조합이 생겼어요. 그런 분들과 지원도 받고, 그럼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제가 말이 많은

데, 그냥 연구고 계획을 떠나서 중요한 것이 실제 임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필요를 채워주고,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내가 몸과 물질을 기부를 하더라도 자기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부엌 앞으로 어울림센터에 공유부엌 설치 될거고, 어르신 돌봄 센터도 생기고, 청소년문화마당도 생길 거고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이 영역마다 따로따로 연구 개발 실천하는 것보다는, 어떤 공동 각 기관마다해서 통합을 해서 그것이 유기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과잉 활동과 과잉시설이 되지 않게.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선 칠고게임만 맨날 하면 식상하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나 주관 처들이 있으면, 충분히 주민이 2만 7천명이 살고 있는데 2만 7천명 중에 2천-3천명이 매일 어딘가 돌봄의 기능의 수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 지희숙 : 마지막으로 참여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발언하지 못한 것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A(여성, 50대) :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다보니까 학교의 영역, 아이들의 것은 말은 안했는데, 행사를 하다보면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해요. 어르신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진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더 좋아요) 여기 엄마들도 참여율이 엄청 높아요. 진짜 그런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전 세대가) 그런 활동으로, 항상 할 때마다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엄마 아빠들이 즐거워하고, 가족이 함께 나올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 B(여성, 40대) : 아까 하셨을 때 솔직히 돌봄이라고 했을 때 제가 대상이 되는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상관이 되는 이야기인가. 계층 이야기 하시다가 교수님께서 지역주민을 위한 거라고 했을 때 아! 내가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돌봄의 대한 인식의 개선 이라던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 돌봄이라니까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저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 내가 여기에서 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돌봄을 인식하는) 그러다보니까 아마도 더 활동을 쉽게 못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 생각을 처음부터 했거든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속으로 제 생각으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구나, 나도 대상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 C(남성, 60대) : 저는 이러한 연구 모임에 처음 와봤어요. 참가한 것이. 그래서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대에 연구 모임이 있다는 것이 반갑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소외되거나 관여가 안 된 부분들이 찾아지고, 또 거기에 해결방법이 나와서 그렇게 되는, 부분, 영역, 처소 연령대로 돌봄 기능이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마을이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세상이 좋은 마을이 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 지희숙 : 공부가 되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말씀해주셔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임진섭 : 저희가 연구모임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지역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그분들이 정책이나 제도로 도움을 받고 계시지만, 나라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같은 마을에 살면서 마을에서 접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을까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실현도 해보고, 우리 사회에서 마을주민으로서 같이 숨을 쉬는 주민으로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참여할 수 있을까? 돌봄에 끌어올 수 있을까? 수렴하고자 자리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나서기 힘들셨을 텐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잘 정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영선 :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당 말씀하셨을 때 마음이 차올랐어요. 결국은 정림동에 각자 잘하고 있고 따로 하던 것을 정림동이라는 마을 마당 안에 어떻게 하면 잘 담아낼지, 잘 담아내서 모두가 잘 어울리거나 행복하거나 이런 지점을 잘 찾아내지가 저희가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따로 혼자 잘 할 것이 아니라 그 마당에서 같이 잘 어울려야겠다 말씀해주셔서, 돌봄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구나. 돌봄의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돌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4. 마무리 : 이리나 팀장**

- '오며가며 또 만남시다' 라는 말로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인사하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게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점집단인터뷰 녹취 전사록(2차)
<p>○ 일 시 : 2020. 9. 25(금). 19:00 ~ 20:30</p> <p>○ 장 소 : 정림종합사회복지관 3층 아름드리실</p> <p>○ 대 상 : 마을활동 참여 경험이 많은 주민 집단</p> <p>○ 참석자 : FGI 초대대상 5명, 연구진 3명(임진섭, 이리나, 권진주)</p>
<p><b>1. 인터뷰 안내 및 참석자 소개 : 이리나 팀장</b></p> <p><b>2. 인터뷰 진행 : 이리나 팀장</b></p> <p><u>Q1. 정림동은 다른 동네 비해 주민참여가 활발한 마을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u></p> <p>- H(여성, 30대): 그러니까 저도 여러 동네를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던 건 수밋들공원이 떠 오르긴 했어요. 다른 동네는 공원이 이렇게 많이 있는 동네도 많지 않을뿐더러 전 세대가 수밋들공원 이용자가 어르신들도 계시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이 엄마들도 나와 있고 청소년들도 거길 이용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대가 모일 수 있는 집합점이 약간 수밋들공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밋들공원도 하나의 그렇게 주민참여의 활발한 매개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정림동이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서로 친한, 두루두루 친하진 않지만 친한 집단들이 있어요. 엄마들은 아이 엄마들끼리 좀 친하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끼리 친하고, 친한 집단들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을에 누군가에게 그런 게 있대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해봤고요. 음.. 그것들도 서비스 제공을 해주는 복지관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해봤어요.</p> <p>- G(여성, 40대): 저도요, 오래 산 주민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2004년부터 살아가지고 이제 가게나 이런 분들도 다 아시고 저희 애들도 다 알아보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마을이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친숙해지고, 나오는 게 부담이 없는 거죠. 어디 가든 아는 사람들이 있고 쉽게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오래 거주한 게 큰 것 같아요.</p> <p>- 이리나: 그래서 오래 산분들이 많고 쉽고 하나씩 뭐 동네에 뭐 한다 하면 좀 더 쉽게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 더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어요.)</p> <p>- 이리나: 그럼 우리 선생님이 이어서..</p> <p>- D(남성, 50대): 저는 이제 고향친구나 아니면 다른 모임에 가거나 하면 저희 동네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첫 번째 하는 건 뭐냐면 지형적 그.. 마을만의 뭐, 간단히 우선.. 개인적으로는 지형적 형성이 있고요, 저희 들 동네만 움푹 들어와 있잖아요. 집값도 제일 안 오르고, (웃음) 지난번에 회장님께서 आय, 우리 마을은 나중에 집값 오르면 걱정된다고, 다른 덴 다 오르는데 여기만 안 올랐어요, 사실은. 동 대표 하다가 알게 됐는데 우선 지형적으로 이렇게, 페트병 움푹 들어가 있는 모양의. 저희 동네만 유독. 이런 마을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활동가들이 많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여기 복지관 중심도 있겠지만은 어울벗도 있고, 저는 몰랐어요, 예전에 축제 하다 보면 우리 마을에 저런 단체들이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깨어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복지관 하나만 생각했는데, 큰 행사 가면 자생단체에서도 오고, 개인적으로 참 좋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자생단체가 많다고 해도 사람이 참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열려있어요. 그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p> <p>- E(남성, 40대): 그.. 저희 태권도장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정림동.. 아니, 저희 태권도장에는 다른 동네 애들이 안 와요. 그리고 우리 동네 애들은 다른 동네로 안 가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결속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돼요. 아까 지형적인 걸 말씀을 하셨는데, 네, 한때 복수동에 막 입주하고 할 때 있었잖아요. 예전에 2005, 2006년인가? 여기서 복수동으로 되게 많이 나갔어요. 친구들이. 학원도 그쪽 갈려고 하고. 근데 가봤더니 별거 없더라, 도안동에 오픈했을 때, 막 갔어요. 또 갔더니 별거 없더라. 지금은 보면 이제 태권도장 입장에서 말씀 드리면 다행히 정림동 애들은 나쁜 말로 하면 못 나가요. 좋은 말로 하면 똥똥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주민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가려면 여기 길하고 저기 길밖에 없어요. 그죠? 혜천대 쪽이랑 삼거리밖에 없잖아요, 나가려면. 그러다보니까 출입로가 확실해요. 다른 데서 오기도 힘들고, 물론 가수원동에서 밀으로 내려올 수 있기는 하지만, 주 출입로가 두 군데니까.. 그걸 봐서도 동네가 똥똥 수밖에 없는 이</p>

<p>런 환경이 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했던 말씀 또 드리는 건데. 제가 생각했던 거라.. 오래 사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아무리 또 오래 사신 분들 많고 환경적인 게 있어서 누군가는 주도를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 주도를 해야 하는 건데 그 역할을 또 잘 해주고 계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p> <p>- 임진섭: 복지관이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p> <p>- E(남성, 40대): 네, 네.</p> <p>- 이리나: 대표님, 저희가 이 질문 가지고 얘기를 계속 쪽 했어요. 정림동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주민 참여가 활발한 마을로 소문이 났다, 동의하시나요?</p> <p>F(남성, 30대): 동의합니다.</p> <p>- 이리나: 정말요? 그럼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딱 떠오르는 생각..</p> <p>- F(남성, 30대): 네, 저는 단어로 생각하면 발언권? 발언권.. 주민에게 발언권이 있다, 그 발언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주관해서 이걸 하자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열어주시기 때문에 발언권이 생기고, 그로 인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정림동은 다른 동네에 비해 주민의 참여도 높고 활발하게 다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p> <p>- 이리나: 감사합니다. 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이정도..</p> <p>- 임진섭: 말씀하시다가 아까 미처 하지 못했던 말 있으면 또 나중에 하셔도 돼요,</p> <p>F(남성, 30대): 네, 알겠습니다.</p> <p>- 이리나: 제가 한 번 정리를 하면.. 모일 수 있는 장이 많다, 공원 같은 곳도 많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대표적으로 수밋들공원이 있다, 그리고 많이들 얘기하셨던 오래 사시는 분들, 정주율이 높아서 알고, 얼굴 보고 알고 지내는.. 아들 딸도 다 알아보시는 주민 분들이 많더라. 그리고, 아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마을에서 뭐 한다 했을 때 별로 거부감 없이 나오게 되더라. 그런 얘기 하셨고, 중요한 얘기도 하셨죠. 이 동네 자체가 약간 지형적으로 이렇게,, 딱..</p> <p>- E(남성, 40대): 향아리예요.</p> <p>- 이리나: 네, 이렇게 돼있어서..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못 나가고, 관장님 표현대로, 좋게 얘기하면 똥똥 뭉친다, 이 안에서,, 이게 지형이 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 얘기해 주셨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우리 D(남성, 50대) 주민이 얘기해주셨는데, 예전에 비해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겨나 있는 것 같다, 또는 원래 있었는데 몰랐다가 같이 하다 보니 알았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주민들의 마음이 일단 좀 뭐 하자 했을 때 달혀있지 않고 열려있다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래 사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서 뭘 해보자 라고 주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힘드는데 주도해주는 역할.. 여기 복지관이라고 해서 복지관만 얘기해주시긴 했는데, 그런 주도 역할을 해주는 기관들이 이 안에 정림동 안에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되게 멋진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주민들에게 발언권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게 좀 받아들여진다는 느낌도 있으신 것 맞으신가요?</p> <p>- F(남성, 30대): 네.</p> <p>- 이리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참여하는 것들에 부담이 없고 더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활발해졌다고 여기 계신 분들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맞나요?</p> <p>- 다같이: 예.</p> <p><u>Q2. 마을 활동을 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갈등,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다</u></p> <p>- 이리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신 위원님들은, 선생님들은 그동안 마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모범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갈등, 애로사항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속한 기관에서, 마을활동과 결합해서, 정림동 안에서 내가 속한 이 단체, 소속기관이 어떤 어려움, 마을활동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혹시 그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한 게 있는가, 극복 못하셨어도 됩니다. 해결한 경험이 있는가, 이거를 한 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좀 굉장히 어려우셨던 거죠?</p> <p>- 이리나: 저희, 회장님 먼저 얘기해주실까요? 이런 거 요즘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는 극복하는지</p> <p>- G(여성, 40대): 저희 단체하고는 좀 안 맞아서.. (질문과)다른 걸 생각해가지고.. 봉사활동 하면 뭐가 있는지.. 그거를 생각해가지고..</p>
---

- 이리나: 봉사활동하면서?  
 - G(여성, 40대): 그래서 저희 조직하고 연결해가지고 생각을 못했어요. 봉사활동 할 때 어려운 점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 이리나: 개인의 입장에서? (G(여성, 40대): 네, 개인의 입장에서.)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 조금 해볼게요.  
 - G(여성, 40대): 저희 봉사활동이요? (이리나: 네네, 선생님이 원래 생각하셨던 것.)  
 - G(여성, 40대): 저는 어색한 거죠.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분을 케어를 한다거나 해야 될 때 그 어색함 때문에 저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이런 거 생각했는데 이거 생각해봐야 되나요, 지금?  
 - 임진섭: 여기 오신 분들이 각자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시기도 하고, 또 우리 수मित들축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정림동 안에서 이뤄지는 이런 대표적인 행사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큰 틀 안에서, 정림동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들.. 이런 게 좀 개선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거, 분명히 그런 게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가 속한 단체 일이 아니라 마을 일을 하면서.. 그쵸? 여기서 단체라는 게 이제 생업 이게 아니라 단체도 그냥 뭐, 봉사단체나 이런 것도 되니까.. 그쵸? 그래서 다 마을을 위해서, 정림동을 위해서 사람들이 힘을 내면서 뭔가를 하는 거인데, 그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들, 어려웠던 점들, 애로사항 등..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이 동네는 정말 살기 좋은 동네인 거고.. 네..  
 - G(여성, 40대): 저희 조직이 힘들었던 건요, 저희가 이제 마을활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 활동 범위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이나 이런 데서 그냥 정말 인력이 필요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저희가 그냥 마을활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의무적으로 나가는 일들, 이게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가?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있었죠. 이게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이고..  
 - H(여성, 30대):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서로 관계도 정말 좋잖아요. 어쨌든 처음 만난 건 서로의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뭉쳐져서 서로가 좋아서, 좋은 사람들끼리 뭘 해보자 마을활동을 해보자 라고 모였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몸도 힘들고 그리고.. 정말 때로는 가정에 소홀하면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올 때 이런..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해요.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조금 내 사생활을 손해 보더라도 나와야지 하는 생각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마을이나 기관이나 어디서든 과도하게.. 저희들은, 저희 주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 다 주부거든요. 그러면 가정도 돌봐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는데 가끔 저희의 그거보다 역량보다 좀 더 무리한 요구, 부탁이죠, 요구라기보다 부탁이죠. 부탁을 하셨을 때 그런 관계 때문에 단박에 거절하지 못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해놨지만 그럼 저희는 어쨌든 가정 돌봄이나 시간을 많이 저거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땐 가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봉사라는 것은 내가 시간적 여유 있는 시간에 내가 도움을 드리고 나도 만족하고 이게 돼야 되는 때로는 그 시간 이상으로 해버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해놓고 나와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사실 있죠. 뭔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기간 동안 이런 거를 조금 주도적으로 하지 못할 때도 가끔 있는 거죠.  
 - 임진섭: 일단 그런 마을 일을 하시면서 과도한 자기희생 같은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 H(여성, 30대): 느낄 때가 있죠.  
 - G(여성, 40대): 안함으로써 극복하고 있어요. (웃음) 좀 거절을 하는 법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좀 저울질을 하는 거죠. 우리 일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거죠.  
 - 이리나: 관장님은요? 조금만 얘기 더해주세요. 나는 그냥 태권도 학원 관장인데, 오늘 아침에 현수막 달려 오라고 하고..  
 - H(여성, 30대): 생명을 걸고.. (웃음)  
 - 이리나: 너무 졸린데, 아침에 되게 힘들게 졸려서 왔는데.. (웃음)  
 - E(남성, 40대): 그게 또 그렇게 되나요?  
 - H(여성, 30대): 아니, 낙법 하실 줄 안다고요...(웃음) 올려가셔도 된다면.  
 - 이리나: 그런 요구를 받으실 때..  
 - E(남성, 40대): 아니. 그..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시작을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 역량이 커지고, 또 역량이 커지다보니 요구사항들도 많아지고. 이리다 보니까..  
 - G(여성, 40대): 잘 하는 사람한테 더 잘 하라고..  
 - E(남성, 40대):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모르는 입장에서 말씀을.. 그냥 드는 생각이 이게 소통에 문제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 발언권도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냥 현수막 달려 오세요, 네 하고 오는 게 되고.. 또 이거 만약에 이렇게 뭐 인터뷰할 거예요 하면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하고 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는 건지 우리가.. 그리고 이거 다음 문제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주민 참여를 더 많이 할까에 대한 질문도 있더라고요. 그거랑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마음이 맞으면 뭐든지 다 열심히 하게 되고, 같이 좋은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즐거운 거잖아요. 굳이 그게 일로 다가오는 것보다,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분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다행히 어떠한 일거리가 생겼어, 그럼 그걸 같이 하면서 즐거운 건데 지금 그게 이상으로 넘어가니까 과부하 걸리신 거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서로가 모든 사람이 이게 공감이 되고, 어 좋아 좋아 내가 한 번 해볼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보고 하라 그러지?  
 - H(여성, 30대): 관장님이 저희 조직을 아는 것 같아요.  
 - E(남성, 40대): 그러면 제가 들어갈까요? (웃음)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조금 느끼 거예요. 불만이 아니에요. 어려움도 아니고. (웃음) 오해하실까봐. 정말 오해하실까봐. 그.. 아까 말씀 드린 장점은 장점이 누군가 주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주도하시는 분들은 매일 만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게 되지만 그냥 이제 어떠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깊이 몰라요, 잘. 깊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해야 돼? 해야지 뭐, 마을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이게 같은 마음을 품는다면.. 좋은 마음이잖아요. 좋은 마음을 같이 품는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소통의 문제들이 조금 약했지 않나..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 임진섭: 그러니까 이제 일손이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막상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는 없고, 도와달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뭔가 좀 주변에서 걸도는 듯한.. 핵심은 뭔가 그거가 아닌가.. 거드는 차원보다도 상의를 하지만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 E(남성, 40대):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 H(여성, 30대): 저도 여기 써 놓은 것 같아요. 이유를 모르는 봉사. 뭘 시켜서 하긴 했는데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의미를 모르고 하면 이걸 도대체 이걸 해서 우리 마을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약간 비전 제시를 해주면 아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게.. 더 마음을 갖고 할 텐데, 그냥 시켜서 하면, 애들도 시켜서 하는 공부는 의미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이유를, 자세한 설명 없이 그냥 이거 부탁드려요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마음이 덜 간다고 해야 하나.. 하긴 하지만 마음이 덜 간다고 해야 하나..  
 - 임진섭: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덜 생기죠.  
 - E(남성, 40대): 동기부여가 확실해야 되는 건데 동기부여는 덜 돼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 이리나: 그런 부분들이 봉사활동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 E(남성, 40대): 애로사항은 아니에요. (웃음)  
 - H(여성, 30대): 그렇다는 거죠. 말하다 보면.. 굳이 얘기하라고 하시면.. (웃음)  
 - E(남성, 40대): 아마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애로사항은 아닌 걸로.. (웃음)  
 - 이리나: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 F(남성, 30대): 저는 이제 반대로 참여 횟수나 참여율이 적은 부분도 있어서.. 어떤 행사에 연주를 만들어서 도움을 드린다던지, 그런 것 외에 것들은 없어요. (잘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피로도가 누적될 텐데 저는 오히려 좀 갈증이 있죠. 반대로. 그런 것 외에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제가 제시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렇다기보다 제가 하는 일이 어떤 순전한 봉사 일에는 또 관련이 많이 없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그런 애로사항을, 하면서 피로도에서 오는 애로사항보다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부족분이 생겨서 오히려 힘들지 않나.. 반대로 저는.. 결핍현상이라고 해야겠죠. 그냥 제 관계성을 빌어서 조금 더 이런 분야의.. 한 번 더 보면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 텐데, 스스로 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면 약간 주책 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면 뭔가 사업 같고,, 뭔가.. 직접적인 주관.. 복지관 주관이 아니면 개입하기도 좀 애매하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네요.  
 - 이리나: 제가 이제 대표님이 하고 있는 봉사활동 중에 00. 저희가 다 아니까요. 00친구들과 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시도를 하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같이 해오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과 같이 음악활동을 하시면서, 또

는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들은 없으신지..

- F(남성, 30대): 아,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음.. 그런 이제.. 특수하니까 거긴.. 아이들이 보육시설이다 보니까 밖에 연주 나가서 누구다 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 아이들을 생각하면 동네 친구들인데, 00보육시설에서 나와서 연주를 한다고 하는 게.. 비밀을, 얘기를 안 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자기 그런 거를 보여 줄 때..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00은 참여하고 싶지만 아이들한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연주할 건데 할래? 물었을 때, 사춘기인 아이들이 싫어요 하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몇 번 캔슬 된 이유들은 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 이리나: 그럼 동네에 있지만 동네에서도 좀 약간 신경이쓰이고..
- F(남성, 30대): 그렇죠. 공연을 하기 엔 좀 그렇죠. 예민해서, 아이들이..
- 이리나: 그렇다고 빼기도 좀 아쉽고..
- F(남성, 30대): 그렇죠. 제 입장에서 이제 아이들이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게 좋고, 원 입장에서는 대외활동을 하는 게 좋고... 뭐 그런 갭이 있죠. 근데 아마 원에서도 요즘에는 그렇게 원치 않는 것들은 안하는 추세긴 해요.
- 이리나: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 00선생님은요,
- D(남성, 50대): 음악도 하시고, 체육 재능이 있으신데, 저는 그런 재능이 없거든요. 어쩔 땐 좀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재능이 있다면 뭘 해볼 텐데 저는 주로 몸으로 뛰는 것들을 해요. 그래서 아까, 공원이 수릿들공원만 있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앞에 큰 정림공원 좋은 데 있어요. 제가 왜 자랑하냐면은, 애들이 초등학교 아직 못 갔다든지, 곧 가는 애들이 수릿들을 많이 놀러왔어요. 저기 우성아파트 있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좀 개인적으로 이걸 아니다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애들이 놀고 가면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갈 때는 그 아이들 엄마들에게 우리 한 번 치웁시다, 그러면 엄마들 같이 가가지고 치우고 그랬어요. 몇 번.. 그랬는데 이제 애들 다 크고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저희 아이들 또래만한 애들 데리고 오는 엄마들은 신경을 안 써요. 버리든 말든. 참 이걸 교육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배드릴 때마다 저희 정림동 저쪽.. 치우기 시작했어요. 조금 치웠는데,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난 주 토요일인가 교회 청소하다가 이렇게 보는데 할머니 두 분이 앉아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 얼마 받고 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닌데요. 지저분해서 치우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돈 받고 하는 줄 아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분들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분들이 오셔서 돈으로.. 물론 돈을 벌면 좋지만은, 안 버리는 것도 교육이고, 또 젊은 애들이 이렇게 주울 수 있고 그런 걸 조금 해봐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공공근로로만 해버리고. 너무 아이들 교육엔 소홀 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봉사라는 걸 작은 데부터 조금씩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쓰레기 좀 다 보면 아저씨 자기 있는데 이래요. 애들이요. (웃음) 예전에 여기.. 홍수 났었잖아요. 와이프가 속에 이만한 돌멩이가 저기 수술 한 번 했어요. 근데 그거 하기 전까지 살을 빼야 된대요. 와이프가 00병 원 다니는데.. 그래서 한동안 같이 다니는데 홍수, 아니 수해 나서 시작했는데, 비 다 내려왔잖아요. 갑천변에 쌓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한 번 줍자 했더니 와이프가 자기 몸 아프대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애가 안 간다고 해서 용돈 주면서 데려 갔더니 애가 SNS에 해가지고 4명 불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용체육관 앞에다가 계단 있는 데에다가 치운 걸 쌓아 놔어요. 쌓아 놔는데, 사람들이 치울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쌓은 데에 쓰레기를 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구청에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치우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가는데도 사람들이 산책하면서 이 쓰레기를 주울 때 같이 봉투에 넣어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산책은 산책대로 하면서.. 그러 길래 아이들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생각을 바꾸는 것.. 나는 행사도 좋긴 좋지만은 사람한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좀 더.. 그런 정적인, 마음적인 그런 거에 행사를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수릿들축제라고 오긴 오지만 각 단체들은 재능도 보여주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하긴 하면서도 이제 사람들이 그.. 가장 기본적인 거, 집에서도 치울 줄 알면 나와서도 치울 줄도 알고, 안 버리면 안 버리고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가져야 되는데, 뭐 이런.. 떨어진 거 왜 줍냐 그러면서 봉사활동 해야한다고. 봉사활동 하면 다른 봉사활동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다 좋지만 주변에 좀 버려져 있는 것도 주웠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 드렸어요. 답답하니까. 나중에 한 번 해보자고 얘기 하셨어요. 또 아까 말씀하신 건데 틀에 박힌.. 사고가 바뀌면 또 안 좋잖아요. 봉사활동은 마음적으로 느껴야 되는 건데., 느끼는 것도 너무 저기로.. 사실은,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보는데 복지관이 힘이 미약했을 때는(복지관이

크게 주도하지 않았을 때는) 각자 조금씩 해서 순수한 봉사활동이긴 했는데 복지관에서 틀을 잡아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대신 우리가 할 때, 나는 이거를 확실히 맡아서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자발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관 오면 관장님이 딱 하고, 밑에 있는 실무하시는 분, 선생님들 있으니까 너무 체계적이예요. 복지관 내에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라기 보다는 복지관 같은 곳에서 뭔가 내려주면(활동을 하게되면),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뀐 것 같다고 저는 늘 얘기해요. 개인적으로.

- 임진섭: 그건 이제 장점이자 또 단점이지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아, 이게 또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구나.
- D(남성, 50대): 네, 복지관에서 하는 만큼 저희들은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가 아닌 그냥 하나의 틀에..
- 임진섭: 하나의 짜여진 틀에, 복지관에서 만들어낸 어떤 틀 안에..
- D(남성, 50대): 네, 그걸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솔직히.
- 이리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 D(남성, 50대): 복지관 활동이 좋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 임진섭: 그만큼 복지관에서 활동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 D(남성, 50대): 그래서 제가 아까 활동가라는 표현을 그래서 쓴 거예요.
- 임진섭: 그러니까 봉사활동도 그렇고, 좀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마을활동의 한 분야고.. 또 우리 동대표도 하신다고..
- D(남성, 50대): 아니요, 공부 때문이에요, 지금은 아니구요.
- 임진섭: 굳이 마을활동이라는 게 봉사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 마을을 위해서 모든 활동을 하나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뭔가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라든지, 뭐, 홍보 좀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 D(남성, 50대): 그래서 이따 대안할 때 말씀 드리려고, 우선 이런 애로사항만.. 극복에 나오니까요.
- 이리나: 네, 혹시 더 덧붙일 얘기 있으신지.. 그러면..
- 임진섭: 맨날 뭐 하는 사람만 한다든지,, 그죠?
- 이리나: 정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마을활동을 하려고 갔을 때, 일단 첫마디 어색함, 활동이 어색하거나 모인 사람이 어색하거나 내 자신이 여기 왜 왔는지 어색하거나 여하튼 어색함이 활동에 애로사항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그리고 어딘가에 내가 소속된, 00주민조직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저희는 한번이지만 이 한번을 여러 기관에서 요구하면 00주민조직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부에서 과도하게 요구 받고 역량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요구받을 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겠고 이런 어려움이 좀 있더라.. 그리고 소통의 문제도 짚어 주셨어요. 소통이 잘 안 돼서 뭔가 좋은 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뭐 때문에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무슨 의미로 이걸 하는지 잘 모르겠고 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는 얘기도 했고, 오히려 난 더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할 수 있는 범위들이 내가 갖고 있는 걸로는 좀 약한가? 혹시나 제안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까,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말씀해 주신대로 차라리 내가 재능이 있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제안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없다는 게 나한테는 활동의 어려움으로도 다가온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중요한 것,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같지 않거나 또는 봤을 때 마을 안에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을 때 이런 어려움도 겪는 것 같다, 그리고 복지관처럼 뭔가 주도해주는 곳에서 체계적으로 잘 해줄 때 장점도 있지만, 한 편으로는 누가 이렇게 끌고 가주니까 자발성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들도 있다, 요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뽑아주신 애로사항으로 한 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얘기에요. 정림동 그러니까 마을활동, 봉사활동 이런 것들 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의지가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이걸 계속 유지해 나가고 또는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솔직히. 주민들의 의지와 힘만으로 마을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가 힘든데, 질문을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그냥 내가 좀 더 마을의 일을 관심 갖고 봉사활동을 더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떤 도움이 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마을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주민들이 아까 말한 자발성 없이 따라가는 객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도적으로 마을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같이 여쭙려고 합니다. 어떤 분 먼저..?
- H(여성, 30대): 시험문제를 준비해왔는데, 갑자기 다른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당황스러운데.. (웃음)

- 이리나: 그래요? 이 질문이 있지 않았어요?  
 - H(여성, 30대): 있긴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일 줄은 몰랐어요.  
 - G(여성, 40대): 이거 알았으면 저희 회원이 늘었을 텐데.. 답을 알았으면 저희 회원들이 늘었을 거라고요.  
 - H(여성, 30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 이리나: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것도 정답이네요. 어떤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 그런 거?  
 - G(여성, 40대): 네, 여기 있는 해답을 알면 저희 회원이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해요.  
 - H(여성, 30대): 그 얘기는 하죠. 저희가 큰 걸 바라는 건 아닌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활동을 하는데 엄마들 이다 보니까 사실 다 사비로, 회비를 걷고 있지만 나와서 활동하다 보면 점심을 혹여나 사 먹더라도 7,000원, 8,000원이잖아요. 차 한 잔 마시면 10,000원이 훌쩍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을활동으로 어쨌든 봉사활동 나오긴 나왔는데 우리도..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우리는 밥만 사주면 하는데..(웃음) 우스갯소리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 크게 부담 된다고보다 어느 정도 마을활동을 하면 그렇게 하시는, 전문적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어떤 마을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활동비? 활동비가 되게 제한적이라고요. 그런 활동비가 있으면 엄마들이 조금 더 마음에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 G(여성, 40대): 조심스러워서.. 돈 얘기라는 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또.. 재네들은 지네들이 좋아서 하는 거 왜 돈을 요구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들은 좀 말하기가 부담스러워요.  
 - 이리나: 근데 말씀대로 어쩌다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주부시니까 별이가 특별히 없을 때는 계속 계속 나가는 거 이월 돈 나간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 G(여성, 40대): 네, 남편이 벌어들인 돈 쓰는데 조금씩 눈치가 보이죠. (웃음)  
 - 임진섭: 네, 선생님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주로 어머니들이 연락 많이 하시는 거죠.. 뭐 인제, 자원봉사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도록 홍보를 만약에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 H(여성, 30대): 자원봉사보다는 지금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만 거의 자원봉사보다는 그.. 나라에서 지원받는 그런,, 공모사업을 받아서 활동을 했죠.  
 - 이리나: 마을공동체사업.  
 - H(여성, 30대): 네, 그런 거에서는 사실 인건비는 아예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공모사업에서 인건비는 전무하고, 식사비도 제한적이고요, 활동비 뭐 우리가 어디를 물건을 사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사비가, 공모사업을 해서 마을을 위해서 활동을 하지만 쓸 수 있는 데는 되게 한정적인 거죠. 우리가 그냥 자원봉사, 좋아서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를 돈을 챙겨달라는 게 아니라.. (웃음)  
 - 임진섭: 충분히 이해가 가요.  
 - H(여성, 30대): 네, 그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왜냐면, 저희가 그거 뭐 마을활동을 하는데 돈을 사비를 다 들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공모사업이 있고,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는 있는데 재정이 안 될 때 그런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따내기도 하는데 그럴 때 저희들의 활동비나 저희들의 그런 거에 제약이 많다는 거죠.  
 - 임진섭: 그쵸., 뭔가 대가라기보다는 뭔가 활동하면서 들어가는 이런 실비지원 같은 것들.. 그쵸? 활동경비..  
 - E(남성, 40대): 부대비용.. 뭐 이렇게..  
 - 임진섭: 최저 활동경비만 있어도 더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 이리나: 그러면 얘기해주셨으니까 하나 더, 마지막 거..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도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 H(여성, 30대):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저희들이, 운영, 임원들이라고 하죠. 임원진들이랑 일반회원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식이 차이가 났던 게 다른 게 없거든요. 저희들이 더 많이 나오고 대외적인 활동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교육 듣고, 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지 우리가 뭐 뛰어나게 잘나서 바뀐 게 아니잖아요. 시작은 똑같았었는데 얼마나 많은 교육에 참여했고, 얼마나 많이 가서 봤고, 얼마나 많이 경험 했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 가치나 생각들이 많이 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오래 활동은 해왔지만 점점 더 회원들과의 생각 차이는 더 벌어지는 거죠. 임원진들과 일반회원들 간의.. 그러다보니까 주도적으로 마을활동을 이끌어 가려면 어쨌든 자발적으로 이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육이나.. 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 이리나: 0선생님 더 덧붙이신다면 어떠세요.  
 - G(여성, 40대): 교육이 이상적이긴 한데요. 그 교육을 받으려고 마음을 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웃음) 그러니까 강의를 오기,, 은연중에 같이 교육받고 그러는 게 관계, 전화해서 관계로 나가는 거지 특별히 처음부터 아, 나는 교육을 받아서 마을활동을 할 거야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교육받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건데, 그 교육을 받게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이리나: 방금 하나 얘기하셨어요. 관계.  
 - H(여성, 30대): 전화해주고, 관심주고, 관계로 끌어주고  
 - G(여성, 40대): 제가? (웃음)  
 - 임진섭: 어떻게 하면 이 마을활동에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나와서 뭐,, 관계를 맺고.. 그게 어떤 거죠? 어떻게 그거를.. 그냥 강제로 끌고 와..  
 - 이리나: 관계?  
 - G(여성, 40대): 관계로요?  
 - E(남성, 40대): 제가 하나 그냥.. 마을 운영하고 좀 관계가 없는 건데 하나의 샘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우리 마을하고는 상관없는데 태권도참교육지도자회라는 모임을 해요. 저희가 대전에서. 근데, 한 열댓 명이 운영하다가 50명이 됐거든요. 여기는 서로 막 오려고 하고, 심지어 이제는 잘라서 받아요. 네, 대전에서는 태권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가장 소위 말하는..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잘 나가는 분들끼리 모여 있는 도장이긴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주 오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무언가 배울 게 있고, 무언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임원들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교육받기 때문에 발전이 돼요. 근데 일반회원들은 공유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점점 그분들은 그냥 있고, 임원들만 올라가는 상황이 생겨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게, 그 각 팀으로 미션을 다 그냥 줘버렸어요. 똑같이. 똑같이 팀 미션으로 해서 여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겨루기 파트, 여기는 운영 파트, 이렇게 해서 했더니 자발적인 참여들을 하게끔 유도를 자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 바닥에 있던 분들도 이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되고 어떠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책임감을 느끼게 되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임원도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임원이니까 더 배우러 다니고.. 임원이니까 더 연구하려 갔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을 일반회원들한테도 자주 줬더니 그런 부분들이 생겼고.. 저희도 지금 이제 고민이에요. 뭔가 하면 예를 드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태권도도 전부 다 힘들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고민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태권도장에 있는 회원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기서 힘든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뭐 재정이 천오백 있던 걸 전부 다 각 도장으로 사범들에게 다 지원해주고 갔더니 바닥인 거예요, 재정이 울해 해야 할 사업들이. 그러니까 고민하게 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 이런 것도 고민하고 심지어 태권도 유품업체에다가 후원, 이런 것들까지.. 함께 해서 재정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마을사업으로 바꾼다면 지금 참여하지 않은 일반 분들도 어떻게 보면 참여하고 싶으나 몰라서 기회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원들은 계속 고민하는데 일반회원 분들은 발전 안 되는 거 보면 우리는 왜..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어떠한 미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주어준다면 그게 아무래도 연구를 좀 하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거를 맡게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뀔 것이고 그러다보면 전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게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 임진섭: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이 어떤 작은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그게 인제 불씨가 되어서 큰일도 해보고 예산도 끌어보고.. 그런 기회들을 갖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런 기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고 해야 될 것 같다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 H(여성, 30대): 평소에 하나 느꼈던 게 있었는데.. 들은 거예요. 어떤 전문가분한테.. 이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기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대요. 봉사를 했는데 그게 끝이야, 봉사를 하고 끝이고, 이게 누구에게 갔는지, 아니면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못해서, 다음에 할 때 조금 주저가 된다는 말을 듣고 속상하더라고요, 저도. 아, 이게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해서 동원이 되고 뭔가를 했지만 이 분들한테도 물질적인 보상은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 아 내가 좋은 일을 했구나, 뿌듯하다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 아 이런 곳에 쓰여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좀 줄 수 있으면 뭐, 주기적으로 줄 수 있으면 그게 좀 그분들에게 다음번에 또 한 번 해봐라지 라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임진섭: 기부나 후원물품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한 활동에 대한 뭔가, 이후에 어떤.. 그때 도와주셔서 이런 일이 됐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뿌듯한 일이고 다음에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 이리나: 네, 우리.. 우리 대표님 아까 어쩌면 내가 마을 일에 같이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실은 좀 제한적이어서 아쉬웠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어떤 지원이 있으면 우리 대표님이 더 마을 일에 끼어 들 수 있을까요?

- F(남성, 30대): 각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분들의 파트를 넘나드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이번 코로나가 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긴 했지만, 어떤 이런 공동체가 서로가 더 빨리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정림동 안에서 한 50명 아이들을 무료로 약기 지원해주고, 약기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을 못 만나고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더 많은 친구들한테 전달을 하는 게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온라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까 고민했던 많은 사람들한테 몰랐던 걸 알게 해주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온라인 매체로 끌어들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좀 더 빠른 시기에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피드백을 또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이리나: 지금 트렌드에 맞는 생각을 하셨군요.

- F(남성, 30대): 네..

- 이리나: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점심 직후 사무실에 다녀가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 F(남성, 30대): 저는 코로나 이후로 직업이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겸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원래 지휘자가 직업이고, 이것도 직업인데, 이쪽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한 순간에 못하게 된 거죠. 좋은 기회인지.. 사회복지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가, 오늘 때마침 여기 정림아동발달장애간호센터가 여기 4층에 있다고 해서 온 김에 점심에 잠깐 들렀습니다.

- 이리나: 아무튼 들려주셔서 축제.. 저희가 준비하는 축제 어떤 모양으로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좀 물어봐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시고, 이 안에서 내가 이 부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어쩌면 요런..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할 수 있을 만큼의 계기들을 계속 만들어야겠네요.

- D(남성, 50대): 제가 건의사항 좀 있는데.. 그 여기 아파트 가면 분리수거함을 쓰레기통 좋은 것 갖다놓으면 좀 그렇죠. 마대자루로 해가지고.. 녹색연합에서 와요. 활동을 하는 거를.. 회원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괜찮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구청에서 했거든요. 여기다가 사실은 쓰레기 많이.. 쓰레기통 없애는 추세데 이제는.. 근데 분리수거함, 이제 주민센터가 옆에 있으니까 마대자루 큰 거 해서 플라스틱으로 설치를 크게 하나 해주세요. 아이들한테 여기다가 버릴 줄 안다는 거 엄마들이 보여줘야지, 엄마들이 애들 그냥 맘대로 놀아라하면서 피해를 끼치니까(애들 교육을 안해주니), 그 애들이 커서.. 막 버려요, 사실은. 그리고 축제 때 물론 마지막 다 마무리하고 청소하고 끝나는 것도 좋은데 행진을 그냥 쪽 훑어서 쓰레기를 한 번 모은다 행진을 진행하면 어떨까.. 우리 마을이 이렇게 더럽다 라는 거를 알게.. (웃음)

- G(여성, 40대): 다른 데 보다 깨끗하지 않아요? (웃음)

- D(남성, 50대): 예전에 저기 동방여중 봉사단 있을 때 제가 정림동을 택해서 해봤는데. 이쪽 수릿들공원부터 해서 주웠는데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 H(여성, 30대): 그런 분들이 곳곳에 계셔서(쓰레기를 치워주시는 봉사들) 다른 동네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좀..

- D(남성, 50대): 그때는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축제 때 효도 효지만은.. 우선 사실 계속 교육이예요, 그냥 교육이 힘인데 보이는 쪽에서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 이리나: 교육적 효과가 있는 캠페인... (D(남성, 50대): 그렇죠.) 네.

- 임진섭: 그럼 이걸 여기까지 하고..

Q. 코로나로 인해 더 어려워진 사람들, 같은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 우리 마을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라의 제도 외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

- 이리나: 네, 이거는 저희 동네가 겪었던 가장 최근의 이슈죠.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사회적 이슈였는데, 저희 특히 이번에 정림동이 정말 역사적으로 남을 만큼의 폭우로 침수피해로 더 이제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이런 수해 피해

를 입은 분들도 물론이거니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더 힘든 사람들이 더 어려워진 상황, 또는 괜찮았던 사람들도 힘들어진 상황,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어,, 지금 우리의 관심이야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 정부나 지자체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럴 때,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끼리 힘을 보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혹시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 임진섭: 최근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 지역 안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 어떤 제도나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같은 마을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게 뭘까를 한 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D(남성, 50대): 우선은 저희도 힘을 보탠다는 개념을 크게 두 개로 봤어요. 사무실에서 문자 보다가. 하나는 우선 금전적인 거 하나 있고, 행동에 있는데 지금 당장에 저는 개인적으로 힘을 보태야 될 대상이 어느 정도 있는 가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얼 만큼 해야 되는가.. 만약에 그런 걸 좀 안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교회 가면 주위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좀 주실 수 있겠죠. 친구나 누구에게 하면. 여유 있는 친구들은 할 수도 있고, 금전적으로 면으로 도움을 준다면은.. 지금 그 저희가 알게 모르게 제가 여기 복지관 통해서 연탄봉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연탄봉사도 꼭 12월에나 추울 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막 계절 바뀔 때 제일 필요한데 이때 안 하고 봉사활동 막 점수 따기 위해서 12월 몰리고, 야구선수도 몰리고.. 야구선수도 봉사활동 많이 해요, 연탄봉사. 그런데 그 시기가 너무 늦어요. 그런 걸 좀 미리미리 해서 얼 만큼 도움이 필요한데, 어느 쪽에는 연탄이 얼 만큼 필요한데 어느 금액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모금 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조금씩이요. 어떤 데서 아까처럼 가정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렵다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분들 어른들 통해서 김치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몰라서.. 몰라서 인제 저희가 못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해주시고..

- G(여성, 40대): 저희도 코스모스에(수해피해지역) 봉사활동을 갔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갈 수 없어서 복지관에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저희를 불러달라고.. 중간에서 알려주는 기관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실제적으로 도움을 더 잘 줄 수 있죠.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 D(남성, 50대): 나중에 대놓고 얘기해주세요. 와서 사진만 찍지 말고 돈도 기부 좀 하고 가라고. 직위 있는 분들 신문에 보면 엄청 많이 왔어요. 왔는데 고작 50만원, 100만원 요거 해가지고 턱도 없던데요. 그리고 사진 좀 찍지 말고 기부 좀 하라고 당부 좀 해주세요.

- E(남성, 40대): 기부통을 앞에 문 앞에 딱.. 갖다놓고 안 넣고 갈 수 없게 만들어야겠네요.

- D(남성, 50대): 그렇죠.

- H(여성, 30대): 역할을 몰라서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역할을 내가 뭐 할 수 있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모르는 거 정말 큰 것 같아요,

- 이리나: 그런 걸 상상해보면요? 어떤 게 필요할 것 같든지..

- 임진섭: 우리 작년에 나왔던 연구결과 보면,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 이리나: 가사 간병 서비스, 뭐..

- H(여성, 30대):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임진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아니면 지역 안에 있는 복지사업팀들을 발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 H(여성, 30대): 저희가 예전에 협동조합 만들려고 고민할 때 생각했던,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긴급 아이돌봄이었거든요. 갑자기, 둘째 아이가 어린데 큰 아이도 있지만 큰 아이도 어린데. 둘째 아이가 갑자기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에 큰 아이까지 데리고 엄마가 택시를 타고 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급하게 사람을 어디서 부르거나 외부에 내 아이를 맡기기가 어렵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면 긴급연락망이나, 마을 안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 그리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을 안에서 달려가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그럴 때 아이를 잠깐 맡아준다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저희들은 주부다 보니까 반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복지관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반찬 같은.. 그러니까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생필품이나 그런 것들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 번 나갔을 때 반찬을 되게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 생필품이야 없으면 안 쓰자가 되는데,, 저희가 반찬을 한 가지 가져가고 생필품을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생필품이 뭔지는 관심이 없으시고 반찬이 뭐 왔는지를 더 관

십 있어 하시는 것 보고 저흰 의외였어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집에 뭐 있으면 샴푸, 린스 이런 거만 생각했지 반찬을 생각해본 적은 없거든요. 저희들이 주부다보니까 그런 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의견 주신 게 반찬 같은 경우 하다보면 손이 크니까 국도 많이 끓일 때도 있고, 근데 이게 버리는 아깝고 또 남고.. 먹고 나서 남은 것들을 가까운 이웃이 있으면 그것들을 먹기 전에 떠 놓고 드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 임진섭: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누구다 뭐, 어디에 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리스트업 이라고 해야 되나..

- H(여성, 30대): 그런 것들 써놓으신다고 하면..

- 임진섭: 도움을 주고 싶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줘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들.. 어디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 이리나: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돌봄이나 보살핌이 필요한지 우선 누구인지 모르겠고,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고 그래서..

- H(여성, 30대): 근데 제가 그것을 받아야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는 것도 싫을 것 같아요. 차라리 외부에서 와서 날 도와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나랑 연관이 없잖아요. 내가 이 마을에 살아하는데, 이 마을에 사는 건 알지만 내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마을에 사는데 어려워, 근데 우리 마을 누군가 주인이 나를 도와준대, 그게 되게 반갑진 않을 것 같아요.

- 임진섭: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죠.

- H(여성, 30대):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역할이.

- 임진섭: 선뜻 나서는 게, 남을 위해 선뜻 나서는 행동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고, 상처를 주지 않을까..

**Q. 우리 마을에 보살핌이 가장 필요한 주민들**

- 이리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 그냥 작년에 나왔던 결과들 얘기하면서, 작년에 인터뷰 결과에 언급 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쪽 그래도 나름대로 돌봄에 대한 인터뷰를 나누면서,, 우리 마을에 보살핌이 가장 필요한 주민이 누구까요?

- H(여성, 30대):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 이리나: 대상이 제일 단순할 것 같지만 다양하게요.

- 임진섭: 내가 마을활동을 하면서, 이분들이 진짜 제일 도움이 필요하더라, 근데 정작 도움을 많이 못 받는단 지..

- 이리나: 대상이어도 되고, 어려움에 대한 그런 것들도요.

- H(여성, 30대): 저는 어려움을 잘 알지 못해요. 저희 마을에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이 독거노인이 몇 분이 계시고, 아니면 밥 굶는 아이가 우리 마을에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몰라요.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보살핌이 필요한 주민이 누구인지를 우선 알 수가 없어요. 기관에서만 아시고.

- 임진섭: 많은 걸 느끼게 하는 말씀이시네요.

- G(여성, 40대): 저는 아이들이.. 제가 아홉시부터 나와서 여섯시까지 밖에 있잖아요. 그동안 아이들 케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친구 보면 한부모 가정이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 아빠가 늦게 오시고 케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밤 늦게까지. 그래서 저는 보살핌이 가장 필요한 건.. 아이들? 케어 받지 못하는 아이들..

- 임진섭: 보살핌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주민들끼리 좀.. 뭐랄까요.. 돌아가면서 뭔가 돌봐준다거나 비상근무 같은 거..?

- G(여성, 40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런 아이가 얼마나 있는지, 아이들 통해서만 듣고..

- 이리나: 또는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고, 돕는 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 G(여성, 40대): 그죠. 그 아이한테 내가 지속적이지 않을 때 그 아이가 만약에 상처라고 생각할까? 선뜻 뭔가를 못하게 되죠.

- F(남성, 30대):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아이들 쪽에도 있었고, 장애인 쪽에도 있었고, 인제 우리 측근들은 노인 복지에 있고 하다보니까 어..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나오는 파트인데,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분들은 다 손길이 가요. 손길이 가는데 아이는 손길이 가질 않아요. 사실. 돌봄이라는 게 학교에서 방과 후나 돌봄으로 끝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여섯시 이후면 다 끝나고, 방치되는 것들은 사실 아이들이 방치가 많이 되는 편이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사실 요즘에 크게 밥을 굶어서, 막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 극히 드문 일인데, 사실 아

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행동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사실. 돌봄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임진섭: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간병보호도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활동지원서비스도 있고, 다 하는데 아이들에게는 딱히..

- F(남성, 30대): 딱 끝나요. 시간적으로.. 저는 몰랐어요. 사실 정립동에 그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을 받는 분들이 많다는 걸 몰랐는데 저희 기관에서도 벌써 정립동에 굉장히 많은 활동지원을 보내고 심지어 수해 입었을 때 냉장고 지원해달라고 연락 왔었죠? 저희 기관에서 연락을 드렸는데.. 그걸 보면서 아, 장애인 분들도 케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렵긴 하지만 대상으로서는 혜택을 받고 있는 편이다..

- E(남성, 40대):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

- 이리나: 그 분야를 잘 모르겠다..

- 임진섭: 말씀하시기가 어려운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조심스러워서 어려우신지..

- E(남성, 40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환경이 다 다르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좋은 마음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해의 요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 H(여성, 30대): 도움을 요청할 때 보고서 도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럼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그러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필요하지 않는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도움이 필요한데 요청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저 정도는 혼자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그거를 판단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요 정도는 마을에서 도와줄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연결고리 그런 것들이..

- 임진섭: 그런 걸 주민들이 할 수 없다는 거죠?

- H(여성, 30대): 할 수 있는데..

- E(남성, 40대):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 거죠.

- H(여성, 30대): 해주어야 하는 게 왜냐하면 그거를 사생활이 드러나면 안되니까..

- 임진섭: 그거는 뭐 복지관이 됐든.. 주민센터가 됐든..

- 이리나: 그러면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이웃을 돌보는 활동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어떤 대상이 얼마만큼의 무슨 돌봄이 필요한지를 관리하거나 알려줄 수 있는 매개체,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늘어나는..

- 임진섭: 그게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Q. 어떻게 하면 마을돌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힘을 합쳐 이웃을 돌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F(남성, 30대): 저는 어.. 제 아이들 지도할 때 모두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음악이니까 그걸로 예를 들게요. 사회에서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단체를. 근데 그 대상이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이에요. 근데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는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을 모집할 때 차상위도 아니고, 돈이 적거나 뭐가 조건이 아니에요. 마음에 음악이 필요한 아이들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형편이 좋아도, 나빠도, 한부모여도, 다자녀여도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돌봄이라고 하고 그리고 뭔가를 알게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불쌍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맞다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돌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돌봄을 하는 프로그램을 보여줬을 때, 우리 마을에 애들은 가난한 아이.. 이렇게 낙인을 찍어놓고 캠페인을 한다, 이걸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가 자라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확인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 H(여성, 30대): 그래서 누군가를 도움을 안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기관에서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을 공감을 못하는 부분들.. 사생활 때문인 부분도 있고.

- F(남성, 30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뭔가 지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돕는 자고, 이 사람은 도움을 받는 자라고 지정을 해버리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 임진섭: 돌봄은 너무나 그냥 취약계층..

- G(여성, 40대): 포커스를 우리가 맞추고 있다 이거죠.

- 임진섭: 일반적인, 다 공평한 주민으로 만들고 가야 낙인을 찍지 않게 하니까.

- F(남성, 30대): 그게 가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 H(여성, 30대): 아까 말한 그 긴급 돌봄도 어려운 사람을 저희는 찾아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될 수 있는, 저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긴급 돌봄이란 게.. 내가 갑자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우리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우리 마을 안에서 잠깐 누가 봐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 임진섭: 우리가 항상 돌봄을 정말 항상 홀로 사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만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다는 거죠.
- 이리나: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복지에 대한 인식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이 좀 깨지는 계기가 됐었어요. 가장 컸던 게 긴급재난 지원제도 였고, 또 하나가 이게 뭐라고 할까, 복지혜택이라고 말한다면, 그 지원금을 복지혜택이라고 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상황이었어 라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려워진 것에 대한 받아들임이 다른 때보다 좀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이 재난이 누군가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받아들임이 조금 달랐던 거 같아요. 이게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엔 내가 어려워 라고 스스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약간의 그 경계가 좀 낮아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힘들어져 보니까 생각을 바꿔보니 어떤 누군가도 무언가로 갑자기 힘들어져서 힘든 사람이 되고, 힘든 상황이 만들어졌을 수 있겠다고 연결해 생각하시는 주민분도 계셨어요. 나도 내가 이렇게 갑자기 힘들어질 줄 몰랐어. 근데 내가 봉사를 다니면서 힘든 사람들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질 줄 몰랐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그 사람한테도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왔을 수 있겠구나, 예를 들면 같이 살고 있었던 남편이 없어서 가정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지금 나한테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것처럼 같은 힘들이었겠구나 라고 이해가 된다고 말해주신 주민분이 계셨어요.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아.. 코로나 덕분에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갖고 있었던 편견이나 낙인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겠다. 복지에 대한 접근이 조금은 쉬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임진섭: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긴급재난지원비 받으셨잖아요.
- H(여성, 30대): 반가웠죠. (웃음)
- Q. 돌봄과 관련된 활동에 어떤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할까요
- 이리나: 저희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못 다한 이야기 하고 긴 인터뷰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임진섭: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어디 계시고, 어디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좀 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막연히 하라고 하면 못하지만..
- H(여성, 30대): 대상을 알려 달라기보다 누군지 어디에 사는지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반찬이 필요한 가정이 뭐, 여섯 가정 정도 돼요 라고 해주면 저희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도 6개를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는.. 저희가 직접 가는 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직접 배달을 해달라고.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복지관에서. 반찬을 만들었지만,, 여기서 전달을 해줘야 하는데, 이분들은 또 나르는 직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갖다 주는 것까지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도 우려는 그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 G(여성, 40대): 그 분도 알리기 싫어해요.
- H(여성, 30대): 그 분이 싫어하실 수도 있고, 사생활이 노출된 거니까, 그 가정. 그래서 조금 더 인력이 많아 지시면 저희가 반찬해주세요 하시면 반찬까지는 해서 전달해드리고 사회복지사 분들, 여기서 같이 근무하시는 기관에 계신 분들이 전달해드리면 그분들의 사생활도 보호가 되고 저희는 저희들의 마음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 임진섭: 그런데 이게 보람을 느끼려면 그 분이 그걸 받고 기뻐하시는 걸 알아야 하잖아요.
- H(여성, 30대): 그런 피드백은 복지관이 역할을 해주어야죠. 그 가정이 이번에는 고기반찬이 좋으셨대요, 맛있으셨대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어 다음에는 더 맛있게 만들어야겠다는 피드백이 되는 거죠. 중간 역할을 해 주시기에는 너무나 많은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까지.. 감당할 수 없잖아요.
- 임진섭: 일단 그런 게 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건 나중에 강구하는 걸로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한마디씩 다 하셔도 되고요.
- 이리나: 소감을 얘기해주셔도 좋습니다. 끝내고 싶지 않으신 거죠? (웃음)
- 임진섭: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어때요? 권팅장님 어때요?

- 권진주: 네, 어, 되게 생각지도 못한 거에 대해서 다시.. 네, 좀 울림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 일하는 거에 대한 반성, 저도 일하면서 이렇게 못한 부분도 많고.. 제가 어쨌든 사회복지 시작하고 처음 그게 있었는데, 일하면서 많이 무너졌던 걸 반성하는 계기도 되고, 이게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있고, 낙인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져야 우리 옆에 사람 돌봐주고 편안한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경계가 가졌던 것 같아서, 주민들 간에,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런 선을 없애는 작업을 어떻게 주민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숙제가 되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이리나: 관장님도 한마디 하실까요..?
- E(남성, 40대): 네? (웃음)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창피하기도 하고요, 또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몰라서 못 돕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그리고 또 좋은 일을 하시는데 또 그것도 잘 몰라서 동참을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이런 것들이 더.. 홍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알려지고 또 서로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감사합니다.
- D(남성, 50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아이들 차별을 안 둔다고 하셨잖아요. 개인적 생각인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금전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축제 때 한 방에 끝내는 것도 좋긴 좋겠는데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아이들이 어디 급식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 말고, 급식 그런 건 좀 그러니까 애들 뭐 떡볶이 데이러는지 해주면 뭐, 떡볶이 파는 분들은 손해 볼 수도 있겠지만 차별 안 두면서 하는.. 저희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 두 번을 했어요. 한번은 뭐 했냐면, 사탕 있잖아요. 솜사탕. 애들 줄 서요. 그 앞에. 여름철에 또 팔빙수 하면 줄 서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픈 애들에게 저것도 좋긴 좋지만 오뎅이나 떡볶이 같은 것도, 누가 주면은 후원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한 번은 애들은 여기서 그거 먹고 여기서 재밌게 놀다 갔다 이렇게 가면 애들은 뭐 더 없잖아요. 근데 저희들도 어렸을 때는 PC방 가면 눈에 불을 켜고 쫓아가고 그랬는데, 놀이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다행히 거기 못 가서 그렇지만, 애들 놀이가 사실은 없어요, 요즘에. 다 PC방인데 요즘엔 PC방 못 가잖아요. 그래서 배고픈 아이들한테 그래도 놀 수 있는 게 차별 안 주고, 금전적으로 집안이 부유하든 않든 떠나서 아까.. 사실은 여기서 가장 여기가 공개적인 터있는 곳에서 크게 벌려놓고 야, 오늘 너희를 위한 날이다, 해가지고 뭐 후원받고 하면은 추울 때 떡볶이나 어묵 같은 것도.. 많이 않고 이만큼씩만 먹어도 아이들한테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사업을 더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축제를 위한 축제, 큰 목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평등하게 그렇게 아무 일 없이 가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겠는가.. 가끔 지난번처럼 개인적으로 좋긴 좋지만.. 참 그렇잖아요. 그.. 벚꽃축제 마무리 할 때 폭죽 쏘잖아요. 그런 게 한 방에 상당히 비싸거든요. 근데 축제 끝나고 저기에서 뱅뱅 폭죽 터뜨릴 때마다 저거 복지기금으로 쓰면 참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걸로 터지고 그 기쁨은 한 번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시원한 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저거 쓰임 있게 잘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막 있어요. 그게 개인차 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 F(남성, 30대): 네, 저는 이렇게 잊고 있다가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하고 있던 일 중에 중요한 걸 하나 얻었는데, 내가 많이 것들을 주고 있었지만 꼭 필요한 것들한테 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필요한 것들은 고쳐지고 필요한 것들이 조금 생기면서 진짜 봐야 될 것들 보게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 G(여성, 40대): 이런 자리들 올 때마다 맨날 불편하고 싫거든요. 근데 와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이들만의.. 뭐 해주신 조연들.. 사업들.. 그냥 이런 데 와서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H(여성, 30대): 저 또 해요? 한 거 아니었어요? (웃음) 저도 막 뭐 마을활동하면서 진짜 이것도, 마을활동도 업다운이 있어요. 업다운이 있는데 다운됐다가도 이런 자리 와서 다른 분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들으면 그래 저 분도 저렇게 하고 하는데 같이 또 힘을 보태야지 라는 업이 돼요. 이런 자리가 한 번 힘을 내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 임진섭: 말씀하신 내용들 보고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던 게, 또 아니었다는 걸 알고 굉장히 놀랍고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된 것 같고, 아무튼 정말 바쁘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나온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정립동의 마을돌봄을 위해서 중요한 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마무리 : 이리나 팀장**  
 - 이리나: 네, 처음을 열었으니 마무리도 제가 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끼리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오머가며 또 만납시다. 그리고 오늘 또 느꼈어요. 여러분이 정림동의 자랑이세요. 감사합니다.

초점집단인터뷰 녹취 전사록(3차)
○ 일 시 : 2020. 10. 26(월). 16:30 ~ 18:00 ○ 장 소 : 정림종합사회복지관 3층 아름드리실 ○ 대 상 : 자생단체 소속이며, 마을활동 경험이 많은 신규 리더 집단 ○ 참석자 : FGI 초대대상 3명, 연구진 4명(임진섭, 강영선, 이리나, 권진주)
<b>1. 인터뷰 안내 및 참석자 소개 : 이리나 팀장</b>  <b>2. 인터뷰 진행 : 강영선 관장</b> - 강영선: 오늘 시간을 통해서 그냥 갖고 계신 다양한 생각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은 저희가 각각에 맞게끔 드릴 건데, 내가 동네를 아울러서 대단한 정책을 해야 되냐.. 그거 아니고요. 그냥 내 경험에서. 순전히 내가 현재까지 했던 나의 경험에서 또 내 눈과 내 기준에서 그냥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그걸 종합을 할 거고요. 오늘 시간은 저희가 그냥 여섯시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시 반에 시작해서 보통 한 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특별히 세분 정도 모셨는데, 저희가 총 네 팀을 모셔요. 두 팀은 앞서 이런 시간을 잘 가져서 속에 있는 생각들, 경험들 잘 나눠 주셨고요. 오늘은 그래도 마을에서 중심적인 역할, 참여해보셨던.. 지사협도 그렇고, 도시재생도 그렇고, 그런 중심적인 큰 틀에서 움직여보신 분들의 생각은 어떤가 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하시면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사실 저희가 모임 많잖아요. 다른 동네에 비해서.. 모임도 많고 행사도 많고, 이런 일도 많고..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주민 분들이 많이, 나도 그렇고 주민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회장님 사실은 생업도 있으시고, 수업도 하고 작품 활동 하시는 것도 바쁘신데.. 이런 마을 활동에 처음 참여하신 계기,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해서 많이들 하는 것 같다.. 말씀을 먼저 열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 J(남성, 50대): 네, 다른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여기서 태어나서 쪽 자라오다가.. 군대를 가느라고 잠깐 나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졸업하면서 직장 때문에 몇 년 나갔다 오고, 그리고 다시 대전으로 와서 쪽 살아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제가 이제 하는 직업이 그,, 시내에서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머니께 말씀 드렸더니 좀 더 있다 오라고 그러가지고 시내를 배회하다가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요,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정림동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리고 정림동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겠다.. 늘 같이 내 고향이고, 내 집이고, 내 마을이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께서 보살펴서 잘 키워주셨고, 또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하시면서 저를 만들어주셨으니 저도 또한 마을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잘 몰라서 동사무소 가서 물어봤어요. 뭐를 하면 봉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벚꽃축제를 하는데 안전요원으로 좀 일단 와서.. 덩치가 있으니까 물에 빠지는 사람들.. 방지하고 또 그,,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거부터 시작이 됐어요. 동사무소 사무장님이 그때 안전요원으로.. 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게 해줬고, 그거 끝나니까, 그거 며칠 아니잖아요. 이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당일 날 안전요원으로 하고, 그 다음 날은 청소 정도 했고,, 그런데 그 다음 끝나니까 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서 또 물어봤죠.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없겠느냐.. 그랬더니 소개를 한 것이 방법대 활동을 얘기를 했는데,, 다른 얘기도 좀 했었는데, 낮에 시간을 내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일도 있고, 바깥에서 또 주기적으로 시간을 맞춰서 해야 되는 활동들이 있으니까 낮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그래도 좀 자유스러우니까, 밤에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시간 내기가 쉽겠다 생각이 돼서 방법대 활동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보니까 마을에 관심도가 높아졌고, 활동 영역이 커지니까 많은 사람들을 더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넓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바깥에서.. 또 필요한 만큼 해야 할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이지만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고 그분들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또 앞으로도 더 더불어 살 일이 많은데, 일단은 할 수 있는 내 만큼 정도는.. 마을을 위해서든, 나를 위해서든, 주민을 위해서든 필요한 거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나도 좀 내 할 일을 해야지, 매번 내가 필요한 것만 하고.. 정말 그.. 이기주의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사실, 살면서 누구를 봐도 나중에 가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좀 부끄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허락이 되는 한도에서 할 수 있는 걸 무엇인가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길었죠?

- 강영선: 직접 생각을 갖고 찾아가셨고, 그 다음에 또 요청을 받으셨는데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고.. 그 요청들을, 또 내가 할 일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관계들이 넓어지셔서 역할들을 다양하게 하셨다는 말씀들이시네요. 우리 위원장님도 어떻게.. 과정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 I(남성, 50대): 저는 대학교 때 이 동네에, 정림동에 들어왔는데, 대학교 다닐 때.. 결혼하고 나가서 살다가 사업한다고 정림동에 또 들어와서.. 저 같은 경우 정림동 온 게 대학교 2년 다니고 다시 사업한다고, 상인회.. 상가번영회 생활을 20년 했어요. 요즘에 상가번영회도 없어졌는데,, 그거 할 때 아까 하신 방법대를 저도 10년을 했어요, 초창기에. 그때도 그런 봉사의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또 이사를 했는데 다시 또 정림동에 들어온 거예요. 일을 하면서 또 들어온 거예요. 이 동네를 못 떠날 것 같아요.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일을 하면서는 사실.. 우리 집사람 알죠? 집사람이 다 하긴 했거든요. 나는 지평에 있고. 근데 지사협에 어떻게 발을 들여놓는 바람에, 위원장님이 의원이 되면서, 빠져나가면서 제가 또 그 역할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많이 활동을 하게 됐어요. 복지관에서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고맙게. 시간 내기 빠듯하지만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에서 중심이 잘 돼있어요. 우리 동네가.. 중심이 잘 돼있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뭉치는 거지, 정말 복지관이 없다고 하면요, 동사무소만, 행정복지센터만 가지고는 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심이 딱 틀이 잡혀있으니까 우리 동네가 이렇게 잘 뭉칠 수 있는 것 같고, 여하튼 그런.. 그렇게 제가 여기 살아오면서 정림동하고 인연이 돼서 했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복지관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또 공헌을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영선: 역할을 사모님하고 구분을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 I(남성, 50대): 집사람은 자치위원회도 하고, 거기도 한 7, 8년을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한 거니까 9년쯤 됐겠네요. 불편하더라고요. 한 동네에서 하나가. 정말 누구 하나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둘 다 받을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돼가지고..

- 강영선: 네, 두 분이 다 받을 담고 계십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사실 일부러 이사를 이 쪽으로 오셨잖아요. 굉장하.. 결정하실 때 여러 가지 고려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 K(남성, 60대): 저 주제에 앞서서 온 이유를 먼저 밝히려고 하나.. 온 이유부터 해야 되겠네요. 저는 정림동을 처음에 와본 것은.. 2016년에 일 때문에 정림동에 와 볼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제 제가 은퇴를 하면 어디 가서 살아야 되냐.. 제가 고향이 홍성이라 홍성 가서 살아야 되냐 어쩌야 되냐 고민을 하는데, 아까 관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수집품이 많아요. 수집품을 조금 전시처럼 하고, 제가 또 식물들 많이 가꾸기 때문에 식물을 가꿀 수 있는 땅이 조금 있고, 또 은퇴하면 돈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세도 조금 나오면 어떨까.. 그래서 집을 막 구했는데, 마침 정림동에 그 2층에 조그마한 상가가 있고, 땅은 없는 거야, 식물을 심은 땅은 없는데, 옥상에 슬라부(slab), 슬라부니까 슬라부는 땅처럼 또 뭐를 화분 같은 거를 올려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투룸이 세 개가 있어요. 투룸이 세 개가 있으니까 거기서 월세 조금 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제가 짐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1층 상가로 된 거 쓰지, 그 다음에 2층 또 투룸 또 서재로 쓰지, 3층에 있는 것도 제가 다 쓰지 그러니까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공간을 제가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게 된 동기는 어쨌든 제가 집을 팔아가지고 그거에 적당하게 맞출 수 있는.. 필요에 의한 용도에 비슷한 거 그걸 골라보다 보니까 오게 됐고요. 저기에 나와 있는 저 주제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여기 와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설명이 있었는데, 축제, 벚꽃축제도 하고 수릿들축제.. 뭐 제가 음악회 한다고 해서 앰프 가지고 한 번 나간 적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걸 봤는데, 오늘 제가 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6,624세대더라고요, 정림동이. 인구가 1월에는 16,828명이었는데, 요번 9월 통계 보니까 16,672명이네요. 그래서 156명이 줄어들었다, 언 초에 비해서. 그리고 지난달에 비해서는 35명이 또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점점 사람들이 빠져나가기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활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쨌든 축제가 2번이나 있고, 또 정림복지관에서 그런 일들을 잘 찾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어울벗이라고 거기서도 어머니들이 뭔가 우리 동네에서 아기들을 위한 거나 또, 자녀를 위한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주민참여가 활발해진 동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복지관에 갔어요. 구장완 관장님한테 저 이제 집 여기다 계약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저를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는지, 저를 좀 써먹을 수 있게 해봐주세요 했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훌쩍 가버렸더라고요.

- 강영선: 제가 같이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이어서.

- K(남성, 60대): 그리고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금년도에는 다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활동이 좀 많이 소원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활동은 상당히 여기에 있는 분들이 오랫동안 사신 분들도 많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고, 첫 번째는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조금 아쉬운 점은, 좋긴 한데 사람이 도안동처럼 집값이 팍팍 올라야 하는데 안 올라가지고 그런 아쉬움 때문에 자주 떠나는 분들이 생기지 않나..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 강영선: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면 또 다른 말씀도 나오시면서 잘들 이렇게 하면 괜찮거든요.

- I(남성, 50대): 집값이 올라야 사람이 오지.. (웃음)

- 강영선: 그런 고민을 실제로 표현하신 분이 많이 계셨어요.

- I(남성, 50대): 집값이 올라서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요, 제 생각은, 주민참여가 많이 활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동네가 주민참여가 활발한 이유가, 제 느낌으로는 정말 안주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향이 있다는 거죠. (임진섭: 아아, 내 동네다?) 네, 동네 자체도 모양도 작고 도마동이나 관저동처럼 넓지 않고 작기 때문에 논쟁하고 관계, 집값이 안 오르고 내 동네, 내가 시골에 살듯이, 내 고향처럼 살듯이 하는 거죠.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이 대에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여가 활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이게 단점 같기도 해요. 저도 아직은 60도 안 됐지만, 나갔다 들어오면 시골 오는 느낌이 나요. 더 그러시겠죠. 저는 정말 둔산동 갔다 정림동 오면 시골 온 느낌 나는데 그런 느낌 자체가 그렇게 안주하는, 한 동네, 그러니까 고향 같은 느낌이어서 더 활발한 거지 둔산이나 노은이나 이런 신도시들은 애항심,, 동네에 대한 마음이 적지 않을까.. 그냥 있다 또 어딘가 집값 오를 데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 강영선: 정주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을에 대한 애착심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 K(남성, 60대): 젊은 사람들은 어디 가야될 데가 많아가지고 활동영역이 넓은데 여기는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 강영선: 네, 노인인구도 많이 늘고 있다..

- I(남성, 50대): 평균나이가 몇 세인가, 정림동은. 다른 동은 몇 세인데, 정림동은 평균나이가 몇 세인가.. (좀 높을 거예요, 아미)

- 강영선: 노인인구의 비율이 다른 동처럼 노인세대가 많아지니까요, 저희도 보면 꾸준히 노인세대는 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빠져나가는 세대들은 다 이제 교육, 중·고등학생들 뭐 이런 교육들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 I(남성, 50대): 4명이 나가고, 2명이 들어오고 하는.. 그죠?

- 강영선: 지금까지 어쨌든 짧은 길든 활동들은 쪽 하시잖아요. 사실 그 활동들이 다 만족스럽거나 또 우리가 그 활동들을 하다 보면 우여곡절도 있고, 갈등도 있고.. 중단하지 않고 하는 이유들이 또 있으실 것 같긴 해요. 마을 일 하다보면 의견이 또 대립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떠셨어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시면 한 번 나눠주시죠.

- J(남성, 50대): 안 나오면 눈총 보여가지고.. (웃음)

- 강영선: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빠지면 뭐 어른들이 눈총 주시나요?

- J(남성, 50대): 아니, 그게.. 음.. 방법대 같은 경우는 빠지면 미안하긴 하죠. 왜냐면 그 조별로 해서 같이 도는데.. 빠지면 이게 그.. 안 나가게 되고, 다른 대원들이 그 몫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궁극적인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뭐를 하겠다고 하면 의무감이 있으면 쉽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안 빠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는 아주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마을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거 말고 이룰테면 뭐, 얼마 줄 테니까 나와 이리하면 혹시 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방법대에 그런 게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의용소방대처럼, 의용소방대는 인제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얼마씩은 줘요. 아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 준답니다. 뭐 한 번 나올 때마다 만원인가 얼마 주세요. 그런 거 주는데 사실 그런 걸 받고 나오면 봉사가 아니잖아요. 나오면 그냥 순수하게 그냥 나오고 내가 그냥 뭔가를 했다는 그런 보람도 느껴야 되는 부분인데, 대가를 받으면 그게 반감이 되거나 아니면 상기가 되거나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얘기 들었을 때 별로 유쾌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다 나의 삶의 한 부분이고 이 중심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기초하는 것 같습니다.

- 강영선: 그럼 뭘, 일정이 겹치거나 뭔가 선택해야 될 때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생각하고 일정을 조정하고 하시겠네요.

- J(남성, 50대): 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죠.

- 강영선: 큰 책임감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의 보상들, 이런 걸 갖고 계시니까 자발적으로 가능한 것이 다..

- J(남성, 50대): 네.. 이제 가정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주 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쪽에 우선순위를 하는 거고요. 이를 테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음주를 안 하니까 뭐 차 한 잔 먹으러 가자 이럴 경우에는 나 일정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뭐.. 가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아주 가벼운 정도는 되죠.

- 강영선: 위원장님은 어떠세요? 활동하시다가 사실은 뭐 마음의 갈등, 이게 누군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 임진섭: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 강영선: 역할도 부여받고 그러니까 부담스럽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 I(남성, 50대):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여기 앉아있는 게.. (웃음)

- I(남성, 50대): 근데 정말 저만 느끼는 건지,, 제가 많이 하나 그런지.. 나 혼자서도 내가 활동을 많이 하나?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 강영선: 같은 고민이시지 않을까.. 자주 활동을 하다 보니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으신 거잖아요.

- J(남성, 50대): 그렇기도 하죠. 더 많은 요구를 받죠.

- I(남성, 50대): 저는 저보다 더 많이 복지관을 오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복지관 반 직원 같은 느낌? (웃음) 이달에는.. (웃음) 지사협을 맡고 있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더 나와야 된다는 책임감도 없지 않아 있고.. 활동을 하면서 불편하다, 내 느낌이 불편하다는 것은 뭔가 사람도 많지 않지만, 봉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으면 정말 이렇게.. 세분하면 좋은데,, 많지 않지만.. 몰려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모임을 이끌다 보면 몰려다니면서 몰려서 빠지고, 몰려서 와, 정말 진심어린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끌려 다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게.. 너무 한정적인 사람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지는 모르겠어요. 더 많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죠.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너무 한정적인 사람만 오니까 반복이 되는.. 이 모임 가도 저 사람이고, 저 모임 가도 저 사람이고.. 하여튼 제가 지사협 모임은 다른 거 하는 사람은 안 받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인위적으로. 회칙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런 게 활동하는 데 애로사항인 것 같아요. 너무 몰려 다닌다고 하나..

- 강영선: 많이 하다보면 개인한테는 여러 요청들이 와서 역할이 겹치기도 하고, 단체가 너무 좀.. 한 분이 여러 단체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 애로점이 있으시다 그런 말씀..

- I(남성, 50대): 그 생각을 했죠. 똑같은 생각이 있다고 하잖아요.

- 강영선: 지사협도 그래서 고민이기도 하고...

- I(남성, 50대): 근데 그걸 해결하려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데 그게 어렵죠.

- 강영선: 다양한 선생님들이 각자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마을 일 하시는 분들은 또, 하다보면 리더들이 제한적이니까 겹치기도 하고..

- I(남성, 50대): 많이 발굴해내기도 어렵고 꾸준히 끌고 가는 것도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 임진섭: 그거는 또 이따 얘기해보죠.

- 강영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을.. 네.. 원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활동하시면서 어떤..

- K(남성, 60대): 저는 여기 와가지고,, 다른 분들은 여기 동네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셔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저는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서 하는 게 뭐 있나 내가 지금.. 제가 와 가지고 000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작년도에는 음악 듣고 싶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오면 제가 커피는 둘째 딱 누르면 나오는 아메리

카노 있고,, 그 다음에 녹차, 구기자차, 이런 걸 준비해놔서 물 끓여서 드리면 되니까.. 사랑방처럼 오셔서 차 한 잔 하실 수 있으시면 오시면 좋겠다 해서 동네 분들이 몇 분 오시기도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이제 못 오시게 됐죠. 거의 안 오시게 됐죠. 그 다음에 LP로 인제, 음악을 트는.. 라디오 전시라던지 DJ를 인제.. 축제 때 여기서 한 번 하고 우리 또 이사장님이 저를 또 초청하셨어요. 어르신들 저기,, 음악을 LP로 틀어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좋아하시는 것, 분명히 할머니들은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이런 걸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런 판 몇 장하고 가지고 갔더니 엠프는 다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틀어주는 기계만 가지고 가서 틀어드렸더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I(남성, 50대): 아주 좋아하셨어요. 1년에 세 번도 괜찮는데 바쁘실까봐 1년에 한번 씩만..

- K(남성, 60대):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묶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는데 풍물단이라고 써 붙였더라고. 여기 복지관 지하에서 하는데 화요일, 목요일 낮 2시부터 4시까지 풍물단 하는데, 그 풍물단에서 배우면 배운 사람들이 가가지고 벚꽃축제한테 길놀이를 이렇게 하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와가지고 몇 달 배워가지고 복치는 거 하나 하라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벚꽃축제 때 다른 행사가 있는데 개막식까지 하고 도망갔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도시재생협의체라고, 여기서 이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도시재생협의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 대표님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할까 이런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이라고 또 이제.. 그때 8주인가 해서 수료증도 주고 했어요. 월요일에만 갔던가.. 가서 4시간 정도 도시재생이란 뭐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고 오는 걸 교육받아서 그걸 참여했던 거 있는데, 제가 거기서 리더를 했든지 이런 게 아니고 단순 참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특별히 없어요. 애로사항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없는데, 하나는 여기 지하에서 사물놀이 하는 데 거기가 회장님도 있고 총무님도 있고, 강사님도 있더라고. 일정부분 회비도 내서 운영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회비 냈는데 어디에 쓰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만약의 경우에, 꼭 그런 예가 아니라도 무슨 회비를 걷는다든지 그런 거 할 때 활동에 대한 정확한 수입과 지출내역, 이번에도 정의연대도 그런 것 때문에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이라도 걷었다, 공통의 경비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투명성 있게 결산해주는.. 그런 것들을 회원들한테 꼭 알려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오해가 서로 없어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강영선: 활동하시면서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게 될 텐데 지금처럼.. 아까 말씀 주셨던, 잠깐 돌아가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마을복지계획단 할 때도.. 참 아쉬웠던 게 뭐냐면 우리 도시재생협의체랑 연도를 비껴서 사실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과랑 협의를 봤었어요. 마을복지계획단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 여기 활동의 결과물들은 사람들이 겹친다, 마을사람들은 다 비슷하지 않냐, 리더들이 정해져 있으니.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경험해보면 훨씬 더 우리가 도시재생 잘 할 수 있으니 맞췄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행정에서 맞출 수 있는 게 있고..

- K(남성, 60대): 뭐를 맞춰달라고요?

- 강영선: 그러니까 작년에 도시재생협의체를 구성할 게 아니라 1년만 늦춰서 하면 마을복지계획단에 온 주민들이 전부 다 다시 도시재생에 들어가서 함께 논의하면 훨씬 시너지가 날 것 같으니 기간을 조정하자 했는데, 이게 행정에서 늦출 수 있다고 늦춰지는 게 아니고, 빨리 하겠다고 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동시에 두 개 조직이 돌아간 거예요.

- 강영선: 마을복지계획단은 작년에 활동을 하고 실행단으로,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멈췄지만 실행단이 있고, 작년에 우리 마을도시재생대학 할 때는 저희들이 다 들어가자 했었는데 못 들어가고 분산이 된 거죠. 그런 아쉬움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을의 리더들, 활동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각 단체에 주축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제한적인데 갑자기 많은 활동들이 들어오니 이 분들이 중복하면서 제대로 모아서 힘을 낼 때 집중이 안 되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단체, 여러 개 활동 하시고, 또 큰 활동들을 하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좀 더 참여의 범위를, 아까처럼 더 넓히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또는 그런 생각들을 의견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거나, 다 함께 참여하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분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할까, 뭘 더 하면 좋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J(남성, 50대): 그것들을 그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주민협의체에서요. 참 어렵더라고요. 방법은 뭐 역지로 끌고 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필요성이 있을지.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그 어디나 어떤 행사를 하든 어떤 조직을 만들든 똑같은 것 같아요. 주변에 공고를 해서 또 오면 좋는데 안 오니까 결국은 알음알음 권유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한계에 좀 부딪히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별다른 어떤 유인책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생각을 해왔지만 뚜렷하게 좀 방법을 아직 못 찾았어요, 결국은 홍보를 하는 것 외에는 답을 못 찾았습니다.

- 강영선: 네, 사람들에게 최대한 알리는 것들.. 위원장님은 어떠세요? 저희도, 지사협도 회원 확보가 쉽지는 않아서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 I(남성, 50대): 이번에 다음 달에 모임 하는데 세 명 빼와서 보니까.. K(남성, 60대) 원장님 활동 안 하시는 줄 알고 제가 추천했는데 바쁘시네요. 다음 지사협에 추천했는데..

- K(남성, 60대): 오라면 가야죠. 놀고 있고 시간만 있으면 저는 어디든지 가요.

- I(남성, 50대): 세 명이 오시긴 하시는데, 좀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하자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들어오기가 어려운거죠. 어쩌면 교회처럼 그래야 되나? 종교처럼. 정말 들어오신 분을 잘 관리해서 이만큼 성장을 시켜놔야 되나?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성장을 시켜놓으면 궁급해서라도 나오게.. 또 어쨌든 회원들이 아마 그런 분위기 같아요. 회원들이 뭘 잘 못처가지고 서로 관심 있어 나오는.. 그런 조직.. 이렇게 복지관이 있으니까 관리를 자주 해주면 관심이 있게.. 한번 왔더니 어색한데 이런 사람들 자주 그런 느낌을 갖게.. 힘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장님이.

- 강영선: 그러면 그런 관심들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려면 어떠세요? 뭐 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활동을 많이 하면 그런 관심들이 커지시나요? 경험상 어떠세요?

- J(남성, 50대): 교육도 그것도 부담이더라고요. 네. 이게 봉사활동 하는 것보다도 교육이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K(남성, 60대)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 K(남성, 60대): 이게(교육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동사무소에도 무슨 주민 무슨 협의체.. 열 몇 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도시재생협의체 만들라고 하지, 마을복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많아. 그리고 전부 다 이게 목적이라든지 약간은 비슷비슷한데 이름은 또 다 만들어놔서. 그러니까 위원회가.. 저기 서구청에 구십 몇 개예요. 제가 맡고 있는 위원장이. 그러니까 너무 많아. 그리고 아까도 언뜻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가 만들어져서..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뭔가 만들면 금방 저기 군대처럼 딱 폐쇄적이 돼요. 처음에 활동했던 사람들 이외에는 다시 또 문이 막혀요. 그런 것들이 많아. 무슨 계모임처럼, 특히 일부의 회비를 내고 시작했다, 그러면 완전히 계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진입이 어려운 상태가 되죠.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어떤 의식, 생각,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조금 더 개방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가면은 유용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재미있던지, 거기서 재미있게 해주던지.. 그래야지 내가 나가서 열심히 하지, 가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 나도 보람이 없어 그러면 안 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거기 딱 가면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어떤 유용성이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유인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가기 싫지.. 그리고 제가 보면 사람마다 성격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멤버 중에 조금 그렇다고 하기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어서 됐다, 그러면 금방 깨져. 갈등이 조장돼요. 평상의 마음으로 안 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 그러면 다음부터 또 안 가요. 이런 마음을 화합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저기 무슨 모임에 멤버를 만들려면 물어보잖아요. 누구 온대? 이런 식으로. 이게 사람 마음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굉장히 큰 제약의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 강영선: 마을의 활동이 조금 더 보람 느끼고, 즐겁고 그거의 결과들이 유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구성원 간에 화합할 수 있고 친밀할 수 있어야만 지속성을 갖는다. 대체로 다 동의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단체들 보면 누구는 어떻게 누구는 어떻게 다 보이시잖아요. 저희 마을 단체들은 어떠신가요? 보시기에? 그런 지금 애로점들이 그나마 없는 단체 구성원들이어서 저희가 이런 효과들을 내고 있을까요? 어떠세요, 대체로? 단체들 간의 큰 갈등은 없어 보이는데요.

- K(남성, 60대): 가보질 않아가지고 이거.. 방법대 이런 건 잘 된다던데?

- J(남성, 50대): 그.. 저희.. 겪어본 바로는 갈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갈등이 있거나 하면 본인이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안 나오면 되니까요.

- 강영선: 마을에 일이 있을 때 엄청 잘 논의들을 하시던데요.

- J(남성, 50대): 맞아요,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고 그.. 우리 인제.. 정립동은 사실 동사무소에서, 행정 계통은

동사무소로부터 나오고 동사무소에서 알려주는 것, 또는 요구하는 것 그쪽으로 해오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원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회원들 간의 갈등, 구성원들의 갈등은 뭐 크게 본 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K(남성, 60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뭐 다른 데서는 봤는데 우리 정림동에서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 K(남성, 60대): 그 예를 들은 거지, 정림동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 J(남성, 50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림동은 이게 구성원이라고 할까요? 정림동 주민들이 아주 많고 다양한 것보다는 좀.. 그보다 좀 축소된 느낌?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지 않은 거죠. 인원이 16,000명, 17,000명 되니까 아주 많은 인원도 아니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이 들락날락해서 자주 많이 바뀌는 것보다는 한 번 들어와서 정림동에서 살게 되면 잘 이동을 안 하는 그런 동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니까 서로 잘 알아서 협조하는 데 많이 수월한 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다만, 너무 많다 보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많이 말다 보니까 이 모임 저 모임 단체에 중복 가입하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런 걸 배제하다보니 인원이 안 모여지는 것.. 그래서 남성새마을회도 없어졌어요. 그 인원만 따로 하려고 하나가 모여지지가 않으니까 없어지고, 그리고 자유총연맹도 많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바뀌면서 인적구성을 새로 구성을 하는데 이게 뭐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입을 했다가 빠지라고 해서 빠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 군데 같이 가입하고 있고 오라고 하나가 갔는데 너무 많이 중복돼서 하고 있으니까 빠져라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들어요. 인원이.. 좀 어느 정도 확보돼서 봉사할 수 있는 인원도 거기에 비례해서 좀 늘어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K(남성, 60대): 지금 뭐 인원도 적고.. 다른 동도 그래요? 다른 동? 복수동이나 다른 데도 관리하시잖아요.
- 임진섭: 다 마찬가지로요.
- 강영선: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새로운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조금 더 넓힐 필요는 있네요.
- K(남성, 60대): 그게 중요해요.
- I(남성, 50대): 그걸 잘해야..
- K(남성, 60대):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 한 자생단체가 1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회원이 저.. 10명에서 20명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1개 동에서 한 400명, 500명 이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네에서 그래도 말 꽤나 하고 뭔가 한다고 하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동네 주역처럼 하고 있는 사람이 500명 이내예요. 근데 우리 동은 16,000명이잖아요. 500명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적은 인원이..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정림동의 모든 대표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만이 아니고 다..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참여자를 많이 이끌어나야 되는데, 그 참여자가 다 생업에 바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진짜, 나는 거기 가서 아까 유용성, 재미있고 그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교육으로 되는 거냐.. 유용성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제 생각은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마을의 모임이나 동네의..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학원가라고 하지 누가 동네모임 그거 있으면 가라고 해요? 아무도 가라고 하지 않지, 앞집 애는 1등 했는데, 영어 100점 맞았는데, 너는 90점 맞았냐 이것만 비교하지, 동네모임 가가지고 어른들 얘기 한 번 들어봐라 이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국민적 어떤.. 생각이나 문화가 바뀌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태어났어, 그런데 마음껏 놀러 다녀,, 태어나서 이제.. 좀 그러니까 텔레비전 조금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삭삭삭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전부 다 저.. 엄마 아버지가 야, 요번에 도안지구에 000 분양 한다는데 그거 500:1이 되더라도 넣어서 되지만 하면 2억 넘는데, 이런 얘기 전부 듣고 있는, 그것만 듣고 크고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생각을 극대화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태어나서 다 그렇게 쳐다보고 자라고 동네에서 뭔가 함께 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비중이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마을만이 아닌 모든 지역이 그런 생각 속에 있지 않나.. 국가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교육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선, 우리 정림동에는 좋은 사례가 있지, 100인회의.
- I(남성, 50대): 맞아요, 아이들하고..
- K(남성, 60대): 우리 저.. 그.. 수릿들축제를 할 때.. 의견을 모을 때 100인회의라고 해서 초등학교부터 어른까지 누구든지 다 참여해서 의견도 얘기하고 하는 100인회의 같은 그런 것들이 모든 동네나, 그런 데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 I(남성, 50대): 했던 아이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그런 데 잘 참석할 거고, 사회 가서도 잘 참석할 것 같

아요. 정말 예뻐더라고, 아이들이.

- 임진섭: 경험해봐야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지, 나중에 나이 다 들어서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 K(남성, 60대): 모르잖아, 공부하라고만 했지.. 언제 그런 걸 하라고 했어..
- 강영선: 의식을 바꾸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어떤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참여의 경험을 많이 갖게 하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만이 사실은 멀리 보고 바꿀 수 있다.
- K(남성, 60대): 가봐야 돼, 그러니까. 봉사활동 할 때 애들 데리고 가야 돼요. 무슨 급식봉사나 이런 거 할 때 애기들 데리고 가야 돼, 그러면 보면 알거든.
- 강영선: 그래서 작년에 했던 마을복지계획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사실 지금 주셨던 말씀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봉사단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참여하는 가족봉사단, 그 다음에 주민들이 서로 세대를 넘나들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자, 그래야만 그런 인식들이 바뀌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동하다 소원해졌는데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저번에 코스모스아파트도 수해 한 번 겪었잖아요, 여기 우성도.. 차 피해도 굉장히 컸고요, 그랬을 때에 이제 많이 느끼셨대요. 막상 사고를 당하고 막상 어려움을 겪었더니 이게 공식적인 지원도 미약하고, 그렇다고 우리 마을에 특별한 뭐가 있어서 구에.., 이 그게 또 참 쉽지 않더라. 거꾸로 어떤 말씀도 하시나면, 그렇게 어려웠는데 막상 또 옆에서 옆 동, 저 동에서 여기저기서 후원 해주시고 자원봉사활동해서 깜짝 놀랐다, 감동받았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거든요. 우리 마을 활동 쪽 하시면서 정말 우리 마을에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집단이어도 좋고요, 대상이어도 좋고, 아니면 마을의 문제들을 꼭 경험하실 텐데 정말 우리 마을에서 이런 분은 돌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돌봄.. 돌보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 K(남성, 60대): 근데 저거는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다 자료가 있지 않아요? 결론도 돼 있잖아요.
- 임진섭: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돌봄과 관련된 활동이나 그런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
- K(남성, 60대):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일부 있고, 그 전에 뭐냐 그,, 저.. 뭐라고 했지.. 염시장님 계실 적에 복지만두레.. 그런 거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상자들 누군가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발굴을 해다가 알려줄 수도 있고, 내가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나랑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주민이 옆 사람 알려줄 수도 있고, 또 우리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활동하면서 발굴해 낼 수도 있고, 동에서도 또 발굴해낼 수가 있겠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 강영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 I(남성, 50대): 기준 이하의 분들은 제가 보기에 이중, 삼중으로 항상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를 벗어나는..
- 강영선: 그 틀 안에 있는데, 그 틀 밖에 벗어나는 분들을 사각지대를 찾고자 해서 복지만두레와 특히 지시협 같은 게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주체잖아요. 그렇게 해도 풀리지 않는,, 예를 들면 후원금이라든지 정해진 것 외에 마을에서 사실 돌볼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연스럽게 말씀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아이들은 다 돌봄의 대상 아니냐, 잘 살든 못 살든.. 사실 우리 동네 아이들 중에 이런.. 이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누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세 분께서 보실 때 우리 마을에는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집중하면 좋겠다는 경험이 있으신지, 특정한 개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어떠세요? 활동들을 하시고 마을행사를 하실 때 특별히 저희가 집중해야 될 지역이나 대상들이 보이시나요?
- I(남성, 50대): 근데 사적으로 뭐 다가가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바로는 노부부들이 시는데 정말 불편해요. 그 분들이. 근데 끼여 들 수 없는 게 자녀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줄 수도 없다는 거죠.
- 강영선: 자세한 경제상황을 알 수도 없고요, 사실.
- 임진섭: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지극히 사적인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개입하는 게..
- I(남성, 50대): 쉽지 않은 거예요. 일반 분들이.
- K(남성, 60대): 지금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들이 너무 강화돼서 우리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우리 일 반적인 사람은.. 공공기관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로그인 했다고 박살나는 상황에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너무 강화돼서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 강영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조금 돌본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돌볼 수 있는 혹은 마을에서 계획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일례로, 저희가 수밋들축제할 때 그냥 여기 마당에서 식사 나누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그러면 이 난국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1,000명 식사한다고 하면 보통 어르신들 500분, 600분 오세요. 오시는데, 이 분들을 다 식사를 대접하기는 어려우니, 어려우신 분들을 저희는 어쨌든 동에서 저희 근거자료들은 있으니까요. 갖고 있는 정보 안에서 저희가 개별로 250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별 식사전달을 했어요. 개별 도시락 한 끼 식사 나누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놀라웠던 건 뭐냐면, 부정기적으로 반찬이 가는 대상자는 사실 동에서 커버가 25명 정도밖에 안돼요. 한 달에 한두 번.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 이 분들이 공적자금만 갖고 살기에는 어려우시니까 중간에 비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전달하러 갔더니, 통장님이 오시니까 눈물 흘린 분이 계시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수밋들축제에 나와서 식사 한 번 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나오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매해. 저희가 15회 했는데.. 거꾸로 음식이 가니까, 전화 받고 우리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받고 나서 우셨대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거꾸로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구나를 느꼈다고 소중한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 I(남성, 50대): 직접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확 오더라고. 우르르 와서 먹는 사람들은 충분한 건강도 있고, (강영선: 네, 정보도 있고..) 마음적으로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은 안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수해를 본 것 같아서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 강영선: 저희가 생각하는 돌봄의 영역들이 사실은 큰 체계를 갖고 어떤 지원금을 받고, 정해진 기준의 분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이야기 중에 조금 더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정말 이미 돌봄을 받고 있는데도 내가 더 받고 싶은 돌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또는 마을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돌봄들을 우리가 서비스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들을 해보는 거거든요.
- 임진섭: 그,, 돌봄을 너무 정말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취약계층, 그런 쪽으로만 돌봄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위에 있는 뭐 안부를 확인한다던지 장애인 분들이나 어르신들한테 라던지.. 아니면 아이들 돌봄, 다 돌봄인 거거든요. 너무나 돌봄의 범주를 좁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돌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 강영선: 뭐, 우리 마을만의 이런 것들도 참 해보면 좋겠더라.. 이런 거..
- 임진섭: 경제적인 지원은 사실 우리가 못해요. 그런 것들은..
- 강영선: 저희도 가끔 이런 것도 복지관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용돈도 있으시고 연금도 있고 한데, 건강상태가 많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러다보니 막상 걷진 날에 보호자를 대동해서 어딘가를 가서 쪽 약도 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들도 못 오고 며느리도 못 오는 거예요. 하나는 해외 가 있고, 하나는 사업처가 멀고.. 근데 내가 친한 누구한테, 예를 들면 교회 교인이나 이렇게.. 잠깐 나 그 시간 동행해 줄 수 있나 했을 때 동행자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묘한 공백들이 있어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에 공백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어려운 분들, 돌봄이 필요한 분들 이라면 아주 뭐.. 경제적인 데 초점이 맞춰지기도 하는데 일상의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조금 서로 도울 수 있는 마을의 그런 것들은 만들어보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 거죠,
- 임진섭: 방법도 넓은 의미에서 돌봄인 거죠.
- 강영선: 정말 돌봄이죠. 안전에 관련된 거를 완전하게, 어떻게 하면 방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범지대를 환경개선을 할까, 또는 시스템을 만들까 이것도 엄청난 돌봄이거든요. 안전돌봄?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쪽 눈에 보이셨던, 또는 이런 거는 우리 마을에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여쭙보고 싶었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거꾸로.. 그럼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 그리고 보니 그렇네? 그러면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어떤 기회들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을 좀 주민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도 괜찮습니다.
- K(남성, 60대): 아까 그.. 연금도 타시는데 인제 그 찾으려 갈 수가 없고, 본인이 누가 돌볼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 강영선: 네, 잠깐 틈새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 K(남성, 60대):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 이게 사람이 안 죽을 줄 아는데, 죽어요.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행복한데 200만원 탄다, 한 달에 특별히 들어가는 돈이 없어서 100만원이면 돼, 100만원이 여유가 있어, 그래서 100만원 쓰면 되는데 절대 안 써.. 죽을 때

보면 돈이 있는 거야, 못 쓰고 죽은 거지. 만약 그럴 경우에도 누가 없으면 핸드폰은 있잖아, 택시 부르면 집 앞에 딱 와, 은행 갑시다 하면 되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지.. 왜냐면 아프고 뭐 이렇게 때문에 지금같이 안 아플 때는 택시 부르면 되지 생각을 하는데 아프고 그럴 때는 저기.. 이게 또.. 돈이 막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런 상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교육, 쓰고 죽어야지, 아무도 안 죽는 사람은 없으 라던지.. 그러니까 왜 다 이에 해당되는 거지.. 예를 들면..

- I(남성, 50대): 조희 시간에 오늘 나온 소리인데, 원장님이 한 소리가 있는데요, 돈이라는 거를 내가 갖고 쓸 줄 아는 사람은 그 돈이 자산인데, 자산.. 그걸 쓰지 못하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늙을 때 갖고 있으면 유산이 된대요. 물려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아 이걸 내가 쓸 수 있는 내 자산이야..
- K(남성, 60대): 그런 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으면, 그분한테..
- 강영선: 네, 예를 들면..
- K(남성, 60대): 예를 들면 친구나 누가,, “너 그 돈으로 누구 부를 것 없이 택시 불러, 5000원이면 가고, 올 때 5000원이면 와. 택시 불러서 간단하게 하고 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 강영선: 네네, 옆에서 누군가 조언을 해주실 사람들, 잘 관계를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그런 조언도 누군가 해주면..
- 임진섭: 네트워크라고 봐야 되나요? (강영선: 그렇죠.) 주위 관계형성?
- 강영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그거 콜택시 부르면 돼, 콜의 개념이 없을 때는 택시를 부르면 온다고?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까처럼 유용한 누군가가 인적자원이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정보제공자,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 I(남성, 50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000어르신을 따로 돌봐드리잖아요. 3년 전에 지사협에 놀러가서, 집사람이 위원일 때 놀러가면서 인연이 돼서 돌봐드리는데, 뭘 막 사다드리고 이러진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면 지금은 아들이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수해 났을 때 전화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도 해주세요. 저 두 집은 못하거든요. 사실 한 집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조직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누군가가 오면.. 한 집쯤 돌봐줄래요? 하고 재차 확인을 몇 번 해줘야 어느 정도 선까지 활동을 확인 해주면 그 뒤로는 알아서 그 두 집이.. A라는 사람과 어려운 B라는 사람이 알아서 드나들고 친척화 되는.. 관여를 해서 잘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인연으로 만나서 슬슬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알아서.. 3년째 인연으로 하는데 한 집씩 정도는 하지 않을까.. 위원장님, 원장님도 어 한 집을 엮어주면 한 번씩 가서 보고 오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 강영선: 네, 관계망을 형성해주는..
- 임진섭: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기가 직접 개인적으로 찾아서 뭔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엮어주고 매칭 시켜주면 그때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I(남성, 50대): 그러면서 어느 정도 도달할 때까지는 관심을 가져주고, 잘 다녀오셨어요? 어때요? 물어봐주면 그러다가 어느 정도 관계 형성이 되면 알아서 가고 알아서 연락하죠.
- 임진섭: 복지관의 영역이네요.
- I(남성, 50대): 항상 숙제만 남겨놓는 것 같아요.
- K(남성, 60대): 아니,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그게 사회복지관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강영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그거가 지금 현재 5,000명이 만약 있는데 5,000명은 하고 있지만 5,000명 중에서는 1,000명을 더 하고 싶다는 얘기냐, 아니면 지금도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논의하는 거냐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 강영선: 둘 다입니다.
- K(남성, 60대):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예를 들면 통계를 내서 우리 정립동에 그런 돌봄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 노인 몇 명이다, 근데 그 것 외에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를 들면 복지관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어디에서 또 대상자가.. 늘고 줄고 하겠지. 그렇지만 어느 일정 시점에서 정리된 인원으로 있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공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공적으로 해주지 못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먼저 있던 복지만두레 같은 것으로 결연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 또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누구랑 결연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정리하고, 예를 들면 찾아다니면서 의사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하고 있을지도 몰라. 어디랑 결연되고 있을지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 .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만약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취지를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기도 하고 뽑아서 자원봉사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례관리사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 정식 국가의 사례관리사는 아니지만 복지만두레 속에서의 사례관리사, 예를 들면 복지만두레는 특정인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이름이예요. 지역사회협의체 속에서의 사례관리사 같은, 그런 자원봉사가 있어서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결연도 해주고 그런 노력을 뭔가 만들면 좋지 않겠나..

- 강영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마을에서 양성하고 서로 연결해주고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지속돼야만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어쨌든 그리고, 그러한 역할들을 할 때에 분명히 다양한 활동과 지원들이 필요하다,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아까처럼. 정보의 제한도 있고, 뭐 개인정보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 그런 기관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시네요. 우리 저, 우범지대에 쪽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주셔갖고 동이랑 구에서 많이들 좋아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그런 활동들을 하실 때 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걸 뭐, 구나 동에서 하지만 우리 자체로 이런 지원들이 있으면 좀 더 좋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 임진섭: 뭔가 활동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결국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욕구죠.

- J(남성, 50대):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그.. 강변들, 공원이라든지 수밋들.. 정립공원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우리 방법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민 모두가 느꼈었던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가 너무 우거지고 조명이 너무 약해서..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오는 학생들, 뭐 중·고생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그.. 뭐 흡연을 한다지 아니면 모여서 다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였었는데, 이제 나무가 가지치기가 되고 조명이 밝아지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진, 그런 것들은 개선이 된 거죠. 그리고 무궁화공원에도 조명을 많이 설치해 해서 한동안 밝아졌었는데, 조명이 수명이 다 됐나봐,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다보니 다시 어두워져서 범죄라든지, 아니면 조금 음침해서 가기가 꺼려지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저희 방법대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도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느끼는 거라서 의견이 모아지고 개선이 되는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간혹 인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순찰을 하다보면 너무 많이 음주를 해서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잠을 잔다든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다 어디 빠져서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를 보기도 하고, 다니다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게 나가서 보행자한테 불편한.. 그런 것들은 늘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긴 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낮에도 그.. 뭐 여기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갑천이 굉장히 경관이 좋고 사람들의 힐링공간으로, 휴식공간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다른 동네에서조차도 정립동이 살기 좋은 마을이고, 부러워하는.. 그런 점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남부순환고속도로 밑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정립대교, 정립중학교 옆에 다리 아래 정도.. 그런 데는 이제 그.. 행락객이라고 할까요? 휴식을 취하는 주민들이 오고 외부에서도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뒷처리, 그런 것들에 늘 좀..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짐승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음식물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날에 다 헤쳐 놓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범과 관련될는지 몰라도 적어도, 어지럽혀지니까 문자를 집주인이 하고 해도 그 선호했던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고, 또는 나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고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리골 약수터 같은 경우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범지역이라고 하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순찰을 안 해도, 거기에서 뭐 사건이 있다고 뭐 이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냥 우려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순찰을 돌기도 하고, 관심 있게 봐줬던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범위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강영선: 저희가 서비스 중심의 돌봄도 되게 필요한데 마을의 어떤 환경을 의논하고 공간을 만들고 안전한 방식을 만들고 이러한 돌봄도 사실은..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인식의 변화가 참 필요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다보니까.

- K(남성, 60대): 제가 요즘 눈 돌봄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내 눈이 아니고 동네 분들인데, 제가 이사를 왔는데 집 앞에 오만한 화단이 있어요. 거기에 소나무 하나 있고, 그리고 녹맥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를 아무도 안 가꾸니까.. 우리 집 앞애가 내가 임대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이더라고. 근데 무슨 넝쿨식물이 올라가서 난리더라고. 넝쿨식물을 다 낫으로 뜯고 소나무도 너무 키가 커서 동 보고 나무를 약간 잘라달라고 했어요. 큰 나무 조금 잘라달라고 하고 바닥에다가 국화를 심고 봉숭아를 심고 심었어요. 막 거기다 쓰

레기도 버리고 엄청나더라고. 다 치우고 거기다 꽃을 심어놔더니 다음부터는 안 버리더라고. 또 작년엔 국화 심고 올해에는 동사무소 꽃 심잖아요, 길거리에다가. 그러면 꽃만 그냥 주고 가면 내가 화단에다 심을 테니까 주고 가라고 했더니 떨어뜨려 놔서, 채송화 같은 것도 떨어뜨려놓고.. 내가 봉숭아꽃도 사다 심어서 했는데, 봉숭아가 이만큼 컸다가 이제 꽃이 지잖아요. 거름이 좋아가지고 엄청 키가 큰 거야. 그래서 비 오고 그럴 때 쓰러지고 그래서 구부러뜨려 놓았죠, 거기다가. 나중에 좀 마르면, 썩으면 거기다 묻으면 또 다시 거름 되니까 약간 떨어뜨려 놔더니 이틀인가 됐더니 무척 있잖아요, 무척을 잘라다가 엄청 또 놓아놔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또 옛그제 동사무소에서 국화 꽃봉오리 피려고 하는 놈을 또 다시 심는다 했더니 갖다 줬더라고, . 그래서 앞애다 좀 심고, 국화 심을 때 다시 땅 파고 거기 봉숭아대 이런 거 하고, 무척 다시 땅애다 묻었어. 묻어놓으니까 현재는 또 안 버리고 있는데, 나중에 또 누가 뭘 버리려나 모르겠어. 꽃을 심어놓으니까 좋아하기는 하더라고.

- K(남성, 60대): 그러니까 어쨌든 동네에 그런 공간이 조금씩 있으면 꽃 같은 거 잘 심고 쓰러기도 치우고 그러면 안 버리게 되니까 동네가 전체적으로 깨끗해지면, 눈도 지나가는 사람도 호감할 수 있고 그래요.

- 강영선: 사실 그것도 마을돌봄이죠. 공간돌봄.

- K(남성, 60대): 그거를 우리 도시재생협의체에서,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지역이 되면, 아직 이제, 국토부에는 올라갔는데 선정은 아직 안됐어요. 선정이 돼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사업의 일부로 해서..

- 강영선: 네, 활성화 사업 안에다가 이제 넣는 거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사업계획 짜실 때, 아, 정말 저희도 많이 느껴거든요. 복지관 앞애도 쓰레기가 엄청났는데, 동이랑 같이 화단으로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투기가 없어졌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아이들이 동네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 공간의 몇 곳을 게릴라 가드닝을 계속 해서, 거기다 화단 가꿔서 아이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못 하게 하기도 하고,, 정말 그런 곳은 누군가가 돌보는 공간이고 함께 돌보는 공간이면 쓰레기 안 버리시겠죠. 그런 것도 돌봄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 K(남성, 60대): 나도 선생님들이 여기 학교에서 학교 화단에 있는 꽃을 나보고 잘 가꿔달라고 하면 잘 가꿔줄 수 있는데.

- 강영선: 마을정원사도 있어요.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 지금 우리 원장님처럼 마을의 곳곳에 마을정원을 가꾸는 몇 분이 부여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활동을 하시는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어떻게 약속된 시간에 맞춰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마을에서 좀 넓게 보는 활동들, 깊이 있는 활동들을 하시는 세 분을 모시고 여러분의 활동들을 통해서 마을의, 돌봄의 영역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가 한 번 더 감사.. 그 팀까지 하면 이 안에서 유의미한 우리 마을이 조금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되려면 이런 지원과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면 참 좋겠다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걸 나중에 연구보고서로 발간이 되면 우리 참여하셨던 분들께 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말씀주신 내용들, 녹음된 내용들은 그 중에서.. 가려드릴요. 어느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사실 드러나지 않고, 그 부분들 중에서 일부는 인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 K(남성, 60대): 좀 잘라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 강영선: 보고서에 잘 마무리해서 책임연구원께서 다뤄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긴 시간 감사하고요.

- 임진섭: 너무 감사합니다.

**4. 마무리 : 강영선 관장**

- 강영선: 네,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오늘 잠깐 한 말씀씩, 마무리하는 소감 한 말씀씩 나누시고 오늘 모임 마치면 어떨까 싶은데요.

- 이리나: 저는 이렇게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동네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오머가면서 또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J(남성, 50대): 네, 우범지역 얘기하다가 놓친 게 있어서,, 우리 저 주민협의체에서, 뉴딜사업 주민협의체에서 우범지역화에 대해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들을 정리를 해서 쉼터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지원센터 뒤편에 하나 하는 상황이라는 한테 그거, 거기 외에는 우리 정립동에서 개선할 사항이라고 보기는.. 보이는 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자리가 우리 정립동 마을을 발전시키고 또 더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도 저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한 것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I(남성, 50대): 1시간 반이 금방 가네. 처음에 1시간 반 한다고 해서,,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배웠고,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회의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다 그냥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사람들이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교육 받으러 가면 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가서 보면 잘 왔다는 생각이 들듯이 그냥 얘기 안 해도 되니까 구경하세요, 하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도 마을이 돌아가는 구나라는 시간이, 이중으로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K(남성, 60대): 복지관에서는 제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고 일 시켜달라고 했는데,, 오늘 차마 와서 얘기를 하기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았고요. 하야간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고, 아까 못 말한 것 중에 이제 우리 자꾸 학생들이 빠져나가서.. 나중에 저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저기 00초등학교는 폐교 위기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어떻게 잘.. 좋은 학교라고 하기는 그렇고, 가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는 일에 대한 그런 논의의 장을.. 요번에 이렇게 포함됐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한 자리를 복지관이 됐던, 학교하고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선생님들이 참여 안 하실지.. 물론 선생님들 자존심 상하는 일이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찾아보고 하면.. 하나의 과제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 임진섭: 오늘 그냥 연구이기 때문에.. 주민들 만나 뵈게 되는 게, 연구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활동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립동의 미래가 밝지 않나.. 뭐 빠져 나간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면서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립동의 미래는 더욱더 밝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나온 얘기들 잘 정리해서 저희가 실천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연구보고서를 또 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영선: 오늘 세 분 말씀 들으면서 역시나 했고요, 예, 역시나 보시는, 마을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다, 그리고 더 궁금해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뭘까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직장이기도 하고요, 하는 일이기도 한데, 이게 저희가 사는 마을에서 우리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나? 물론 직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이라 생각하고 일하지만 세 분의 활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평상시도 그 생각했지만 오늘 또 한 번 느낍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세 분이 계셔서 우리 마을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더 발전하겠다.. 오늘 희망을 되게 많이.. 되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뭐랄까..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몰랐던 마음들도 들여다보고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 함께 정말 잘 해야겠다.. 이런 책임감이 더 많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 권진주: 세 분 정말 마을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거에, 이제 이렇게 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배웠고요, 더 많은 주민들과 같이 함께 일하면서 더 많은 걸 배워가는 그러한 사회복지사가 돼야겠다.. 많이 도움주세요.

- 경우에는 수밋들축제 할 때 통장 옥먹었다고 하더라고, 너무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올해는 아주, 김미경 선생님한테 예기했어요. 딱 필요한 인원만 얘기해주시라고. 너무 많이 나왔다고, 다들 바쁜 시간 내고 나오는데 와서 봉사하고 그 소리 들으면 좀 맥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인원만 해주고, 올해는 또 인제 시스템이 바뀌어서, 올해는 홍보가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러가지고 하루만 반짝 하는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서 빛이 났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전부 다들 내 일처럼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좀 많이 일이.. 일 하기가 좀 쉽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 임진섭: 정립동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한 번 오시면 잘 안 나가고 유동인구가 적고, 그러니까 토박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 N(여성, 60대): 근데 토박이들이 또 안아주시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한 번 오시면 이사를 안 가세요. 그 대신 이제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 젊은 사람보다..
- 임진섭: 자, 우리 M(여성, 50대) 님.
- M(여성, 50대): 1번의 질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 00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조건은 유대 관계가 되게 돈독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런 관계 속에서 집에 밥그릇 수가 몇 개가 있는지, 손가락 수까지 알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났을 때, 이웃들끼리 참여하는..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인제 아무래도 복지관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복지관 구성원으로 인해서 참여도를 더 부각시키고 좀.. 격려해서 함께 합시다 라는.. 어떤 그 부분에서 주축이 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 네 번째는, 제가 네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지역구 내에 열악한, 예전에 비해, 비영리 단체, 기관들. 아무래도 아동기관이라든지, 노인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기관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쏠릴 수 있어서 주민들이, 그래도 멀리 있는 분들보다는 가까이에서 그렇게 좀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지역주민들끼리 유대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가정 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복지관이, 정립동에서 굉장히, 중심축으로서 다양한 활동들을 매니지 해주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하나가 어떤 그런 거점기관으로 굉장히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비영리기관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런 기관들과 관련된 분야에서, 많다 보니까 그런 기관들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 임진섭: 자, 우리 L(여성, 50대) 선생님.
- L(여성, 50대): 저는 음.. 그래도 우리 정립동에서요, 매년 축제를.. 벚꽃축제도 그렇고 수밋들축제도 그렇고.. (임진섭: 유명하죠.)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루기 때문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작년 벚꽃축제 때는 구청장님이 세 번이나 오실 정도로..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제 그런 주민 참여가 그런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돋보이죠. 우리가 전부 무료봉사로, 가서 뭐.. 부녀회에서는 국수를 삶고 통장님들은 부침개를.. 그거 하루 종일 부침개를 하면 집에 가서 머리가 전대요. 그렇게 전부들 진짜 너무 열심히 해주시니까..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제가 사실 결혼을 해서 와서 살기는.. 결혼하고 계속 살고 있거든요.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갖고. 그런데 제가 봉사하러 나온 지는 얼마 안됐어요. 그런데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감투까지 맡았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축제를 치루는 노하우 있잖아요,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노하우를 쌓아 오기까지에는 정말 썩 정립 분들. 썩 정립 분들의 희생이라든가, 또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세요. 우리 벚꽃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가지고 분석을 해서 올해는 국수를, 작년에는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는 이만큼을 해야 되고.. 그런 치밀함과 노하우가 접목이 돼서 성공적인 축제를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 안에 유대감이.. 그리고 이제 수밋들축제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또 인제 주민자치단체들하고.. 그렇게 삼박자로 해서..
- 임진섭: 관계가 좋나 봐요. 그죠?
- L(여성, 50대): 근데 또 제가 수밋들축제를 보면서 진짜 제가 감명을 받았던 건, 여기 복지관을 주최로 해서 젊은 분들이 이끌고 계시더라고요. 그네 그분들은 공식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에요. 어울벗이라는 분들이 정말 여기 와가지고 각종 프로그램들을 맡아서, 그런 거를 복지관에서 너무 잘 해주시고.. 진짜 그런 모습들. 그래서 아마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 M(여성, 50대): 단체들의 구성원들이 좋구나.
- 임진섭: 그리고 이런 자원을 잘 걸집시켜줄 수 있는 중심축을 복지관이 잘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복지관은 뭐 다 있죠. 근데 있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이게 많지가

초점집단인터뷰 녹취 전사록(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2020. 11. 2(월). 16:00 ~ 17:30</li> <li>○ 장 소 : 정립종합사회복지관 3층 아름드리실</li> <li>○ 대 상 : 자생단체 활동 중심으로 마을활동을 해 온 원로 리더 집단</li> <li>○ 참석자 : FGI 초대대상 3명, 연구진 4명(임진섭, 강영선, 이리나, 권진주)</li> </ul>
<p><b>1. 인터뷰 안내 및 참석자 소개 : 이리나 팀장</b></p> <p><b>2. 인터뷰 진행 : 임진섭 교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진섭: 우리 K(여성, 60대) 회장님은 일단 먼저, 간단하게 우리.. 얼마 동안 정립동에 몸 담고 계셨는지..</li> <li>- K(여성, 60대): 10년 넘었죠. 근데요, 어쨌든 저희 정립동은 우선 이동 인구가 적어요. 한 번 오시면 안 나가세요. 그냥 그러니까 전부 유대관계가 좋다 그럴까? 서로 관계가 좋아요. 그러다보니까 좀 활동도 같이 알음알음 하다 보면, 서로.. 이웃 이상으로 관계가 좋기 때문에 서로 잘 나오세요. 그래서 협조도 잘 되고. 하야튼 봉사활동 한다고 해도 늘 내 일처럼 많이 나와 주시고. 저희도 지금 통장들이 서른 세 분인데 회의 하면 거의 안 빠져요. 임시회의도 그렇고, 한두 명 빠져요. 참석률이 좋아요. 그러니까 전부 여기 오래 거주하시다 보니까 네 일이 아니라 전부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li> </ul>

않은 것 같아요. 정림동만의 특색인데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이런 유대감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복지관의 역할도 무시 못 하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마을활동을 하시면서.. 이게 순조롭게 일이 잘 풀린 것만은 아니잖아요. 항상 어렵고 애로사항들 분명히 있었을 건데, 이런 각자의 맡으신 일을 하시면서 힘드셨던 일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나가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 그.. 우리 대표님, 회장님, 감사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이제 각자 맡으신 활동들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좀 어떤 도움이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 N(여성, 60대): 글썄요, 아직 바람은 없고요. 저희는 지금 우선으로 하고 있는 일, 좀.. 저희가 통장들이 복지통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름을. 그래서 하여튼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을 저희는, 발굴하는 게 책임이거든요. 1차적으로. 아직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그 발굴하러 다니는 과정, 작년부터 지금 우선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주위에 어려우신 분들이나 갑자기 코로나로 갑자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정이나, 이런 가정을 발굴을 해서 저희는, 알려만 드리면 되니까. 저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만 드리면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지과 있잖아요. 거기서 알아서 해주시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보조를 너무 많이 해주시니까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 임진섭: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앞으로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힘들었던 점..

- N(여성, 60대): 그렇다고 그렇게 힘든 건 없죠, 저희는. 같이 더불어 가니까, 좀 복지센터하고 어려운 점을 다 같이 해나가니까.

- 임진섭: 딱히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M(여성, 50대)님. 그동안 여러 가지 마을과 관련된 활동들을 꾸준히 해오셨는데, 분명히 힘든 일이 있으셨을 거란 말이죠. 어떤 일이 힘들었고, 어떤 갈등이 있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어려웠던 점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게 이제 궁금합니다.

- M(여성, 50대): 저의 개인적인 사담을 좀 전달을 해드려야 돼서.. 저는 복지만두레를 시작을, 봉사를 먼저 시작했어요. 복지만두레는 어르신들에게 저희, 정림동 안에서는 반찬을 월 1회, 개인 4회를 드려서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와, 행정복지센터와 연계가 돼서 각 가정으로, 24가정을 처음에 선정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반찬을 만들어내는, 반찬의 맛에 비중을 둔 건 아니고, 좀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처음에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는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겠다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사비를 2만원, 또 회비를 얼마 내서 관리도 다 해주시고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나면 하는 사람만 하더라,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지관의 담당자가 아닌데도 와서, 소속 봉사활동 단체가 아닌데도 와서 해줘야 하는 복지만두레가 유지해나갈 수 있는 형태, 이렇게 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아무래도 이 단체, 저 단체, 3개, 4개 단체에 있는 사람들, 중보단체에 가입하다보니까 나 거기서도 회비 냈어, 여기서도 회비 냈어, 나 그냥 이름만 올려줘 라는 회원님들도 계셨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걸 하는 동안, 저는 신규로만 그거 하나로만, 1인1단체 이런 식으로 마음 속에 두고 있었는데, 딱 가서 회원명단을 보니까 저만 하나지 다 세네 개씩 감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고착화된 회원님들의 형태상 신규가 가서, 이견 갈등 플러스 애로사항이었는데요, 신규가 가서 제안을 못 해요. 어르신들이 이 반찬 드시면 좋겠는데요, 어르신들도 고기 드실 수 있고 좀 이렇게 해드리면 좋겠는데요, 하면 오래된 회원님들이 에이, 편한 게 편한 거, 이렇게 해버리는.. 그냥 설령 넘어가버리는 형식적인 봉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지만두레를 5-6년 하다가 저는 이제 거기서 탈퇴를 하고, 왜냐면 이제 이렇게 연배들도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가서 뭐를 제안하기도 그렇고 설거지나 도와드리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저도 어르신을 모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잘 뺄 수 없는 일도 있었고. 이제 딱 나왔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잖아요. 24명을 반찬을 나눠드렸던 형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저 개인적으로 해나가는 일은, 작년부터 개인적으로 저희 요양원에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이사장님이, 10개 가정을 선정을 해서 그 분들에게 반찬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지역사회협의체라는 단체도 있지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분들을 연계해서 서비스를 또 다른 시각에 있는 분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갖춰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단체장들끼리 모여서 만든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가 돼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저는 따로 한 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했다 못 했다가 떠나서요, 마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건 사실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장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임진섭: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L(여성, 50대)님.

- L(여성, 50대):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새마을부녀회가 순수 봉사단체다보니까요. 제일 요즘에 애로사항이 뭐냐면, 여성분들이 바빠요. 일하는 여성들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여기 원주민이잖아요. 여기 93년도에 우성아파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 때문에 학부모 모임에서 알았던 친구들 엄마들을 통해서 사회관계를 형성하잖아요. 사실 여기 사는 친구들이 없어요. 전부 우리 또래만 해마다..

- 임진섭: 그때 일했던 친구 분들이 지금은 사시는 분들이..

- L(여성, 50대): 다 다른 데 뭐.. 아파트 말하자면 자기 재테크를 해야 되니까 다 나가서 살고요. 대부분 제가 다니면서 보면 좀 오래 사시는 분들 중에 우성아파트 큰 평수에서 좀 여유로우신 분들이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는 지금 보면 애기 엄마들하고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인구비례수가 많이 달라져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는 인력이 줄어든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생각들이 이기적이잖아요. 우리 같이 가서 봉사할래? 그러면 옛날에는 콩 한 쪽도 나눠먹고, 우리는 또 나름대로 우리 세대는 좀 교육을 받으면서 컸어요. 사회적인 교육을. 길에 휴지를 주워야 되고.. 근데 지금은요, 막말로 학교 주변에도 쓰레기가 막 널려 있어요. 학교 교육 자체가 그래서 자기들 학교 주변들도 그거 쓰레기 줍는 것 시키면 큰일 난대요. 아동학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사회 전반적으로 되다 보니까 좀 이기적인.. 그런 거. 대가를 받지 않으면 거기를 뭐, 저번 같은 경우도 너 그거 왜 하니? 그래요. 뭐 주냐? 나중에 뭐 의원이라도 할라 그러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런 게 굉장히..

- 임진섭: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공동체 정신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크고 작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온 거죠. 휴지도 그냥 주워야 할 것 같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단 그런 거에 대한 경험도 없고 교육도 잘 못 받고, 일단 본인 위주인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 L(여성, 50대): 그래서 점점 시스템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통장님들이 지금 복지통장님 해서 발굴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전에 보다 제가 행정센터를 자주 들락거리잖아요. 보면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은 너무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적절하게.. 지금 그리고 요즘에 희망일자리 때문에 하는데, 진짜 보면 이거는 돈을 주기 위한 건지.. 정림동 다니시면서 보면 알겠지만 쓰레기 지금 엄청 많아요. 왜.. 어르신들 일자리라고 해서 그럼 쓰레기라도 주우시라고 일자리 해드렸으면 동네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갑천에는 가면 지금 막.. 잡초가 무성하고 곳곳에 쓰레기가 있고.. 그런 걸 조금 시스템화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돈을 들이되 적절한 노동의 대가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하나하나..

- 임진섭: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는 아휴, 저거 그냥 돈 주기 뭐하니까 저런 거라도 시키면서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비취질 수 있죠.

- L(여성, 50대): 제대로 그런 게 감독도 돼야 되고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요.. 점점 그런 거 같아요. 있는 사람들은 세금 내기 바쁘고 없는 사람들은 일 안한대요, 막말로. 시골에 가도 그거 받지, 밭에 가서 일 안한다는 거예요. 요새 복지, 복지하는데 조금 제대로 그런 거를..

- 임진섭: 알겠습니다. 근데 그, M(여성, 50대) 감사님도 말씀하셨고, L(여성, 50대) 회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하는 사람만 하고. 그렇죠? 새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 M(여성, 50대): 그게 세 번째 같은데요.

- 임진섭: 네, 그러니까 약간씩 바뀌어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질문을 제가 또 드릴게요. 우리 뭐, 자유롭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맨날 하는 사람만 하고 보는 사람만 보고 이게 아니라 좀 많은 사람들이 마을활동에 관심 좀 갖고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 M(여성, 50대): 지금 현재 저희가, 제가 이.. 정림동 안에서 활동을 해온 게.. 제가 스무 살 때부터 여기를 들어와서 살았거든요. 제가 오십인데, 삼십년 됐어요. 근데 삼십년 세월 속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바꿔나가고 했는데, 항상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건요,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베이스가 정해져 있어요. 신규 발굴된 어떤 형태상 조건부가 깔릴 때 명확한, 명료한 기준이 없이 그냥 쉽게..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 해왔던 대상들 그게 지금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선정자들이 유입이 잘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동안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까지 제가 반찬봉사를 왜, 저희들이 별도로 10명을 구성했다면요, 개인적으로 저희 애기아빠가 석유배달을 했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찾아다니면서 보다보니까, 이견 기초수급도 안되고 차상위도 안되는데 땅이 조금 있다는데 둘이 살거나 혼자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형태로 반찬도 안 들어와, 기초수급에서

제외돼,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있고 가족들도 관심도 별로 없는 상태인데, 돈만 챙기려고 하는 자녀들은 있고, 그런, 부분에, 그 안에 사소한 사유들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발굴이 잘 안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역사회협의체라는 모임을 통해서 조금씩은 발굴이 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지만 그 또한, 대상자 선별력이 이제 통장협의회라든지, 부녀회를 통해서 네트워크 구성이 있잖아요. 그럴 때 주민자치 저기에서라든지 여기 복지관 쪽에서 데이터를 보면 중복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

- 임진섭: 중복성이라는 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 보호대상자들이 다 겹친다는 말씀이시죠?

- M(여성, 50대):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았었는데(도움이 필요한데 못 받는 복지사각) 이럴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마을사람들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될까.. 무엇을 해줘야 되나.. 해봤는데 딱히.. 정림동 안에서 지금 워낙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아동돌봄, 어르신들 독거 분들, 우리 실버 어르신들이 가서 아버님 살아계시죠? 어머니 잘 계시죠? 하고 있고, 한데 지금 별도로 제가 지금 복지만두레는 안 하다 보니까 혹시 어르신들이 먹는 거에 집착성은 없지만 그래도 혹여 가보면 못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반찬봉사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고, 또 주민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다들 바빠서요, 뭐 하자고 하면 선뜻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봉사시간을 준다고 해도 딱히.. 그래서 정말 뭐 통장님, 부녀회장님들 뭐 이렇게 하시지만, 보상권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한 번 해봤거든요. 활동하는 거에 대한 보상..

- 임진섭: 보상이라는 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 M(여성, 50대): 뭐 일명 월급?

- 임진섭: 아휴, 그건..

- L(여성, 50대): 그거는 희망일자리에서 줘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희망일자리 때문에 돈은 나가는데, 정림동이 요즘에 너무 지저분한 것 같다고..

- 임진섭: 희망일자리가 환경정화 그런 쪽인가요? 노인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 L(여성, 50대): 네, 그리고 아마 또 구청에서 정말로 월급을 주는 청소부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이 와중에도, 너무 많이 새나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수해났던 것도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몇 년 동안 가뭄이었잖아요. 그러다가 해이해졌죠. 그 와중에 코로나가 터져서 공무원분들이나 모두 다 위축된 틈에 수해가 온 거예요. 진짜 폭탄을 맞은 거죠. 근데 미리미리 제대로 준비를 했더라면 그렇게 아파트 두 동이 잠기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파트 주차장도 그렇고, 그런 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막 해이해져 있는 틈에, 우리는 지금 숨기 바쁘잖아요. 그 와중에 우리가 방역은 하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그대로 이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전시에 우왕좌왕하다가 폭탄 맞은 거랑 똑같은 거죠.

- M(여성, 50대): 행정과 연결이 안 됐던 거죠.

- 임진섭: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그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게 위축되어 있지 않나.. 또 우리,

- N(여성, 60대): 이번에 일자리라는 게,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복지관에서 또 노인일자리라는 팀이 또 있고요, 복지센터에서도 노인일자리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희망일자리가 또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냥 무작위로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서 그냥 무작위로 뽑아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주민센터도 어떻게 터치를 못해요. 근데 저는 가서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일단 봉사자들을, 어느 단체든 봉사자들을 우선으로다가 이런 거 있으면 봉사자들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지금 65세 미만은 방역팀, 65세 이상은 그냥 환경팀 이렇게 뽑아서 지금 이거는 일자리를 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는 일자리라고요. 그냥 월급 주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방역팀같은 경우는 한 달 내 안 쉬고 계속 하면 거의 돈 100만원 된다고요. 환경팀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일하고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쉬었어요. 거기는. 그래서 좀 며칠 일들 못 했기 때문에 한 보름도 못 했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 급여를 조금 덜 받았지. 그러니까 이거를 구청에다가 맡기지 말고, 이 문제를 행정복지센터에다가 맡겨서 일단 각 단체마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위주로.. 봉사 점수가 왜 있어, 전혀 필요가 없어. 봉사점수는.

- L(여성, 50대): 막말로요, 현혈하잖아요. 현혈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요, 차라리 가서 피 수혈한 거 의료보험하면 얼마 안돼요. 우리는 아들이, 아버님 올해 편찮으셨으니까 저기서 이만큼 가져갔는데 돈으로 따지니까 그게 몇 만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귀찮게 하지 말고 돈 내자, 그거랑 마찬가지로.

- N(여성, 60대): 나는 지금 구청장님을 뵈고 그 말씀을 드릴까 생각중이에요. 구청에서 관리하지 말고 행정복지센

터에 맡기고 여기에서 봉사점수를.. 각 단체마다 몇 명씩을 추천을 해라 이렇게 하던지 해서 우선권을 주면 좀 참여도가 있지 않을까 더..

- 임진섭: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을활동을 위해서 마을돌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보상, 일자리 이런 거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맞아요?

- L(여성, 50대): 통장님을 선출해도 봉사점수가 있는 것처럼..

- M(여성, 50대): 지금 코로나의 어떤 형태로 급여를 제공해주고자 하는 시스템 말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봉사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너저분하게 형식적인.. 그냥 일자리에 대한 형태로 갖추지 말고 봉사를 하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 참여를 많이 했던 사람들 중에 의중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선택을 해준다면 조금 더 봉사의 질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실버 노인 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또 이렇게 있는 줄을 지금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 임진섭: 어떻게 보면 좀 보기에 따라서는 선심성, 퍼주기성으로 이렇게..

- L(여성, 50대): 받는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냥 나갔다가 얼굴만 보고 들어가듯 한다 이 식이거든요.

- 임진섭: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정말 내 생돈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L(여성, 50대): 노인 분들이 뭐라고 하나면, 대통령이 너무 잘 하신다고요. 그런 말씀을 하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사냐고 그럼.. 그러고 얘기를 하지. 대화가. 지금 노인들은 좋대요.

- M(여성, 50대): 그럼에도 인제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 있는 동안 짧은 시간에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약간의 부수입 쪽으로 할 수 있다면 이중으로, 봉사 하는데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또 노인 분이 활동을 하면 젊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불편하니까 알아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을 때, 그 활동영역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건 젊은 층을 좀 더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 L(여성, 50대): 제 생각으로는 첫째, 젊은 분들이 정립동에 오래 살게 해야 돼요. 새끼를 키워야 돼. 우리가 늙어서 하면 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뭔가 우리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위층 사람이랑 공동육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외출을 할 때에는 위층에 맡겨 놓고 또 위층에서 그럴 때는 우리 집에 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이모, 이모 하면서, 제가 갔는데 할머니는 뒷전이에요. 위층 이모를 그렇게 더 좋아하는 거예요.

- 임진섭: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친한 엄마 두 분이 모여서 공동육아를 하시는 거예요?

- L(여성, 50대): 네, 그러니까 그거처럼 돌봄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고 오면, 엄마선생님이 숙제를 도울 수 있다든가 그런 걸 하는데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또 적절한 보상이 따른다면 훨씬 그런 게 활성화 되지 않을까요?

- 임진섭: 일단은 젊은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렇지? 젊은 사람들 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가장 큰 문제가 육아야, 그렇지? 육아를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또 거기다가 약간 지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 L(여성, 50대): 그리고 어르신들도 그냥 뭐 저희들도 있지만.. 이번에도 된장 나눔을 하거든요. 어떤 분이 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몇 가구 하면 주민센터에서 주긴 주는데 연말에 가서 보면요, 이불도 요새는 되게 좋은 거 줘요. 수급자거나 그런 사람들은 봄에도 보니까 긴급재난지원금, 차상위 그런 분들은 세 번째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에 좀 적재적소에 그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 임진섭: 너무 지원이 과다하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 M(여성, 50대): 한 쪽에만 치중한다는 얘기죠.

- L(여성, 50대): 네, 복합되지 않게. 그리고 어르신들도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각 시마다 다른데, 어떤 제가 알고 있는 도시에서는 그런 희망일자리도 노인 분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형태로 점검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 동네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들, 가령 요양보호사가 다니지도 않고 다리가 불편하신데 혼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그 분들을 찾아서 진짜 방문하고, 제대로 실태를 정확하게 해서 올려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임진섭: 실제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발굴해서 리스트 업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

- L(여성, 50대): 네, 그리고 다른 동네도 보면, 상담을 해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취약자들이나 정신적인 그런 거를 또, 심리 전공하신 분이 하는 동네도 있어요. 도마동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부녀회장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우리가 요즘은 심리적인 것도 또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 임진섭: 옛날에 정말 못 살던 때야 정말 물질적인 부분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사실 뭐 밥 굶고 다니는 사람 많지 않고,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마을 안에서 어떤 서비스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

- L(여성, 50대): 그리고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을..

- 임진섭: 아무튼 계속 남아있게끔 해야겠죠?

- L(여성, 50대): 뭐 맘카페를 활성화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결속력을 다질 수 있게 그런.. 인재를 좀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 임진섭: 그게 참 어려운데..

- 이리나: 회장님 되게 시기적절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까도 개인적,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이 상담센터를 가기고 일반인들은 좀 어려워 하셔서. 그러니까 복지관 이런 데서 작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MBTI라고 성격검사 하는 게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워낙 식구들끼리 마주하는 시간이 많으니깐 서로의 성격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돕자, 진짜 간단하게 한 시간짜리로. 그거를 맘 카페에 모집홍보차 올렸더니 하루 만에 마감인 거예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너무너무 만족도가 좋은데, 상담의 방향이,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엄마는 성격이 되게 직설적이야, 그래서 너네가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엄마가 상처주려는 게 아니라 엄마가 타고난 게 그래, 그래서 너네도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엄마도 아이들한테 너무 상처 된다, 아이들아.. 그걸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선생님들이 중재를 해주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게 돌아가는 거예요.

- M(여성, 50대): 간사님 말씀에 저도 한 말씀 덧붙이고 싶은 건, 그런 MBTI가 실질적으로 지금 아이와 엄마의 관계도 있지만, 이게 가족력, 가족들한테도 그렇거든요. 요즘 부부상담도 MBTI가 굉장히 필요해요. 이 정림동 지역구 내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남자 분들이 되게 예민해 계세요. 그리고 지금 부부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하도 영역권이 있다 보니까 부부들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부부갈등도 많아요. 그런 부분 안에 그 MBTI에 대한 중재 역할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의 문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하고. 근데 정말 좋은 시스템이에요.

- 이리나: 이게 필요할까 하고 살짝 해봤는데 맘 카페가.. 올렸는데, 관저동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정림동이 약하거든요. 이렇게 (참여)안 할 줄 알았는데 하루 만에 마감이 되더라고요.

- M(여성, 50대): 애니어그램 수업도 한 번 진행해주면 좋겠고..

- 임진섭: 이 마을 안에서 이런 정말, 취약계층 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심리정서적인.. 부분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넓은 도움의 영역 안에서.. 우리 회장님? 어떠세요? 자,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마을.. 많은 사람들이 마을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 돈을 주면 될까, 아니면 뭐를 하면 될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 N(여성, 60대): 여태 지금까지 얘기해 왔잖아요. 참여에 따른 보상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죠, 이제.

- 임진섭: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다음에 정림동 폭우피해도 있었죠, 뉴스에 나오는 거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복구하는 활동, 그런 것도 상당히 인상 깊었고.. 그.. 우리 지역 안에 굉장히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던 말이에요. 정부나 지자체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돌봄의 영역이 있지 않을까.. 정부는 정부대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번 해보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마을 안에서 보살핌이 가장 필요한 주민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마을 안에서 돌봄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고.. 우리 뭐 대표님?

- N(여성, 60대): 저는 아직 필요하다는 걸 못 느껴서.. 많은 걸 해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복지관에서도 해주시고 행정센터도 엄청 많이 해요. 받는 사람들은 너무 충분히 받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딱히 뭐 필요하다는 거는..

- 임진섭: 근데 돌봄을 너무 작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공동육아도 큰 돌봄이죠. 정말 못 살고 취약계층한테 뭔가 경제적으로 보조해주고 이런 돌봄만 있는 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서로 돕고 사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정말 요즘에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정말 이제 는 뭐 다 나라에서 혜택도 가고 하잖아요. 그렇죠?

- N(여성, 60대): 너무 또 크게 가면 바라볼 수가 없는 거고. 크게 보면 한었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크게 바랄 수는 없는 문제고요. 현실에서 작게, 작게 나가다 보니까, 아니면 뭐 필요하다는 건 별로..

- 임진섭: 주위에 돌봄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분은 딱히 없다..

- M(여성, 50대): 전 지금 수해로 인해서 생겨난 거라고 해서 한 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현재 코스모스아파트라든지 우성아파트에 지하가 물이 찼을 때는 집중을 해서 관심들을 가져주셔서 지원물품, 집에도 또 도배·장판, 가전제품 열 몇 가구를 다 넣어주고 우성아파트에 물을 제거해주고 차량 보상에 대한 걸 해주셨다고 언론지에서도 봤고 직접 받으신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 정림동에서 수해를 본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큰 도로가에 있는, 지하에 있는 상가들.. 있는 데도 그 사각에서 빠져 나가신 분들이예요. 정말 소파가 다 나와져 있고, 한숨을 쉬시고 그러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고 여쭙봤더니, 너무 힘들다, 우리도 수해를 입었는데 그 어떤 것도 누구도 와서 쳐다보지 않는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냥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어떤 시각에 놓여 있는데 문을 닫아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저 사람들 개인적으로 저는 해줄 게 없어서 청소라도 도와드려 볼까요 했더니, 원장님 병나서 못 도와준다, 말씀만이라도 고맙다.. 우리가 해줄 일은 서로 힘드시죠, 수해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하면서 관심을 주는 말 한마디가 굉장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집도 누군가가 필요한 주민들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코로나 그, 피해, 이거에 의해서 부부들이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 안에서 갈등이 많아요. 부부끼리 싸우고 부딪치고 쉬고 싶어도 못 쉬고 이럴 때가 있는데, 이걸 다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상가 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 번씩.. 많이도 필요 없고, 이벤트로라도 혹시 있다면 그런 걸 지원해서 격려차, 어떤 강의.. 휴면강좌, 기운 내십시오, 상가를 가지신 분들, 아니면 힘든 분들 와서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하는 그런 게 있다면, 듣고 부부를 서로 격려해주고 입장 차이를 좀 설명해준다 보면 좀 더 기분 좋은 또.. 지역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 임진섭: 돌봄 대상을 항상 우리가 작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돌봄의 대상자가 좀 확대된 개념으로 가고 있고, 지역의 어떤 상가 분들이라든지, 같이 남편과 아내가 24시간 붙어있다 보면 안 싸울 수가 없죠. 싸우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상담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성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시작해서 정례화하고 주기적으로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좋네요.

- L(여성, 50대): 지금은 뭐 근데, 뉴딜인가? 무슨 마을복지 뭐가 지금 있잖아요. 거기서 뭐, 동네방송국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리나: 도시재생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동네에 대한 뉴스를..

- M(여성, 50대): 그리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라 그러면은 상가인 들에게 지원 좀 해주십시오, 후원 좀 하십시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상가인들한테는.. 정림동 주민들이 워낙 그냥 오는데 후원만 하라고 했지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성이라든지 프로그램성이 없다 보니까 아이, 또 왔어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 임진섭: 이게 맹목적으로 봉사를 강요해서도 안돼요. 솔직히 얻는 게 있어야 돼요. 본인들도. 본인들도 얻는 게 있고, 봉사가 사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얻는 게 있어야 내가 혜택이 있어야 좀 더 많이 더 참여하게 되고 하는 거지..

- M(여성, 50대): 거시적 입장으로 봐서는 그 분들이 집안으로 들어가서 그 미시적인 봉사활동의 주축이 되고 그 안에서 또 가정이 다져지면 아동들에게 나가는 서비스도, 아동들에게 가르치는 부분도 연결이 되고, 그 과정이 화목해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처럼, 미시적에서 거시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 L(여성, 50대): 어떤 드라마, 전에 주말드라마에서 시장사람들 얘기.. 거기서 보면, 거기서 스포츠댄스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서도 무슨 상인들끼리 합창대회나 그런 걸 하고 서로, 그런 거를 좀 지원을 해주고 활성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림동이 옛날에는 먹자골목으로 굉장히 유명한 데예요. 지금은 다 죽었거든요. 상권회복 그것도..

- 임진섭: 상권이 회복된다면 결국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네요.

- N(여성, 60대): 이번에 많이 바뀔 거예요. 뉴딜사업 때문에. 시장 거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도 크게 해놓고 하면은, 거기를 중심으로..

- L(여성, 50대): 방송도 한다고 하니까 조금..

- M(여성, 50대):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저희는 지금 주변 분들이 굉장한 기대를 좀 갖고 있어요. 복지관이나 행정센터에서 어떤 형태, 나라에서 지원되는 부분을 잘 만들어주고 잘 이용해야 나중에 더 많은 홍보가 되고 도시개발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받았다는 이슈가 돼줘야 계속 어느 동이든 지원을 받을 것 같아요.

- N(여성, 60대): 규모가 크거든요. 230억인데 여기부터 여기 역있는 여기까지.. 그거 하고 나면 그때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등에 따라서 하다 보면..

- 임진섭: 다음으로 같까요? 자, 마을돌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우리 마을 주민들, 특히 여기 계신 우리 리더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그러니까 보상 같은 거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봉사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는 사람만 하고 있고, 봉사를 장려하고 더 촉진하기 위해서는 작은 뭔가 혜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공감 가고 있고.. 일단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돌봄을 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공동육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 L(여성, 50대): 이제 어르신들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매일 모여서 노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부락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긴급재난지원금 그거를 가서 이제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도우미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 임진섭: 긴급재난지원비 신청을 받기 위해서?

- L(여성, 50대): 네, 신청서 쓸 때 긴급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앞으로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점점 독거사?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건강이나 그런 걸 체크할 수 있게, 경로당이나 아니면 통장님이나,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문시스템이나, 혹은 누가 일일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 임진섭: 안부확인? 매일 매일이 아닌..?

- L(여성, 50대): 가령 저희, 제 친구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매일 오세요. 근데 그 전날부터 전화를 드려도 안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이제 아침에 요양보호사한테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일찍 가주세요, 갔더니 고관절이 빠지셔서 전화를 받으려 못 가시고 그러고 밤새도록 계셨다는 거예요. 그나마 요양보호사도 없으면, 자식들도 만약에 멀리 있다면 며칠 그렇게 있다가 가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노인 분들은 진짜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니까 그런..

- 임진섭: 약간 기능상태가 좀 떨어지시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주기적으로 안부확인 같은 것 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정립동도 점점 고령화가 심해지잖아요.

- L(여성, 50대): 네네, 여기가 특히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 N(여성, 60대): 지금 소규모로 하고는 있어요. 임의로 신청된 분들, 어르신 분들은 저희한테 명단이 와요. 지금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통장들이 자기 통들은 그런 분들을 일주일에 2번씩 전화 드리고, 찾아가 보고. 그 분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안 해요.

- 임진섭: 다행스럽게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00님, 나는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오런 사람들한테 오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 M(여성, 50대): 글썄요, 크게.. 뭐 무엇을 해야 되겠다.. 지금 지역 내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잘 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복성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글썄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 빼고는 다른 거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지 못 하가지고, 돌봄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 추가적으로..

- 임진섭: 이런 것들도, 나는 이런 건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있으면 정리도 될 것이고 또 빠진 부분을 찾아내서 이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 L(여성, 50대): 근데 요즘은 저희가 봉사를 하면서 보면요, 옛날에는 부녀회에서 동 김장 같은 거 다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왜 힘드냐면요, 우리 김장도 안 하는 시절이에요. 아니, 내 감장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와서 봉사를 하라고 시키냐고요. 지금 시절이 이제 봉사 개념이 예전하고는 많이 바뀌었어요.

- M(여성, 50대): 내 부모님도 내가 못 모시는데, 내가 다른 어르신들 모시겠다고 나와 있는 자체가 우리 부모님께 불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내 아들도 제대로 못 돌보면서 다른 아이를 돌본다고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의 인격만 생각하나 싶고.. 보상차원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도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 L(여성, 50대): 그래서 제가 원래 새마을 그거 옛날에는 성실, 근면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환경. 환경 살리기 그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봉사라는 자체도 이제는 그쪽으로..

- 임진섭: 이게 이슈가 바뀐 거군요, 포커스가.

- L(여성, 50대): 네, 뭐 몸을 써서 김장을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저희 새마을 서부지회에서도 지금.. 뭐 김장 같은 거를 전에는 서구청에서 모여가지고 각 자치단체마다 했잖아요. 올해는 다 완제품으로 그냥 사서 드려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 임진섭: 연말만 되면 딱 떠오르는 봉사활동이 연탄 나르기하고 김장이.. 그래서 어느 가정 가면 냉장고에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쌓여있는.. 차라리 그거 나한테 달라고, 우리 집도 필요하다고..

- M(여성, 50대): 우리가 가면요, 반찬 들고 가잖아요? 김장 김치 좀 갖고 가, 그래요. 어르신들이.

- 임진섭: 어떻게 보면 봉사의 수혜자들이 갖고 있는 욕구도 파악하지 못한 채 하는 사람들끼리 위주로 이게 좋으면 좋겠거니 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봉사의 이슈, 대상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 M(여성, 50대): 아, 제가 그거는 하나 제안을 해봐야 되겠다.. 독거어르신인데 반찬봉사를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보면 정말 웃이 너무 허름해서, 어르신들이 돈이 있음에도 못 사 입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저희가 외투가 하나 있었는데, 어르신께 갖다 드렸더니 정말정말 잘 입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아니바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서로 했던 부분에서 웃이 좀 좋은 웃음이 있어서 제가 소장하고 있다가 그걸 좀 갖다 드렸는데, 그럴 때 그분들이.. 욕구 얘기하셔서 생각이 난 거예요. 반찬보다 이게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반찬보다 내가 직접 나가서 쇼핑도 못하고 자식새끼들한테 뭐 사다달라면 괜히 그렇고,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누군가에게 부탁하자니 어렵고. 근데 정말 이렇게 딱 가서 뵈고 부족한 게 있어서 챙겨드렸더니 그런 부분에서.. 일대일 어떻게 보면 상담이 생긴 거죠.

- 임진섭: 봉사를 하려면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게.. 우리가 제일 먼저 그게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는 좀 봉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또 그 분들이 원하는 걸 해야 하지 않나..

- L(여성, 50대): 꼭 김치만 갖다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새마을에서는 1년에 한 번 빨래봉사를 해요. 이불빨래. 새마을에서 이불빨래 차가 오거든요. 근데 독거,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불빨래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새마을에서 그거를 하기는, 인력이 진짜 저희들도 하루에 보통 7, 8명밖에 안 나와요.

- 임진섭: 그러면 그런 거 하려면, 맨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런 거 하려면 어떤 도움이.. 이런 거 할 때 차를.. 어..

- L(여성, 50대): 그러니까 세탁기. 대형세탁기, 대형건조기, 공간. 제 생각에는 만약에 각 자치단체마다 봉사활동 인원을 30명만 뽑는다면, 한 달에 한 번만 나가서 봉사를 해도, 동네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 위해서 그런 서비스는 해줄 수 있죠.

- 임진섭: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런 거급의 장비랄까 아무튼 개인이 하긴 좀 그렇고,, 좀 목돈이 들어가는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 M(여성, 50대):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독거어르신들을 몇 분 봉사를 하다보니까 목욕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목욕봉사가 없었어요.

- 임진섭: 지금은 장기요양에서 하고 있잖아요.

- M(여성, 50대): 장기요양 쪽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이고, 어떤 그런 형태였는데,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저희 집에 목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목욕탕이 큰 게 있어서, 어르신을 모셔다가 목욕을 몇 번 시켜 드렸어요. 목욕을 시켜드렸더니 좀 이따가 때가 돼서 점심을 좀 챙겨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이 사업을 딱 하게 되다보니까 그때 도움을 드렸던 어르신들이 저한테는 인적 네트워크, 고객이 돼버린 거예요. 이럴 때 정말 그 댁에 갔을 때, 좀 전의 말하고 같이 연계되는 건데요, 목욕을 시켜드리려면 목욕 공간이 필요하고, 세탁을 해드리려면 세탁 공간이 필요하고, 반찬을 해드리면 주방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 이런 부분 안에서 그걸 오픈해줄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해요.

- 임진섭: 진짜 공간은 정말 저희가 매번 하지만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 M(여성, 50대): 네,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있어도 할 수가 없고요. 공간이 있어도 사람이 없다고 하면 사람 사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내 집을 내가 오픈해서 할 수 있는 형태는 안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구상 인터뷰가 정말 필요한 게 이것 또한 개별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봉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몸이 갈 수 있다면 갈 곳을 만들어주시는 게 맞아요. 도움이나 지원, 지원에 대한 가장 맹목적인 말씀을 드리면 장소예요. 모일 수 있는 장소.

- L(여성, 50대): 애들 공부방이라던가..

- 임진섭: 여러 가지로 애들 공부방, 아니면 공동육아 나눔터라든지, 아니면 또 반찬배달, 하다못해 내 집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공유된 키친 뭐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 또 하고, 냉장고도 만들어 놓고.

- L(여성, 50대): 만두레도 보니까 주민센터 거기 식당에서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제가 작년에 보니까

되게 알차게 잘하시더라고요.

- 임진섭: 그런 공간은..
- 이리나: 이제 곧 만들어집니다. 지금 도시재생 들어오는 곳에서 어울림센터라는 공간을 하나 만드는데 거기서 가장 크게 확정된 공간이 공유부엌이랑.. 완공은 좀 더 걸릴 거예요.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지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죠.
- 임진섭: 거기서 이제 아마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2층인가 3층에 위치하고 공동, 공유부엌 같은 것도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두고 볼 일이고,, 아, 공간에 대한 우리 주민, 우리 리더 분들의 욕구가 크시네요.
- M(여성, 50대): 네, 그것만 있다면 뭐, 사람을 가서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한 집을 하든 한 어르신을 하든..
- 임진섭: 하다못해 거기 빨래방이나 건조기가 짝 있으면 정말로 이런 세탁, 뭐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눠서 집에서 할 게 아니라.
- M(여성, 50대): 빨래방에서 돈을 집어넣고 할 수 있는 건 우리도 조작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가능한 거지, 일명 이런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운 분들의 지원을 받으려고 할 때는 보상차원이 아닌 지원에 대한 형태가..
- 임진섭: 봉사도 정말 힘들게, 어렵게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사람들이 봉사를 생각하지, 막 정말 옛날처럼 예를 들면 빨래터 가서 찬물로..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봉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좀 편하게 시대가 많이 변했고, 생각이 많이 변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뭐, 마지막으로..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때를 놓쳐서 못 했다, 집에 가다가 갑자기 생각 나가지고.. 그런 말씀이 있으면 또 해주세요.
- M(여성, 50대): 자주 좀 해주세요. 반복된 내용이라도 들으시고..

**4. 마무리 : 임진섭 교수**

- 임진섭: 그러면 오늘 FGI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정말 바쁘신데 와주셔서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저희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잘 활용해서 좋은 보고서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고맙습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현장연구 2020-2]

**마을돌봄 활성화 및 체계구축을 위한 선결요인에 관한 연구**

발행일 : 2020년 12월

발행인 : 유 미

발행처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0층(우:34917)

전화 : 042-331-8910

팩스 : 042-331-8924

홈페이지 : <http://daejeon.pass.or.kr>

인쇄처 : ㈜하이브

ISBN 978-89-98568-73-3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있습니다.